제18기 박물관대학 하반기 과정

한국 근대사의 연인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제18기 박물관대학 하반기 과정

한국근대사의 연인들

- **주　　제** : 한국근대사의 연인들
- **일　　시** : 2016. 9. 23(금) ~ 11. 11(금) 중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 **장　　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 **일　　정**

연번	날　짜	분　야	강 의 주 제	강　사
1	9월 23일	개　관	근대 '연애'의 탄생	**김 지 영** (대구카톨릭대학교)
2	9월 30일	윤심덕 김우진	死의 찬미	**이　철**
3	10월 7일	김환기 김향안	이름에 새긴 사랑의 언약	**문 정 희** (한국미술연구소)
4	10월 14일	이중섭 야마모토 마사코	국경이 갈라놓은 內鮮의 結婚	**최　열** (서울대학교)
5	10월 21일	나혜석 최　린	정조는 취미다	**이 용 창** (민족문제연구소)
6	10월 28일	이　상 금홍이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장 용 경** (국사편찬위원회)
7	11월 4일	문화유적답사	환기미술관 · 수향산방 · 이상의 집	–
8	11월11일	유치환 이영도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	**김 용 범** (한양대학교)

※ 강의 일정 및 기타사항 변경 가능성 있음

목차

연애, 문학, 근대인	김 지 영	07
윤심덕과 김우진의 현해탄 투신자살 사건, 한국사 최고의 情死	이 철	21
'종달새 노래할 때'에서 '항아리와 여인'까지, 김환기의 삶과 여인	문 정 희	41
이중섭 · 야마모토 마사코, 국경이 갈라 놓은 內鮮의 結婚	최 열	57
나혜석과 최린, 파리의 '자유인'	이 용 창	69
李箱과 여성들, 그 욕망과 공포의 기록	장 용 경	83
시로 승화한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청마 유치환과 정운 이영도	김 용 범	97

연애, 문학, 근대인

김지영 (대구카톨릭대학교)

연애, 문학, 근대인[1)]

김 지 영 (대구카톨릭대학교)

1. '연애'라는 신조어

2000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기묘한 이야기』에는 「사무라이의 핸드폰」이라는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한 사무라이가 길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는다. 그것은 미래 사회의 역사학자들이 시공을 거슬러 보낸 물건이다. 그는 이 핸드폰을 줍고 역사에 기록된 자신을 조사하는 미래의 인물과 대화한다. 정부의 집을 방문한 사무라이는 마침 울리는 핸드폰을 열고 자랑하듯 통화를 시작한다. "지금 어디 있어요?" "둘째 집이요." "아, 애인이랑 있어요?" "애인? 애 …… 사랑. 인 …… , 사람. '사랑하는 ……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사무라이의 얼굴은 기쁨으로 발그레하게 빛난다. 그는 자신의 정부를 '애인'이란 관념으로 처음 '발견'한 것이다. 30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이 대화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관념들의 자명성을 다시금 반추하게 만든다. 18세기의 인물에게 '애인'은 '아름다운' '독립어'가 아니었다. '연애'도 그러했다.

'戀愛'는 '戀'과 '愛'라는 한자어를 합성한 신조어였다.[2)] 한자어 "戀"과 "愛"는 각기 넓은 의미의 그리움과 사랑을 뜻하는 동시에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글자였는데, "戀"에 그리움의 뜻이 강했다면 "愛"에는 성적인 사통의 의미가 더 강했던 듯하다. 고전 문헌들에는 戀과 愛를 이용한 조어로서 "愛敬", "愛顧", "愛憐", "愛戀", "愛慕", "愛恨", "愛悅" "愛寵", "愛幸", "愛好", "戀慕", "戀戀", "戀愛" 등이 사랑을 지칭하는 말로 두루 사용되었다. 이 때 "戀愛"는 "愛戀"보다 드물게 쓰였던 것으로, 물론 '사랑하다', '그리워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여 쓰이던 독립 어휘는 아니었다.

남녀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용어 '연애'는 영어 'Love'의 일본 번역어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번역어 성립 사정』의 저자 야나부 아키라(柳父章)에 의하면, 일본에서 'Love'가 '연애'로 번역된 것은, 불결한 연감을 일으키는 일본 통속의 문자들과 영어 'Love'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원래 일본의 전통 속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육체적 결합과 분리되지 않았다. 『만엽집』과 같은 문학 작품집에 실린 사랑의 노래는 일단 서로 만나 성적으로 결합한 이후 헤어진 남녀의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 일반적이었

---

1) 이 글은 2016년 간행된 필자의 저서 『매혹의 근대, 일상의 모험』(돌베개)에 수록된 글을 저본으로 함을 밝혀 둔다.

2) 서구 근대의 영향으로 번역을 통해 형성된 신조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기존 한자의 의미를 바꾸지 않고 조합해서 쓴 경우이고, 둘째는 '자유'혹은 '자연'과 같이 이전부터 있었던 한자어의 의미를 바꿔서 사용한 경우, 셋째는 '사회' 혹은 '부동산'과 같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낸 경우이다. '연애'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종류의 신조어에 해당한다. 마루야마 마사오, 가토 슈이치,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역, 이산, 2000, p.106, 참조

으며,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면 곧바로 성적인 결합을 연상했던 풍토 위에서, 성적인 접촉을 기피하거나 생략하고 상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영혼의 순정을 바치는 사랑의 개념은 이해되기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은 기존의 남녀 간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한국어에서 남녀간의 사랑을 지칭하는 의미로 "戀愛"가 처음 발견된 곳은 1910년대 초반의 신소설들이다. 1912년 〈〈매일신보〉〉에 발표된 조일제의 『쌍옥루』에는 '사랑', '연ᄋᆡ' '편ᄋᆡ'라는 용어가 의미의 구별 없이 혼란스럽게 섞여 쓰이는 부분이 발견된다. 다음해 같은 신문에 연재된 『장한몽』의 초두에서는, 금강석 반지를 낀 김중배의 화려한 모습에 현혹되었던 심순애가, 이수일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신성한 연애'의 힘에 의해 속된 욕망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순간이 기록되고 있다.

1910년대 초반 신소설들에서 드물게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연애'는, 1910년대 중후반까지도 희귀한 어휘였으나, 1919년 즈음에 이르면 폭발적인 유행어로 자리잡는다. 대대적인 유행어로 대두되기 이전까지 '연애'는 '愛', '愛情', '親愛', '相思', '사랑' 등의 어휘들과 경쟁해야 했다. 이 가운데 '연애'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사용된 우리말은 '사랑'과 '相思'였던 듯하다. 그러나 '相思'는 '연애'가 세력을 확대하면서 점차 용례가 줄어들었고 1920년대에 이르면 '연애'와 '사랑'이 남녀간 열정을 가리키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된다. 1920년대 중반까지 '연애'는 사실상 '사랑'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었다.

그렇다면 19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잘 쓰이지 않았던 '연애'가 남녀의 열정을 가리키는 가장 유력한 어휘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연애'가 남녀의 사랑을 공식적으로 정당화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어휘였기 때문이다. 1913년 〈〈매일신보〉〉에 발표된 신소설『눈물』에서 작가 이상협은 지체 높은 협판댁 규수와 가난한 고학 청년이 서로를 연모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 독쟈제군즁, 진졍ᄒᆞᆫ 련ᄋᆡ(戀愛)라ᄂᆞᆫ 것을 경력지 못ᄒᆞᆫ 청년 남녀ᄂᆞᆫ, 조필환이가 일ᄀᆡ 빈쳔ᄒᆞᆫ, 셔싱으로, 쥬인집 규슈를, 사모ᄒᆞ며, 량가의 쳐자로 규중에 잇ᄂᆞᆫ, 몸이 외람히, 청년 남쟈를 사모ᄒᆞᆷ이, 각기 픔힝에 온당치 못ᄒᆞᆫ 일이라고, 반다시 타ᄆᆡᄒᆞ리로다, 그러나 (…) 두 사ᄅᆞᆷ의 련ᄋᆡᄂᆞᆫ, 슌결(純潔)ᄒᆞᆫ 련ᄋᆡ요, 츄잡ᄒᆞᆫ 련ᄋᆡ가 안이며, 신셩(神聖)ᄒᆞᆫ 련ᄋᆡ요, 비루ᄒᆞᆫ 련ᄋᆡ가 안이라, 텬디신명의게 ᄃᆡᄒᆞ야도, 량심(良心)에 붓그러올 바이 업스며, 사회공즁에 ᄃᆡᄒᆞ야도, 타인의 치쇼를 밧을 리유가, 업거늘, 다만 슯흔 바ᄂᆞᆫ,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슌결신성ᄒᆞᆫ 련ᄋᆡ를 츄잡ᄒᆞ고, 비루한 련ᄋᆡ와 갓치, 녁이니, 엇지 옥과 돌이 함씌 타ᄂᆞᆫ 유감이 없스리오. (이상협, 『눈물』, <<매일신보>>, 1913.7.23.)

작가가 볼 때 두 주인공의 연애는 인정의 자연스러운 발화이며 순결한 감정이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일을 상상할 때 일상적으로 떠올리는 추잡하고 비속한 관계와는 달랐다. 그런데 '남녀 간'을 뜻하는 말만 비추어도 저속하게 취급하고 기피하는 풍토는 이 같이 순결한 감정의 표현을 가로막고 있었다. 세간의 점잖지 못한 사랑의 풍토에 젖어 인간의 본원적인 정의 유로를 막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러므로 독자는 순결한 감정을 논하는 것이 조금도 속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했다. 이 같은 논리로 작가는 남녀 간의 은밀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남녀 간의 열정을 공식적인 담론의 영역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이 담론 개방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어휘가 '연애'였다.

이상협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교 윤리의 지배 아래 있던 조선 사회에서 성과 사랑은 공적 담론에서 언급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 성이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점잖지 못한 행위로 간주했던 문화적 풍토 안에서, 이성에 대한 열정이 담론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다. 그런데 새로운 어휘의 생경함은 性과 열정을 이야기하는 데 수반되는 거부감을 줄여준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자주 쓰지 않았던 '연애'라는 말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한 것이다. '연애'라는 신조어는 비공식의 영역 속에 숨어 있던 사랑의 열정을 공식의 영역으로 해방하는 전략적 장치가 될 수 있었다.

2. '신성한 연애'의 상상력

'연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18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던 자유 '결혼'의 다른 표현으로 시작되었다. 혼인의 형식은 개화기 조선 사회에서부터 개혁을 주장하는 계몽주의자들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과부 재가 허용'이라는 갑오경장의 개혁 항목에서 보듯 혼인제도의 시정 요구는 일찍부터 제기되고 있었으며, 〈〈독립신문〉〉에는 조선의 혼인 제도가 지니는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사설들이 종종 실리곤 했다. 갑오경장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유결혼론은 1910년대 초반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191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자유연애'라는 어휘에 슬그머니 자리를 내 주기 시작한다. 자유결혼론의 연속으로서 자유연애론은 혼인 개혁이라는 사회 개량 운동의 차원에서 처음 대두되었고, 그 실질적 의미는 자유결혼론의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즉 '자유연애'란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말로, 사실상 '자유결혼'과 이음동의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결혼'이 '연애'라는 어휘로 대치되면서부터,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들은 제도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 다채로운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자유연애'의 이상은 서로 이해가 일치하는 남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만나 혼인에 이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연애'는 반드시 결혼의 조건으로 머무르지만은 않았다. 『청춘』의 판매부수를 늘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왜 소설이란 소설은 모도 연애결혼 주창의 무기에만 쓰느냐"는 김동인의 유명한 불평의 표적이 되었던 춘원의 소설 「어린 벗에게」의 주인공은 결혼으로부터 독립한 감정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혼인의 형식 가튼 것은 사회의 편의상 제정한 한 規模에 지나지 못한 것-즉 인위적이어니와 사랑은 조물이 稟賦한 천성이라 인위는 거슬일지언정 천의야 엇지 금위하오릿가. 물론 사랑 업는 결혼은 불가하거니와 사랑이 혼인의 방편은 안닌 것이로소이다. (이광수, 「어린 벗에게」, 『청춘』 9호, 106면)

어릴 적 부모의 뜻에 따라 애정 없이 결혼했던 이 청년은, 유학 중에 만난 이상의 여인 앞에 감정의 자유를 선언한다. 조혼 풍속에 따라 학생 기혼자가 많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자유로운 사랑은 혼인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혼인을 위협하는 장애로 다가왔던 것.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순한 감정을 순순히 철회하지 않았다. "육적으로 사람을 사랑함은 사회의 질서를 문란하는 것이매 맛당히 배척하려니와 정신적으로 사랑하기야 웨 못하리잇가."(109면)라는 것이 이 청년의 항변이다. 이 같은 항의는 혼인 제도를 초월하는 사랑을 창출해냈다. 이른 바 감정의 자유, 플라토닉 러브의 시작이다. 혼인하지도 성적으로 결합하지도 않으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의 존재, 그것은 남녀의 관계에 '정신'의 영역을 부여했고, 행위와 감정을 분리시켰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연애'의 이름으로 추앙되었다.

감정의 자유와 혼인 당사자의 정신적 이해를 강조하는 연애의 논리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전통의 감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창조』 1호에 실린 최승만의 희곡 「황혼」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 감각의 불일치로 싸운다.

김 : (…) 참 婚姻을 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圓滿한 理解와 熱烈한 사랑이 잇서야 하지오. 두 사람이 徹底하게 理解하고 熱烈한 사랑이 잇서야 하죠. 이것이 업는 婚姻이라면, 벌서, 이것은 참 婚姻이 못되겟지오

부 : 이놈아 살면 사는 것이지, 참 혼인은 엇던 것이요 거즛 혼인은 엇던 것이란 말이냐 내, 네 소리는 하나투 몰으겟다. 또 철저한 이해는 엇더케 하는 것이 철저한 이해며 열렬한 사랑이라는 것은 엇더케 하는 것이 열렬한 사랑이란 말이냐 (최승만, 「황혼」, 『창조』 1호, 12면)

아버지의 세계에서 사랑은 행위의 문제이다. 살면 사는 것, 혼인하면 혼인하는 것. 이 동어반복의 문장은 행위와 개념의 분리를 무력화시킨다.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삶도 사랑도 행위를 통해 '실행'되는 것이었다. 그는 '동사'의 세계를 산다. 그러나 아들은 사랑을 '생각'하고자 한다. 그에게 사랑은 철저한 이해와 열렬한 감정이다. 아들은 사랑을 '사고'하고 자신이 '사고한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 한다. '사고되는 사랑', 그것은 사랑을 동사의 영역에서 명사의 영역으로 이동시킨다. 연애는 이 명사화된 사랑, 개념화된 사랑의 자리에 위치한 언어였다.

'연애'는 이처럼 사랑을 사실로부터 의식 혹은 가치로 바꾸고, 사랑의 감각적 정신적 측면을 사유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정신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는 말은 아니었다. 연애의 유행과 더불어 또 하나의 유행을 만들었던 것이 영육일치의 사랑이라는 말이었다. 영육일치의 사랑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스웨덴 여성운동가 엘렌 케이의 사랑론에서 주창된 것으로, 춘원과 같은 자유연애론자들의 논의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었다. "세상에서 흔히 「플라토닉」의 연애 — 곳 감각을 억압한 연애로써 고상한 연애라고 하나 그것은 대단한 오해일다. 참 의미로의 연애는 어대까지던지 靈肉一致의 戀愛가 아니면 아니다"[3]라는 엘렌 케이의 주장은 정신적 사랑 역시 기형적인 것으로 전락시켰다. 참다운 사랑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결합하는 곳에 있다는 생각은, 그동안 담론의 표면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육체에 대한 관심을 새로이 환기시켰다. 게다가 이 시기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과학이론이었던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은 성적 결합의 문제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연애는 聰明强壯한 자녀를 낫키 위하야의 유일한 수단방편이라 하는 점으로 보아 最貴한 것이오 신성한 것이다"[4]라는 식의 국민 양성 논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영구히 보존키 위하야 이성의 결합을 구하는데 연애를 전제로 한다. 그럼으로 연애는 신성하다"[5] 등과 같은 생물학적 주장들은 사회진화론적 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었다. 남녀의 성 결합을 인간 삶의 토대로 간주하는 이 같은 생각들은 연애를 신성한 것으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1920년대 중반으로 가면 육체에 대한 관심과 논의들은 더욱 노골화 된다. 『조선문단』 10호(1925)의 특집 기사 〈제가의 연애관〉에서는 성적 애착과 생식작용이라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연애를 이해하는 생각들이 중심을 이룬다. 예컨대, 파인 김동환은 "첫재로 생명의 혁명의 불길을 주니 할 것이며, 둘재로 마취제가 필요한데 그 임무를 맛터주니 조흔 것이며, 셋재로 성의 조화기관이 되니 할 일이라"고 연애의 필요를 긍정했다. 또, 양주동은 연애가 "성욕의 詩化"이며, 성욕을 온전히 해탈한 특별한 연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깨비나 마찬가지의 허상일 뿐이라고 일축했고, 최서해는 "연애는 성적으로 자기를 충실히 하려는 강렬한 애욕에서 나오는 것"으로 "성적 방면에 대한 자기완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규정했다. 육체에 대한 관심은 과도한 연애열을 경계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역으로 그 때까지의 상식을 초월하는 이채로운 사유들의 발원지가 되기도 했다. 1924년 〈결혼문제호〉라는 부제로 발간된 『신여성』 5호에서 김기진은 새로운 사랑이 발생하는 곳에는 늘 새로운 정조가 생긴다는 대담한 주장을 펼친다.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사랑이 싹을 터서 연애가 성립될 때에는 그 사랑의 불길로 그 여자의 정조가 단련"된다는 것. 몇 번을 결혼하더라도 처음과 같이 몸과 마음을 수양하면 정조란 "완전히 재생"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같은 호에 실린 「결혼생활은 이러케 할 것」이란 글에서 주요섭은 결혼이라는 절차 자체를 완전히 거부했다. 결혼하고 싶으면 함께 살면 되는 일이요, 종교의식적 절차란 불필요한 의례라는 것이다. 『조선문단』 3호에 발표된 한병도의 소설 「그날밤」은 "나는 Onlylove를 부인한다. 러-브는 얼마던지 이동하는 것이다. 이동은 진화다."라고 당당하게

3) 노자영, 「여성운동의 제 1인자 엘렌 케이」, 『개벽』 8호, 1921.2. p.52.

4) 서상일, 「〈문단의 혁명아〉를 독하고」, 『학지광』 15호, 1918.3. pp.66-67.

5) 김영보, 「실제록」, 『조선문단』 10호, 1925, p.22.

선언하는 프리섹스주의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인류의 해방이 완전이 되는 날”을 희구하는 이 청년은, 일부일처제를 거부하고 국가와 사회가 육아를 담당하는 신 사회를 고안해 냈다.

이처럼 ‘연애’는 감정과 육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유교적 인식 틀 안에서는 가능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상력을 촉발시켰다. 주목되는 것은 감정, 본능 제도라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연애에 접근하는 이질적인 시각들이 모두 ‘신성한 연애’라는 하나의 기표를 향해 집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연애의 정신성에 천착하는 논의도 육체와 본능의 중요성에서 출발하는 논의도 모두 ‘신성한 연애’를 강조했다. 신성한 연애는 혼인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면서도 혼인을 초월하는 감정의 자유여야 했고, 사랑의 정신적 측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육체와 본능에 대한 존중 속에서 강조되고 있었다. 여기에 연애를 전해준 서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사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연애는 이국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신성한’ 문명의 사랑으로 추앙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전통사회의 축적된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신성’하기도 했다. ‘신성한 연애’는 이처럼 중층적인 관점들이 결집하는 기표였고, 상호모순적인 의미들이 공존하는 하나의 추상이었다. 결국 연애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랑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앞으로 있어야 할 사랑, 미래의 소망스런 삶을 가리키는 기표였으며, 최종적인 결정물로서의 무엇이라기보다는 문명화된 삶의 ‘신성’한 이미지에 의해 접근되는 문제적 시각의 집결지였다.

3. 식민지의 사랑

사랑이 ‘연애’라는 어휘를 통해 새롭게 표상되고 공론화 되면서, 가족과 결혼을 둘러싼 전통적 관계의 양식은 급속한 전환의 계기를 맞는다. 그런데 ‘연애’라는 어휘가 그토록 단기간에 쉽게 전통적인 어휘들을 이겨내고 사랑을 가리키는 중심 어휘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 더욱이 지고한 가치를 지니는 기호로 정착했다는 사실은, 이 개념을 수용하는 언어와 원본 언어 사이의 관계가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지하다시피 ‘연애’는 외국문학의 독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10년대에 발표된 춘원의 「김경」에서는 木下尙江의 「火の柱」를 통해 “〈주의〉의 고상한 甘味와 〈분투〉의 욕망과 〈연애〉의 醇味”를 배웠다는 소년이 등장한다. 밤을 꼬박 세워 소설을 읽었던 벅찬 감동을 이 소년은 “고열한 불바다”의 감격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계에 일홈난 연애소설 가운데 일어로 번역된 자는 대개 보왓다. 그리고 그 소설 가운데 연애에 성공한 자는 나로 치고 성공치 못한 자는 나의 사랑의 원수로 치고 마럿다”(김동인, 「마음이 여튼 자여」, 『창조』 3호, 29면)고 밝히는 청년에게 소설은 연애를 가르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였다. 번역소설이 들려주는 사랑의 이국성은 낯선 삶의 풍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알고자 하는 욕망을 작동시켰다. 그리하여 연애를 학습하는 청년들의 머릿 속에 자리잡은 것은 서구적인 삶의

풍경이었다. 김장로가 미국 유학을 조건으로 선형과의 혼약을 청할 때 이형식이 떠올리는 것은 피아노가 놓이고 바이올린이 걸린 깨끗한 양옥집에서 선형과 함께 사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 사랑의 연상은 "두 음악가가 터-ㄱ 결혼을 해 가지고 양옥집 하나 족으마하게 짓고 조석으로 내외가 하나는 피아노 타고 하나는 사현금 타고 …… 그런 팔자가 어대잇나"(방정환, 「그날밤」, 『개벽』 6호, 153면)라고 한탄하는 4년 후 한 소설 주인공의 소망과 놀라울 만큼 흡사하다. 연애를 열망하는 청년들이 소망했던 삶은 이처럼 유사한 이미지 틀 속으로 귀속되고 있었다. 이들이 바라는 미래는 깨끗한 양옥집 거실에서 피아노를 울리며 함께 웃는 가족의 모습을 찍은 서구적 가정의 선전 사진 한 컷과 같은 이미지 이상이 아니었다. 피아노를 갖춘 양옥의 스위트 홈(Sweet home)은 '연애'에 달린 부속품과 같은 것이었다. 이 같은 이미지는 제국주의의 문화, 경제적 침투를 용이하게 해 주는 취향의 동질화를 야기시켰다. 달리 말하면 청년들은 연애의 이미지가 촉발하는 문명적 삶에 대한 동경 속에서 서구적인 물질문화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기호들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있었다고도 할 것이다.

서구적 결혼 및 가정의 합리성은 전통에 대한 거의 저주에 가까울 만큼 강렬한 비판 위에서 강조되었다. 자유연애론을 집대성했던 춘원의 논설들에서 과거의 조선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야만의 사회로 전락한다. 춘원은 조혼의 관습이 "食, 色 중심의 야만적 인생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분석하고, "조선 사회에 만반 현상이 此 食과 色을 중심으로 旋轉"(「조혼의 악습」, 『이광수전집1』, 삼중당, 1961, 501면)한다고 규정했다.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의 가정은 풍파와 적막과 반목과 悲愁와 죄악과 불행의 소굴"이었으며, "조선의 부부는 厭惡와 불화와 怨嗟와 고통의 집합"이었다. 조혼한 부부가 낳은 "조선의 아동은 정신상으로 대개 병신이외다"(「혼인론」, 『전집17』, 140면) 쯤에 이르면 조선의 풍속에 대한 춘원의 자기 비하는 극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염상섭이 본 조선의 가정은 어떠했던가. "가장권의 전제, 횡포, 남용 위압과 이에 대한 노예적 굴종과, 塗糊的 타협과, 위선적 의리와, 형식적 허례와, 牢獄적 감금과, 질타, 罵詈, 오열, 怨嗟…… 等 모든 죄악의 소굴"(「地上善을 爲하야」, 『염상섭 전집 12』, 민음사, 1987, 48면)이라는 횡보의 독설은 춘원의 그것과 그대로 닮아 있다. 가정이 이처럼 죄악의 소굴로 전락할 때, 입센의 인물 노라의 출분은 "地上善"의 영예를 얻을 수 있었다.

서구와 전통조선에 대한 극렬한 대조는 사랑을 해방하는 동시에 제약하는 결과를 빚었다. '연애'라는 새로운 표상을 설립하는 일은 사랑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의 권위를 해체할 수 있었던 만큼, 사랑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 그것은 전통 사회가 사랑에 요구했던 의무와 제약들을 되짚어 보고, 현실 속에 숨어 있는 허위와 모순 및 가능성의 조건들을 성찰하며, 사랑을 어떤 결정적이고도 종국적인 단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또 가능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애'는 인간의 욕망과 삶의 조건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표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초기 한국 사회에서 '연애'는 자유롭고 순수한 탐구 이전에, 서구 문명이 전달하는 선험적 개념들의 격자에 의해 미리 구획되고 구조화되는 특정한 인식 방법에 의해 접근되고 있었다. '신성한 연애'의 의미는 우등한 서구문명과 열등한 전통 사회라는 우열의 논리에 의해 구획되고 있었으며, 현실적인 삶의 토대에 대한 고려 이전에 서구문명이 제공하는 이미지에 먼저 압도되고 있었다. 이국의 정서를 담은 새로운 사랑은 식민지 조선에 열광적으로 '적용'되었고, 신교육을 수혜한 조선의 청년지식인들은 신문명의 언어에 재빨리 자신들을 '적응'시켜 갔다. 이 '개조'와 '이해'의 과정은,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하기도 하고 그에 저항하기도 하는 싸움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전통 사회 안에 움트고 있던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그 스스로 발현되고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겼다는 점이다. 이 잠재된 역사는 간과되고, 억압되고, 그리고 잊혀졌다.

4. 연애, 문학, 근대인

연애는 한국 근대 문학의 첫 관심의 대상이었다. 근대적인 문학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춘원 이광수는 자유연애 주창의 선두주자였고, 최초의 문학 동인지들에서는 연애에 대한 표현과 논의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이루었다. 문학은 '연애'라는 새로운 사랑의 표상에 자극받았으며, 이 표상의 확산과 구체화에 능동적으로 기여했다. 연애의 형성과 근대 문학의 성립은, 감정과 의지를 지닌 주체로서 인간을 세계의 중심으로 상정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설립이라는 동일한 맥락 위에서 펼쳐진 역사적 사건이었다. 사회적 의무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에서 벗어나 주관적 욕망과 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의식의 지각변동 위에서 근대문학과 연애는 동시적으로 공식화되었다.

춘원 이광수의 '정'의 논리는 연애와 문학이 어떠한 관점에서 동일한 원천을 지니며, 그것이 그가 생각했던 근대적 개인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인간의 정신을 '지, 정, 의'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문학을 '정'의 영역으로 분립시킴으로써, 춘원은 세계를 감각하고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인간을 사고하고 언술하는 장으로 문학을 정립했다. 감각으로서의 '정'을 문학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정'이 추구하는 가치인 '미'의 실현을 문학의 목표로 규정함으로써, 춘원은 인간의 감각적 삶과 욕망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 이 '정'은 단일한 의미로 통합되지 않고 양가적인 특성을 보인다. 춘원은 '정'을 '계몽의 원천'이자 '계몽의 대상'이라는 이중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정은 인간 고유의 특질로서 인간이 무한히 발전하고 스스로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초적 자격 · 조건을 가리키는 동시에, 개인의 성숙도를 표시하고 문명화의 정도를 분별하게 해 주는 가치 판단의 지표였던 것이다. 즉자적인 욕구나 욕망으로부터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춘원의 '정'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었다.

독립적이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정'의 영역으로 규정된 문학은 자율적이면서도 높고 숭고한 가치를 지향해야 했다. 문학은 세계를 감각하고 욕망하고 움직이는 존재로서 인간을 새롭게 발견했지만, 그 인간은 성숙하고 문명적인 감정의 소유자로 자신을 격앙하는 존재여야 했던 것이다. 같은 논리가 '연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연애'는 춘원이 생각했던 정의 스펙트럼 안에서 자발적인 감정이자 순도 높은 강렬성을 지니는 정념으로서 높은 위치를 점했다. 그러므로 연애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일은 그 자체로서 계몽적 행위로 높이 평가될 수 있었다. 연애는 타율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행동의 지침을 찾아내는 근대적 자아의 발현을 의미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일인 동시에, 더 높고 숭고한 본질을 관계 속에 구현할 수 있도록 단련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정'의 논리를 통해 춘원의 연애론과 문학론은 인간의 감각적, 정서적 욕망의 발현을 주창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문명화된 삶의 도덕적 규율 안에 엄격하게 귀속시켰다.

여기서 문제적인 것은 높고 숭고한 '정'을 향해 자아를 격앙하고 도덕성을 부과하는 자기조정의 힘이 환경과 소통하는 자아의 내부로부터 기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힘은 자아의 외부로부터, 구체적으로는 추상적인 문명의 이미지로부터 부과되고 있었다. 『무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뎨체 ᄌᆞ긔ᄂᆞᆫ 누구를 사랑ᄒᆞᄂᆞᆫ가 션형인가 영치인가"를 고민하는 이형식은 이론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내면적 욕망의 문제에 부딪히고, 진정한 "ᄌᆞ각ᄒᆞᆫ 사람"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불완전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의 갈등을 통해 깨닫게 된 자아의 결핍을 "올타 그럼으로 우리들은 ᄇᆡ호로 간다"는 학업 의지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ᄉᆞ랑에 ᄃᆡᄒᆞᆫ ᄐᆡ도로 죡히 인ᄉᆡᆼ에 대한 ᄐᆡ도를 결뎡ᄒᆞᆯ 수 잇다고 밋ᄂᆞᆫ" 신념의 소유자였던 그는, 자아와 환경을 조율하는 내면의 성숙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인ᄉᆡᆼ에 대한 ᄐᆡ도를 결뎡'할 수 있는 'ᄉᆞ랑에 ᄃᆡᄒᆞᆫ ᄐᆡ도'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더구나 형식이 가르침을 구하는 배움의 출처는 '미국'이었다. 모순적인 자아의 욕망이 빚어내는 내면적 갈등을 외래적인 문명의 가르침 안에서 인위적으로 해소하려 할 때, 전근대적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움직임들은 외적으로 강제된 위계질서 아래 일정한 모형으로 정형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근대문학이 탄생하는 공간에서 '연애'는, 이론적으로 주창되었던 것과는 달리, 자아와 환경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지는 자아 발견의 통로로서 구현되지 못했다. 연애는 문명화된 삶의 이미지라는 자아의 외부로부터 그 실천의 힘을 얻는 이념화된 표상이었으며, 아직 생활의 구체 속에 정착하지 못한 하나의 추상이었다. 감정과 그것이 생성되는 사회적 맥락 사이에 균형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애의 문학화는 이상화된 이념의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표출로 귀결되었다. 식민지 초기의 근대소설들에서 연애는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발견'하기보다는 '선언'하는 계기로 표현되고 있었다.

1920년대 전반까지 발표된 근대소설 가운데 가장 흔히 발견되는 서사의 유형은 (1)'조혼한 청년'이 (2)'자신의 진보한 사상을 이해하는 이성'과 만나 (3)'사랑에 빠짐'으로써 (4)'조혼한 아내와의 이혼을 요구하'면서 (5)'반대하는 부모와 투쟁'하는 이야기이다. 이 때 '진보한 사상(2)'이란 '예술에 대한 이해와 열정'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투쟁하는 이유가 '부모의 예술에 대한 몰이해'로 나타나기도 했다. 사랑의 '발견'이나 내면적 격정의 묘사는 오히려 드문 편이었다. 대부분의 소설에서 갈등의 중심은 (5)에 있었고, 연인들은 사랑 그 자체보다는 부모와의 대결을 통해 '연애'를 이해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했다. 신문명적 사랑과 근대인이라는 텅 빈 기표는 그것과 대척하는 전통과의 대립을 통해 동일성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애의 자유를 외치며 아버지와 투쟁했던 「황혼」의 주인공은 마침내 이혼하고 신여성과 결혼하지만 자살한 전처의 원혼 때문에 병들어 죽게 된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모든 문제를 부모의 탓으로 돌린다. "내 병은 내가 맨든 것이 아니요 …… 다른 사람이 만드럿서 …… 다른 사람이 …… 다른 사람이! ……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 아니, 우리 사회가! …… 나는, 나는! 하로밧비, 저-리로 …… 저-리로! 광명한 천당으로 …… 광명한 천당으로" (『창조』 1호, 19면) 라는 것이 그의 유언. 청년은 전처를 죽음으로 몰고 간 현실 모순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자신의 이념을 재고할 줄 모른다. 모든 것은 부모 세대의 책임일 뿐,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그는 오직 "광명한 천당", 완전한 사회를 꿈꾸는 데서 아버지와 다른 '자기'를 찾으려 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 스며들지 못한 연애의 외래성과 추상성은, 삶의 일반적인 경험 감각에 어긋나는 스토리나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위 속으로 빠져드는 문학작품들이 속출한 원인의 하나였다. 식민지 초기 근대소설에서 사랑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자주 연출했다.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청혼을 거절당한 청년이 거절의 이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기도 하고(이일, 「몽영의 비애」, 『창조』 4호), 신여성을 사랑하여 멀쩡한 아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정말로 아내가 죽었다는 전보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애인에게 달려가는 기혼남이 반어적 인물이 아니라 정당한 주인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백주, 「영생애」, 『조선문단』 7호). 『청춘』(나도향, 1922)의 주인공 일복은, 자살한 연적과 가족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죽여 달라는 애인의 사랑에 감동하여, 실제로 그녀의 가슴을 칼로 찌른다. 이 살인의 순간에 그가 느끼는 것은 참사랑의 감격이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의 부자연함은 소설의 미숙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 체화되지 못한 연애라는 표상의 낯설음 때문이기도 했다. 현실적 삶의 토대 속에 사랑을 성찰하는 내면의 성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를 갈망하는 인물들은 사랑에 대한 추상적이고 외부적인 '지식'을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하려 했고, 그 결과 일반적인 삶의 감각에 어긋나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행위와 태도들이 양산되었던 것이다. 이는 연애가 서사적 상황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 자유롭고 순수하게 실험되기보다는

서사 밖에서 미리 규격화되고 있던 인식의 방법에 의해 접근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설들에서 연애의 묘사는 사실상 '경험'의 문학화가 아니라 외적으로 주어지는 '지식' 혹은 '사상'의 문학화였다.

신성한 연애의 표상에 의해 개발된 삶에 대한 과도한 기대 지평은 실질적인 현실의 경험 지평과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 현실과 기대의 현격한 불일치 앞에서 청년들은 더욱 더 강렬한 열정을 통해 자아의 순수성을 확인하려 했다. 때문에 격앙된 기대와 격정은 자살이라는 과격한 행동주의로 쉽게 치달았다. 수많은 소설의 주인공들이 사랑 때문에 죽어 갔다. 보답 받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죽고(이광수, 「윤광호」, 1916), 애인의 배신 때문에 죽고(방정환, 「그날밤」, 1921), 잘못된 선택을 속죄하기 위해 죽고(나도향, 『환희』, 1922), 애인과 소식이 끊어져서 죽고(윤귀영, 「흰달빛」, 1924), 애인이 몹쓸 병을 지닌 기생이라서 살아서는 육체적 관계를 나눌 수가 없어서도 죽었다(박종화, 「죽음보다 압흐다」, 1923). 죽음은 연애의 이상 앞에 자아의 절대적 순수성을 증명하는 방법인 한편, 역으로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에 항거하는 강력한 저항의 표출이기도 했다. 완전한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이론적 신념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실의 제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세계의 연속성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무너뜨렸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었던 청년들은 죽음이라는 왜곡된 형식으로 주체성의 절정을 맞았던 것이다. 이처럼 인위적이거나 극단적인 방식으로 '연애'라는 추상을 현실화하려 할 때, 자아와 환경을 균형 있게 조율할 수 있는 깊은 내면성의 형성은 불가능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의식의 발달과 더불어 연애가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염상섭과 같은 리얼리스트의 냉철한 현실감각이 발현되기를 기다려야 했다.

사랑은 깊은 내면의 충동 속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고 의미화되지 않은 삶의 진실들을 이끌어냄으로써 끊임없이 새롭게 자아를 발견하라고 명령한다. 감각과 욕망의 들끓는 충동 속에서 자아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 깊은 내면성의 원리에 의해 삶의 표층과 화해시키는 일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할 근대인의 영원한 숙제일는지도 모른다. 식민지 초기, 자유로운 사랑의 표상으로 등장했던 연애는 자아의 주체성을 표출하는 계기로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자아의 내면을 탐구하고 발현하는 계기로 구현되지 못했다. 서구 문명의 자극에서 촉발된 사랑의 추상적 이미지에 경도되면서, 연애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창조'되기보다는 삶에서 겉도는 하나의 이념으로 문학 속에 '인용'되고 '적용'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근대문학에서 연애의 표현은 자기 발견이 아니라 자기 소외의 형식으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추상적으로 겉도는 소문과 이미지의 지배 아래에서 연애의 주장은 식민지 중산계급의 세속적 이념과 취향 속으로 쉽게 빠져 들어갔다. 근대적인 성, 사랑, 결혼의 감각은 이와 같은 공간 속에서 움트고 있었다.

윤심덕과 김우진의 현해탄 투신자살 사건

한국사 최고의 정사(情死)

이 철 (작가)

윤심덕과 김우진의 현해탄 투신자살 사건
– 한국사 최고의 정사(情死)

이 철 (작가)

신여성의 비극적 정사(情死)

조선 왕조의 마지막 국왕인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 조선공산당의 주도하에 6·10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두 달여 후. 아직 독립운동의 기운이 채 사라지지 않은 경성을 뒤흔든 또 하나의 정사사건이 일어났다.

1926년 8월 4일 새벽 4시경,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운행하던 부관연락선 도쿠주마루(德壽丸)의 급사는 선내를 순시하다가 일등선실 3호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을 들여다 보았다. 그러나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은 보이지 않고 대신 가방 위에는 '뽀이에게'라고 쓴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상한 낌새에 편지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

'대단히 미안하나 이 유언서를 본적지에 부쳐주시오.'

종이와 함께 사례를 표시하는 5원짜리 지폐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메모를 본 급사는 즉시 선장에게 알렸고, 곧 배 안이 발칵 뒤집혔다. 배를 멈추고 배안과 부근을 수색하였으나 언제, 어느 지점에서 투신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발견치 못했다. 선실 안에는 여자 지갑에 현금 140원과 기타 장식품 등, 남자의 것으로는 현금 20원과 금시계만이 남아 있었다. 사라진 자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선객명부를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경성 서대문정 일정목 73번지 윤수선(尹水仙), 여자, 31세
조선 목포부 북교동 김수산(金水山), 남자, 30세

수산水山은 김우진의 호이고, 수선水仙(人+山, 水山의 곁에 있는 사람)은 김우진이 지어준 윤심덕의 호였다. 이들의 투신정사가 부산에 도착한 연락선 선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자 조선 사람의 연락선 정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언론에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의 3대 일간지에서는 8월 5일자 사회면 거의 전체를 이들의 정사사건에 할애하였으며, 8월 내내 사회면 주요 기사로 이들의 과거동정과 애정관계를 보도하였다. 특히 윤심덕이 죽기 전 오사카의 닛토(日東)축음기회사에서 '사의 찬미'를 녹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당시 조선 최고의 여류성악가이자 연극배우였던 윤심덕과 목포 부호의 아들로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던 그들은 왜 자살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였을까? 김우진이 남매까지 둔 기혼자였다지만 당시 유부남과 신여성과의 연애는 흔한 일이라 지탄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들이 자살한 후 발견

된 유서에서는 '비관'으로 인해 자살한다고 밝혔는데 그들은 무엇을 비관하였던 것일까?

성악의 천재이자 왈녀로 불렸던 소녀

윤심덕은 1897년 평양에서 아버지 윤석호와 어머니 김씨 사이의 둘째딸로 태어났다. 부모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통해 기독교 사상과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특히 어머니 김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닐 정도로 열성적이었으며 나중에는 평양 남산현교회 전도사까지 맡을 정도였다. 당시 남산현교회는 애국지사인 배형식 목사가 주임으로 있어 민족운동의 기운이 강한 교회 중의 하나였다. 이런 가정환경은 윤심덕이 어렸을 적부터 노래에 자질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자질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며 어린이 성가대에서 찬송가를 불렀고, 교회 옆에 살면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일찍부터 서양 음악을 접했다.

아버지는 풋나물 장사나 막노동 등을 하였는데 벌이가 신통치 않아 늘 가난을 면치 못하였다. 결국 아버지는 개항 이후 급속하게 발전하던 항구도시 진남포로 이사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세월은 흘러 열 살이 되자 윤심덕은 진남포사립숭의여학교에 동생 윤성덕과 같이 입학하였다. 그곳에서 박인덕, 김원주 등과 단짝 친구가 된 윤심덕은 친구들을 놀리는 일에 열심인 장난꾸러기였다. 속임수를 써서 김원주의 구슬을 전부 따먹었다가 다투기도 하였으며, 어떤 날은 책상 실종 사건을 일으켜 김원주와 같이 선생님에게 회초리를 맞기도 했다. 저녁에 학교에 온 김원주에게 선생님이 '귤 궤짝으로 만든 책상은 가져가라.'고 했다며 김원주가 책상을 집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다음날 등교한 김원주는 왜 책상이 없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윤심덕이 자신에게 한 말을 그대로 했으나, 윤심덕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펄펄 뛰었다. 이처럼 그녀는 어릴 적부터 너무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다.

윤양은 본래 어렸을 적부터 성격이 여자로서 너무 지나치게 활발하여 평양말로 '왈녀'라는 별명까지 들은 남성적 여성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동무에게나 또는 그밖에 누구에게든지 결코 지지 않았다는 것과 또는 어떤 실없는 사나이들이 윤양을 여자로 얕보고 희롱같은 것을 하였다가 큰 코를 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합니다(「석일(昔日)은 악단의 명성 윤심덕양(2)」, 『동아일보』 1925년 8월 2일자).

그러나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이면에는 시와 바다와 곡마단을 좋아하는 감성적인 면도 지니고 있었다. 상급학년이 되어서는 스스로 동시도 쓰고, 좋아하는 외국시를 외워 낭송하는 키다리 소녀로 변해갔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진남포에서 보낸 윤심덕은 어머니의 취직으로 인해 1910년에 다시 평양으로 이사하였다. 어머니가 남산현교회에서 친분을 맺은 미국인 여의사 홀 부인이 운영하던 광혜여의원의 사무원으로 채용되었던 것이다. 진남포에서 여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윤심덕은 평양사립숭의여학교로

전학하였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학교에서도 타고난 음악적 재능과 적극적인 성격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은 태어날 때부터 목청이 좋아 학생 때부터 성악의 천재였다. …… 남산현 예배당에서 울려오는 찬송가 소리를 듣고 부엌에 불 넣고 있던 심덕이가 부지깽이를 손에 든 채로 마당에 뛰어 나와 부지깽이를 휘두르며 찬송가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는 동리 사람들도 그가 성악의 천재인 줄을 알게 되었다(「윤심덕 김우진 정사사건 전말」, 『신민』 1926년 9월호).

어릴 적부터 자신의 재능으로 인해 윤심덕은 성악가의 길을 꿈꿨으나, 홀 부인은 그녀에게 의학 공부를 권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찬성이었으므로, 부모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윤심덕은 마음에도 없던 의학공부를 하기 위해 우선 일어를 배우고자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평양여고보에서도 여전히 음악을 잊지 못해 노래를 열심히 불렀으며, 목소리도 어릴 적의 맑고 낭랑한 소리에서 변성기를 지나면서 점차 풍부한 성량과 미성(美聲)을 자랑하는 목소리로 변해갔다. 결국 졸업을 하고 나서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진학하였다. 하지만 교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시 조선에서는 성악을 공부할 길도 마땅치 않았을 뿐 아니라 생계를 도와주길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는 않아서였다. 당시 경성여고보는 관립학교로 무상교육을 하였는데, 대신 사범과를 나오면 의무적으로 1년간 교직에 종사해야 했다. 경성여고보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윤심덕은 이곳에서도 학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목청이 좋다는 걸로 이름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말쑥한 얼굴, 커다란 키에 어깨, 목을 길게 빼고 활개를 치며 기탄없이 돌아다니는 그 태도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특별한 인상을 주지 않고는 못 배겼다. 그리하여 서울 학교에 들어온 지 몇 날이 못 돼 벌써 비평이 나기 시작했다. 그가 늙은 교장을 보고도 '아이, 할아버지!'하고, 사감에게는 '어머니!'하고 응석을 부리며 부끄럼 없이 덤비면 선생들은 모두 '이 말괄량이야!'하고, 얌전스럽게 자라난 서울아가씨 학생들은 이것이 미친 사람이나 아닌가 하고 앞뒤로 둘러싸기도 했다(「윤심덕 김우진 정사사건 전말」, 『신민』 1926년 9월호).

그녀에 대한 인상평가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키인데,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그녀의 키가 무려 6척에 달한다고 하였다. 당시 1척은 30.303cm였으므로 6척은 182cm에 달하는 키로, 지금으로서도 엄청나게 큰 키이다. 그러나 실제 사진을 보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걸로 봐서는 당시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체격이 왜소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윤심덕의 큰 키와 체격이 과장되었다. 이렇듯 큰 키에다 행동도 대범하여 왈녀 또는 말괄량이로 평가받은 윤심덕이지만 한편으로는 살림살

이에도 뛰어나면서도 효성스런 면모를 지닌 그녀였다.

1914년 3년의 여고보 생활을 마치고 우등으로 졸업한 윤심덕은 강원도 원주로 교사 발령이 나 교직 생활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 때 나이 18살로 당시 여성들의 평균 결혼연령도 훨씬 지난 나이인데다, 훤칠한 키에 예술적 재능까지 갖춘 그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남성들의 짝사랑 대상이 되었다. 더군다나 존칭을 쓰지 않고 남성 교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자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기생 외에는 자유연애를 걸만한 여성이 흔치 않던 시절이었으니 윤심덕이 스스럼없이 남성을 대하는 태도는 이후 그녀가 끊임없이 염문에 휩싸이는 발단이 되었다.

1년 간의 교사 생활을 마친 윤심덕은 이듬해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성악 공부를 위해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조선총독부에서 일본 유학을 보내주는 관비유학생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것이었다.

방년 십구 세된 평양 여학생으로 금번 동경 사립 청산학원에 입학케 된 윤심덕의 집은 평양부 수옥리 삼백삼십번지요, …… 특수한 총명과 단정한 품행을 모두 칭찬하나 가세가 빈곤함으로 인하여 근 십년간 학업을 계속함에 비상한 곤란을 겪었고 더는 상급 학교에 입학키 어려움을 동정하여 광혜병원 의사 미국 사람 홀 부인은 오년간 수학할 학비를 담당하여 동경으로 보낸다고(「유학 가는 여학생」, 『매일신보』 1915년 4월 27일자).

일본으로 건너간 윤심덕은 우선 아오야마 가쿠인(靑山學院)에 입학해 도쿄음악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교육을 받았다. 3년 동안의 아오야마가쿠인 생활을 착실히 마친 윤심덕은 1918년 드디어 도쿄음악학교 성악과에 입학하였다. 그곳에서 윤심덕은 성악 공부뿐 아니라 연극, 영화, 문학 등 일본과 서양의 각종 예술을 접하면서 예술적 지식과 감성적 발달을 쌓아 갔다. 그럴 즈음에 그녀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김우진과의 만남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이 일제의 잔혹한 탄압으로 인해 실패로 끝난 지 2년 후, 당시 지식인들은 조선의 근대화를 통해 독립할 실력을 키워야한다는 생각 하에 교육문화운동을 활발하게 벌여나가고 있었다. 이 흐름에 일본에 있던 유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활동이 1921년 여름에 있었던 동우회 순례극단 활동이었다. 재일 한국인 노동자와 고학생 단체인 동우회에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자금 마련과 계몽운동을 위해 조선 각 지역을 순례하면서 강연, 연극, 음악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연을 펼치기로 하였다. 총 스물두 명으로 구성된 이 순례극단에 와세다 대학생이었던 김우진이 연극 연출자로, 음악에서는 윤심덕, 홍난파, 피아니스트 한기주 등이 참여하였다. 이 공연을 준비하는 모임에서 윤심덕과 김우진은 처음으로 대면하였지만 활달한 성격의 윤심덕에게는 언제나 조용한 김우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두 달여 동안의 준비를 마친 순례극단은 1921년 7월 5일 부산에 도착하여 여관에 여장을 풀었다. 이 때 윤심덕의 남성에 대한 인식과 그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발단은 그 여관의 방이 넉넉지 않아 여성만을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어쩔 수 없이 윤심덕은 가장 가까운 남성과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그 남성은 흑심을 품고 윤심덕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당황한 윤심덕은 벌떡 일어나 그 남성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나는 네가 그 같은 더러운 남자인줄은 모르고 가깝게 사귀어 왔더니 이것이 무슨 금수의 행동이냐."

갑작스런 윤심덕의 행동에 민망해진 이 남성은 즉시 사과를 하였다.

"다시는 그런 금수 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맘도 먹지 않겠다."

애걸복걸하며 사과하자 윤심덕은 너그럽게 그 남성을 용서하였다.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쾌활하게 웃고 떠들었다.

이러한 소동으로 시작된 순례극단 활동은 가는 지역마다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공연에서는 제일 먼저 윤심덕의 성악 독창으로 분위기를 띄운 후 연극과 강연 순서대로 진행하였다. 이후 이십여 일 동안 14개 도시를 순례하여 7월 26일에 경성에 도착하였다.

동우회에서는 작일 오전 9시 반 남대문 역에 도착하였다. …… 씩씩한 학교 정복을 입은 일행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리어 심각한 인상을 받게 하였으며 그 중에 독창으로 갈채를 받은 윤심덕양은 선명한 조선 의복을 입고 플랫폼으로 왕래하여 일행의 누구보다도 외지에서 고국에 돌아온 사람인 듯한 처음 인상을 주었다(「일본에 있는 조선 노동자로 조직된 동우극단 래(來)」, 『동아일보』 1921년 7월 27일자).

이미 지방에서의 성악 공연을 통해 이름이 경성까지 알려졌던 윤심덕은 역에 내리자마자 단번에 주목을 받았다. 여성 성악가가 한 명도 없었던 조선 사회는 처음으로 들어보는 성악에 크나큰 관심을 보였으며 아직 학생에 불과하였지만 이때부터 성악가 윤심덕의 이름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두 달여 동안 김우진과 동거동락하면서 서로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알게 된 그들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그저 친구에 지나지 않았으며,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그로부터 몇 개월 뒤였다.

사랑에 빠지다

김우진은 1897년 9월 아버지 김성규가 군수로 재직 중이던 전라도 장성에서 태어났다. 그 뒤로 아홉 명의 동생들이 태어났으나, 장남인 김우진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와 사랑은 남달랐다. 아버지의 그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엄격한 유교 교육은 훗날 김우진을 고통과 갈등에 빠트려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아버지의 성격은 강직하고 비타협적이었는데, 본처인 김우진의 어머니가 죽자 당시 대다수 양반들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 명의 첩을 두었다. 엄격하면서 유교적인 부친과 여러 계모를 둔 복잡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김우진은 자라면서 내성적이며 고독한 성격으로 변해갔다.

장성에서 목포로 이사한 것은 김우진이 11살 되던 해로, 유달산 동쪽 자락의 가난한 마을에 아흔아홉간 짜리 기와집을 지어 이사하였다. 이때 접한 식민지의 가난한 풍경은 그에게 가난한 민중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지니게 해주었다. 그가 남긴 희곡작품 중 「이영녀」는 유달산 밑 창기들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것이었으며, 유학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목포 부두노동자 파업 때 몇 달 동안 그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해 준 것도 이때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다.

김우진은 목포공립보통학교 시절부터 외국 문학에 심취했으며, 17살에 '공상문학'이라는 단편소설을 쓸 정도로 문학에 재질을 보였다. 특히 그는 시인을 되기를 희망하여 이때부터 많은 시를 썼다.

그러나 장남으로서 집안의 토지와 재산관리를 위해 농업을 공부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1915년 9월 일본 구마모토현립농업학교에 입학하였다. 유학을 간 이듬해에는 다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유학자 정운남의 딸인 정점효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였다.

……
너와 나
같은 숱한 마음으로
천년 만년 축수(祝壽)하나
너와 나의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첫날밤
이 같은 등불
아무리 있을지나
이 내 마음의 눈
밤같이 어둡다.
너의 부끄러움
나 아니 가졌으되
내 마음 속
상구(常久)히 어둡다.

결혼하고 나서 쓴 「첫날밤」이라는 이 시에서 김우진은 아내와의 지적, 감성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불가능과 그로 인한 우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꿈과는 상관없는 농업 공부, 거기에다 사랑하지도 않는 여성과의 결혼까지 모든 것이 고역이었지만 아직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만큼 용기가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엄격한 아버지와의 갈등은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갈등은 그가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문학공부를 위해 와세다 대학 영문과에 진학하면서 본격화하였다. 1919년 와세다 대학에 진학한 김우진은 당시 일본 유학생들 중심으로 일고 있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좌절감을 겪기도 하였다. 이 좌절감은 새로운 사상에 대한 탐닉으로 이어져 그 후 본격적으로 니체와 마르크스의 사상을 공부하면서 서구 사상과 문학을 접하였다. 그의 서구 사상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질수록 유교사상을 지닌 아버지와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나는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나의 자아의 발전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특히 필요한 것은 부자지간의 정애(情愛) – 나의 센티멘트(sentiment)의 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너는 졸업 후 동양 4천 년 역사와 동양 종교 그리고 가학(家學)을 다시 취하여 네가 배운 바와 서로 절충하여 자각하고 자립한다면 나는 눈을 감고 죽을 수 있으리라.' 이 애처러운 구절! 아버지의 이 뜻을 받들자면 새로운 공기의 아들인 나는 질식할 수밖엔 없다(1922년 12월 5일자 김우진의 일기 중).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아버지, 그에 대한 거부와 자립에 대한 갈망 등을 고민하였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지는 않았다. 그렇게 고민과 갈등을 겪는 와중에 김우진은 고토 후미코(後藤文子)라는 일본인 간호사를 만나 연애에 빠졌다. 가정 내 불화와 갈등, 시대적 고뇌로 인한 우울함과 외로움에 젖어있던 김우진은 곧 이 여성과 열정적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김우진의 첫사랑은 후미코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막을 내렸다. 그럴 즈음 동우회 순례극단에서의 윤심덕과의 만남은 그에게 적잖은 위로가 되었다. 동우회 활동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와 적은 일기에서 처음으로 김우진은 윤심덕으로 인한 갈등을 나타냈다.

이 악마의 포위 속에서 한시라도 마음의 안일을 준 것은 그녀였다. 아아, 나는 자기 위자(慰藉), 자기 충만을 위해서만 사랑을 하는 자인가? 그리고 이 자기 위자와 자기 만족을 충족시킨 뒤에는 다시 그녀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나의 변덕스러운 마음에 전변(轉變)이 왔을 때 나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과연 그것은 옳은 일이었는가(1921년 11월 26일자 김우진의 일기 중).

하지만 갈등은 오래 가지 않았다. 윤심덕이 적극적으로 김우진에게 구애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김우진의 하숙집을 자주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였으며, 문학과 음악과 식민지 조국에 대한 서로의 지식과 사상 등을 교유하며 서로에 대한 연정을 쌓아나갔다. 이때부터 이들은 외롭고 상처받

은 영혼의 동반자, 예술가로서의 동반자가 되었다.

윤심덕이 그렇게 연애와 성악에 열중하던 중 어느덧 졸업할 때가 다가왔다. 1915년 꿈에도 그리던 음악 유학길에 오른 지 7년 만인 1922년 여름이었다. 그녀는 졸업발표회와 함께 축하 공연으로 펼쳐질 연극에도 참여하였다. 연극 작품은 당시 유명한 노르웨이 극작가인 입센의 「인형의 집」이었는데, 그 연극에서 그녀는 주인공인 노라 역을 맡아 열연하였다. 그녀는 연기자로서도 뛰어난 소질을 보여주었는데, 졸업공연을 지켜 본 도쿄제국극장 지배인이 윤심덕에게 월급 150원에 제국극장 여배우로 활동할 것을 제안할 정도였다.

그러나 성악의 불모지인 조국에 돌아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생각에 부풀어 있던 그녀에게 당시 천대받던 연극배우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었다. 제국극장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그녀는 졸업 후에도 1년 더 학교에 남아 성악공부를 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때의 연극배우 활동은 연극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김우진에게 윤심덕의 새로운 모습을 각인시키게 되었으며, 훗날 김우진이 윤심덕에게 연극 활동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고향 평양으로 돌아온 윤심덕에게 김우진으로부터 초청장이 날아왔다. 동생들과 함께 목포로 와서 가족음악회를 열어달라며 기차표까지 동봉하였다. 당시 윤심덕의 바로 밑 여동생 윤성덕은 이화학당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으며, 남동생 윤기성은 연희전문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김우진이 동생들까지 한꺼번에 초대해 연주회를 열어달라고 한 것이었다.

기꺼이 초대에 응한 윤심덕은 목포에서 김우진의 부인과 딸, 부모님, 동생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김우진의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확인하고는 도쿄에서의 김우진의 검소한 삶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됨에 대해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비록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인지라 둘 만의 시간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음악회를 계기로 둘의 사이는 더욱더 가까워졌다.

조선의 일류 성악가가 되다

도쿄음악학교에서 1년 더 공부한 뒤 윤심덕은 1923년 5월 초에 고국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아직 서양음악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윤심덕이 활동할 만한 공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우선 모교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시간 강사로 출강을 하면서 공연 기회를 모색하였다. 그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6월 26일에 열리는 동아부인상회 창립 3주년 기념음악회에 초청 가수로 서게 된 것이다. 첫 번째 데뷔를 성공리에 마친 그녀는 당시 유일한 소프라노 가수였던 임배세를 제치고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

이후부터는 경성 시내 어느 음악회든 윤심덕의 솔로 독창이 빠진 적이 없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무대에 섰으며, 어떤 달은 서너 번 공연을 가진 적도 있었다. '옥쟁반에 구르는 구슬소리'와 같은 그녀

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그녀의 대중적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이크 나온다.'
'거– 활발한데.'
'키가 후리후리하고.'
'그럴 듯한데.'
'여간 잘하지 않는다네.'
'정말 조선 제일이겠는데.'
'참말 조선 제일이라네.'
'성대가 어떻게 그렇게 좋아.'
성대도 크거니와 그 몸짓 봐.'
'참말 처음인 걸. 그 몸맵시는 묘한데.'
'에라, 그것 우리 재청(再請)하세.'
(「성악가 윤심덕씨」, 『신여성』 1923년 11월호)

그러나 모두가 그를 칭찬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화가로 이름이 높았던 신여성 나혜석은 윤심덕의 성악 솜씨를 매정하게 깎아 내리며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듣기에 하도 유명한 성악가 윤심덕씨이기에 마침 기회가 있어 들으러 간 것이다. 음량은 충분하나 소프라노 음이 아니오, 알토 음이였다. 다른 때 독창한 것도 그러한지 모르지만 이 날 두 가지 독창한 것은 음악이란 것보다 창가(唱歌)였다. 없는 표정을 일부러 내는 것은 비열한 편이 많았다. 그러고 호의로 보면 활발하다고 할는지 너무 껍적대는 것 같았다. 좀 자연한 태도를 갈도록 수양하는 것이 어떠할는지(「윤심덕 음악회를 보고」, 『개벽』 1924년 7월호)!

마치 싸움을 거는 듯, 수양이나 더 하라고 비아냥대는 것은 비단 나혜석뿐이 아니었다. 특히 그녀의 표정과 태도에 관한 비평이 많았는데 이는 그녀의 실력을 펼칠 만한 토대가 아직 조선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대로 공연을 할 만한 음악당 하나 없는 조선에서는 오페라 등 대형무대에 걸맞은 그녀의 체격과 목소리를 진정으로 펼칠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음악회 출연료라고는 겨우 차비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은 날로 궁핍함을 더해 갔다. 설상가상으로 1924년 초에 평양에 살던 그녀의 부모까지 경성으로 이사를 와 그녀에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요구하였다. 책임감이 강하고 효심과 형제애가 남달랐던 윤심덕은 음악 레슨 등으로 생계를 뒷받침하였으나 가난을 면치 못하였다.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성악의 불모지인 조선에 진정한 성악을 펼쳐 보이겠다는 야망은 점차 사그라져 가고 있었다. 그래서 선택한 다른 길이 대중가수였다. 윤심덕은 생계를 위해 경성방송국에 나가서 사회를 보면서 경음악도 부르고, 시도 낭송하는 등 방송인 및 대중가수로 활동하였다. 이에 대해 김우진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으나 가난에 몰린 윤심덕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방송국에서 활동한 덕분에 전국적 대중가수로 인기가 올라가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에게 레코드 회사의 음반 취입 요청이 많아졌다.

윤심덕이 성악가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즈음, 연인이자 정신적 동반자였던 김우진은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였으나 아버지의 엄명으로 재산관리를 맡아 목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애당초 김우진은 도쿄 유학 때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홍해성과 함께 귀국하면 10만 원의 돈을 모아 경성에 연극전문 극장을 짓고 신극운동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런 그의 목표는 가업을 보살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좌절되기에 이르렀다. 스스로 자기 집을 'In the prison of home'라고 표현할 정도로 답답하고 우울한 생활의 계속이었다.

식민지봉건사회인 조선에서 각각 성악과 연극을 통해 새로운 예술의 길을 개척하고자 했던 윤심덕과 김우진은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였다. 둘의 유일한 즐거움은 윤심덕이 김우진을 만나러 가끔 목포로 내려올 때뿐이었다. 현실에서의 실패와 절망을 서로에게 의지하며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예리하고 명쾌한 김우진은 감성적인 윤심덕을 위로하며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김우진은 당시 윤심덕의 상황과 심경을 일기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자기를 기만하는 자! 그이는 – 가는 잎의 수선(水仙), 보랏빛의 작은 화훼의 꽃, 연하고도 빳빳한 석포의(石布衣)의 섬세하고도 미련한 꽃이 늘어져 피는 들판에서 그의 피로된 마음과 육체를 쉬어야 한다. 그러나 상극의 양 요소를 가진 그이의 성격의 한쪽의 추구는 험하고 깊은 심산유곡을 찾아간다. 황파(荒波)와 노도(怒濤)로 천지를 진동시키는 넓은 바다를 가고자 한다. 다만 그이의 운명은 그 중환자의 치명적 운명이다. 그러자면 의지 있는 진리의 광산 그것이다(1924년 11월 22일자 김우진의 일기 중).

이렇게 거대한 현실의 벽을 둘만의 사랑과 격려와 희망을 통해 견뎌나가던 그들을, 운명은 내버려두지 않았다. 유부남 김우진과 연인관계임을 알아챈 윤심덕의 집안에서 먼저 결사반대 나섰다.

윤심덕, 스캔들에 휩싸이다

윤심덕은 도쿄 유학 당시부터 수많은 남성들과 스캔들에 휩싸이며 화제를 몰고 다녔다. 이를 두고 '침을 줄줄 흘리고 따라다니는 청년 신사들의 수를 셀 수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홍난파, 채동선을 비롯하여 우모, 김모 등이 그 스캔들의 파트너였으며, 박정식이라는 청년은 윤심덕에 대한 외사랑이 지나쳐 끝내 상사병으로 죽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캔들은 헛소문으로 당시에는 보

기 드문 신여성이었던 그녀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과 사랑이 낳은 것들이었다. 끊임없이 쫓아다니던 스캔들은 그녀가 스타 가수가 된 후에는 그 규모와 파장에서 유학 당시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1924년, 윤심덕의 나이 28살이 되었다.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이 15살이었던 당시로서는 완전 노처녀였다. 더군다나 김우진과의 관계를 알게 된 부모는 매일 같이 결혼을 재촉하였다. 그녀로서도 고민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다. 김우진은 처자식 있는 유부남이고, 생활은 어렵고, 더군다나 성악가의 길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결혼 강요를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부모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성이 재력도 있고 집안도 좋은 함경남도 출신의 김홍기였다. 대중 스타인 윤심덕의 연애 소식은 금세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성악가 윤심덕씨가 나타나는 곳마다 그림자같이 떨어지는 법 없이 동행하는 청년 한분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청년인즉 윤심덕씨와 약혼하였다는 메이지대학 출신 김홍기씨랍니다. 그런데 윤씨 편으로 들으면 아직 약혼은 아니하였다하고 김씨에게 약혼했다는 것이 허설(虛說)이냐고 물으면 '허설은 아니지요.'라고(「색상자」, 『신여성』 1924년 11월호).

그녀는 이러한 전후사정을 김우진에게 알렸다. 처음에 김우진은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으나 구체적으로 결혼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당황해하며 경성으로 달려와 사실여부와 윤심덕의 심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직 김우진 외에 다른 남성을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던 윤심덕은 김우진의 적극적 행동을 통해 그의 사랑을 확인한 후 김홍기와의 혼담은 없던 일로 하였다.

1개월 후, 이번에는 윤심덕이 갑부 이용문의 첩이 되었다는 악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윤심덕 씨는 요새 자주 보이지 않더니 알고 보니까 젊은 오입쟁이로 유명한 이용문의 셋째인가 넷째인가의 마마님이 되어 들어가서 재미있는 성악을 많이 연주하였다나요(「색상자」, 『신여성』 1925년 2월호).

하여간 윤 씨는 다른 예술가와 같이 역시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 말하더니 금전에는 참 처첩(妻妾)의 구별이 없는 모양이다. 예술가(藝術家)인지 예술가(穢術嫁, 인용자 : 더러운 술책을 사용하여 시집가다)인지(「유언비어」, 『개벽』 1925년 2월호).

당대의 대표적인 잡지, 『신여성』과 『개벽』은 사실 확인조차 않고 악소문을 확대재생산하기에 바빴다. 물론 당시는 현재처럼 '사실'에 근거한 보도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었다지만, 윤심덕, 나혜석, 김명순 등 대표적 신여성들은 남성들과의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언제나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막내 동생이 미국 유학 장학생으로 뽑혀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미국까

지의 여비가 없어 유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윤심덕이 그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용문의 집에 몇 번 찾아갔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일이 와전되어 이제는 '성악을 이용문 앞에서만 공연'한다느니, '예술가인 척하는 더러운 계집'이라느니 하는 비아냥과 지탄을 듣게 되었다.

이용문과의 스캔들은 윤심덕과 김우진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소문을 들은 김우진은 경성으로 와 윤심덕을 따뜻이 위로하며 당분간 경성을 떠나 있으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녀는 고민 끝에 어릴 적 정신적 지주였던 배형식 목사를 찾아 하얼빈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1925년 12월 23일, 성악가로서의 꿈은 사라지고 이제는 스캔들에 휩싸인 비운의 여성이 된 윤심덕은 절망과 비탄에 잠겨 하얼빈행 기차에 올랐다. 그녀가 하얼빈으로 떠나자, 세간에서는 '벌써 이용문과 이혼한거냐.', '하얼빈에 있는 진짜 애인을 찾아갔다.', '이용문이 좋아하는 아편을 구하기 위해 갔다.'느니 하는 악소문이 또 퍼졌다. 한번 터진 악소문은 그칠 줄을 몰랐던 것이다.

한편 하얼빈에 도착한 윤심덕은 고국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배목사의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지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경성으로부터 출가한 언니 윤심성의 남편이 사망하였으니 즉시 귀향하라는 내용의 전보가 왔다. 전보를 본 그녀는 하얼빈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경성으로 돌아왔다.

성악가 윤심덕, 연극배우가 되다

경성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곧바로 안동으로 가 미망인이 된 언니를 위로하며 재산을 정리한 후 다시 언니와 함께 경성으로 돌아왔다. 그 후 그녀는 그해 말까지 서너 차례의 음악회에 출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간혹 김우진과 만나 장래의 계획을 논의하곤 하였는데, 그러던 중 김우진은 그녀에게 연극배우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다.

"나는 각본을 쓰고, 그대는 배우를 하면서 조선 연극을 발전시켜 봅시다."

여전히 여성 연극배우는 기생 등의 계층에서나 하는 천한 일로 여기던 사회 분위기가 부담스러운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재능을 더는 펼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고민 끝에 그녀는 연극배우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부모는 물론 언니까지 나서서 반대하였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부모 몰래 당대의 대표적 연극단체 토월회에 가입한 그녀는 부모의 반대가 계속되자 가출을 감행하였다. 가출 후 황금정(현 을지로) 삼정목에 있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잠자리를 해결하면서 연극 연습에 주력하였다. 한편 성악가 윤심덕이 연극배우로 전향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하였다. 이때 윤심덕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금번 내 생활의 전환은 새삼스럽게 지은 것도 아니요, 우연히 맺어진 것도 아닙니다. 일찍부터 생각하여 오던 바가 금번에 실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해 많던 과거의 내 생활을 변명하기 위해서 나선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 더구나 여자 배우라 하는 것은 부랑무식한 타락자가 아니면 차마 못할 것으로 알아온 이상 나의 이번 나선 길을 최후의 말로라고까지 할 줄 압니다. 물론 그러한 각오까지 가지고 나서게 되기는 오로지 힘을 다하여 새로 지으라는 조선 예술의 전당에 한 모퉁이의 무엇이라도 되려는 당돌한 발걸음이 이에 이르게 된 것뿐입니다. 금후의 나가는 앞길의 험로가 나로 하여금 어떠한 피로를 주고 어떠한 권태의 기분을 던져 줄지는 아직 아득한 바입니다(「석일은 악계 명성 윤심덕양의 행로」, 『동아일보』 1926년 2월 6일자).

그로부터 이틀 후 윤심덕은 미국 영화 「동쪽 길(東道)」을 이경손이 번안한 「동도」라는 연극의 여주인공인 '연실'역을 맡아 연극 무대에 서게 된다. 그러나 생애 처음 출연한 상업 연극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토월회에서 윤심덕이 지닌 대중성과 인기를 활용한 상업적 성공만을 노려 별다른 연습도 없이 영화대본을 급조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기 때문이었다. 비록 언론의 대서특필과 대대적인 광고로 객석은 만원을 이루었으나 지나치게 긴장한 윤심덕의 딱딱한 연기와 서투른 말씨, 조그만 무대에 어울리지 않는 큰 키 등으로 인해 관객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연극이 실패하자 윤심덕은 토월회 전무였던 김을한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아마 연극에 소질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성악가로서는 설 자리가 없었고, 그토록 소원하던 이태리 유학은 돈 때문에 꿈도 꾸질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토월회에서는 다음 작품으로 그녀가 성악가로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오페라 「카르멘」을 공연하기로 결정하였다. 카르멘 역을 맡은 윤심덕의 연기만은 여전히 서툴렀으나 그녀의 노래만은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윤심덕이라는 스타에만 기댄 변질된 오페라는 실패하고 말았다. 상업적 성공만을 노린 연극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토월회에서는 내분이 일어났다. 토월회의 상업 연극 활동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토월회를 탈퇴하여 새로운 연극단체인 백조회를 결성하였는데 윤심덕은 김우진과 논의한 끝에 이 백조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백조회에서의 활동은 얼마 못 가 중단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극배우로서의 실패와 거기에 따른 세간의 혹평과 비난은 그녀에게 대단한 절망감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당시 이화여전 교수였던 동생 윤성덕은 며칠씩 끼니를 거른 채 울면서 언니를 비난하기도 하였으니 마지막 보루였던 가족에게 마저도 이해와 위로를 받지 못한 그녀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부터 그녀는 차츰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으며 가끔 주위 사람들에게 불길한 말을 하곤 하였다.

"세상에 나같이 불행한 여자는 없을 거야. 지금 내가 내 처지를 돌아보고 나를 응시할 때에는 사실 기가 막혀. 나는 나를 너무 잘 아는 것이 걱정이야."

"나는 찰나에 살지요. 다시 말하면 나는 찰나미(刹那美)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찰나미를 얻을 수 없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에요. 난 사십이 넘도록까지는 살아있지 않을 작정이에요."

윤심덕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과 절망을 자주 김우진에게 토로하였다. 연극배우의 길을 권했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김우진 또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벗어날 길이 없는 자신의 상황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대의 편지를 보고
왜 이리 울어지는지
난들 어찌할 수 있으랴
나 혼자 나 혼자
그대의 새 생활을 빌면서
먼저 가서 기다리겠노라
(김우진이 남긴 시 중에서)

현해탄에 뛰어 들다

윤심덕이 겪은 좌절과 절망은 김우진에게 그대로 투영되었다. 그녀가 투영한 좌절과 절망이 아니더라도 김우진의 상황은 그 자체로 암울하였다. 낮에는 집안의 농지와 재산관리를 위해 설립한 기업의 사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술과 독서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다고 마냥 좌절해 있지는 않았다. 가끔 희곡과 평론을 창작, 발표하는 한편 목포 지역 문인들과 뜻을 모아 '5월회'를 결성해 동인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26년 5월부터 김우진은 본격적인 집필 활동으로 문단에서 평판을 높이게 된다. 이광수의 계몽주의를 비판한 평론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를 『조선지광』에 발표한 후 자살하기 직전까지 4편의 글을 발표하고, 희곡 「난파」와 「산돼지」를 탈고한다. 김기진은 이광수를 비판한 김우진의 평론에 대해 '그의 필봉(筆鋒)은 준열하고 그의 고증은 해박하였다.'고 평가하면서 희곡가나 시인보다는 비평가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김우진의 비평은 높이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의 꿈에 대한 열망을 부추겼으며 부친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결국 그는 출가를 결심하였다. 잠시 요양이나 하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떠났는데, 떠날 때는 뒤늦게 태어난 어린 아들을 안고서 오랫동안 서러워하였다.

집을 나온 김우진은 1926년 5월 말 경성으로 가 친구 조명희를 만나 같이 여관에 투숙하였다. 조명희에게는 출가하였음과 장차 러시아 같은 나라로 갈 계획이며 먼저 도쿄로 가 준비를 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으로는 쿄토에 있는 동생 김철진에게 편지를 보내 출가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것은 내 출가의 통지이니 만날 때(When?)까지의 최초 최후의 것으로 쓴다. …… 나는 일개의 부르주아 출신의 프롤레타리아가 되어서 어디, 어느 땅이든지 가는 대로 가보겠다. …… 이것은 영구한 출가. 예전의 모든

관계 – 혈연과 지위 –를 전혀 끊었다. 너희들도 이 점을 각오하지 않는 동안, 나는 영구히 너희들을 안보겠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편지를 부치고 나서는 곧이어 6월 중순경 도쿄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홍해성의 집에 머무르면서 「출가」라는 작품을 완성하고, 6월 24일에는 아내에게 남기는 '유서'를 작성하였다.

진길 모(母) 보시오.

나는 먼저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겠소.

집을 떠나올 때에 아무 말 없이 온 것을 용서해 주시오. 여러 말로 기록치 아니합니다. 다만 원하기는 몸 튼튼하여 진길, 방한이를 위하여 좋은 어머니가 되어 주시오. 당신과 같이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안하게 한 일을 조금도 생각지 말고 잊어 주시기를 빕니다.

6월 24일 우진

그의 어머니 박 씨는 그가 여섯 살 때 돌아가셨으니, 어머니 계신 곳이란 바로 저승을 가리킨다. 그의 출가란 사실상 자살행이었던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윤심덕과의 동반자살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김우진의 행방을 몰라 애태우던 윤심덕은 김우진이 도쿄로 떠난 지 며칠 뒤에 조명희를 협박해 그가 출가하였다는 것과 도쿄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김우진을 뒤쫓아 일본으로 갈 결심을 하고 오사카에 있는 닛토(日東)축음기회사와 레코드 녹음계약을 맺었다. 때마침 동생 윤성덕도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 일본으로 가야했기에 피아노 반주는 동생이 맡기로 하였다.

1926년 7월 17일 윤심덕과 윤성덕은 경성을 출발하였다. 배웅을 위해 역까지 나온 닛토축음기 문예부장 이서구와 윤심덕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농담을 주고받았다.

"선물 사다 드릴까요?"

"고급 넥타이나 사다 줘."

"죽어도 사와요?"

"그래 죽으려거든 넥타이나 사서 부치고 죽어."

친우들의 환송 속에서 경성을 출발한 윤심덕 일행은 7월 20일에 오사카에 도착하였다. 다음날부터 동생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순조롭게 녹음이 진행되어 며칠 만에 녹음을 마쳤다. 윤심덕은 녹음이 끝나자 김우진의 도쿄 주소로 전보를 보냈다.

당장 오지 않으면 자살하겠습니다.

윤심덕이 일본에 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김우진은 전보를 받고 깜짝 놀라 곧바로 도쿄 역으로 향했다. 도쿄 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그는 친구 홍해성에게 '자기가 가서 말리지 못할 때는 연락할 테니 오사카로 와 달라.'는 등의 말을 남겼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동반자살을 결심하게 된다. 자살하기 전 각각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로 하고, 김우진은 자신의 마지막 희곡이 될 「산돼지」의 탈고에 집중하였고, 윤심덕은 마지막 노래인 「사의 찬미」를 추가로 녹음하기로 결심하고 직접 가사를 작성하였다.

8월 1일, 김우진은 탈고한 「산돼지」의 원고를 편지와 함께 경성에 있던 조명희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에서 원고료를 도쿄의 홍해성에게 보내 줄 것을 부탁하며, 그 까닭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윤심덕은 닛토축음기회사의 녹음실에서 동생의 반주에 맞춰 사의 찬미를 녹음하였다.

1일 오전 10시경에 닛토축음기회사에서 윤성덕 양의 피아노 반주로 조선 노래인 '죽음의 찬미'를 마음을 다하여 불렀는데 노래는 높고도 낮으며 또한 적막한 맛이 있어 듣는 사람의 간장을 녹일 듯 하였다는바 이때에 현장에서 피아노를 뜯던 성덕양은 눈물까지 지웠다고 한다. 따라서 닛토 회사의 타우치(田內)씨는 그 노래가 너무 감상적이오, 또한 '센치멘탈'하기 때문에 주의를 시키매 "나는 죽음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고 웃어버렸다한다.(「윤양 최후의 창곡은 단장 애조 '사의 찬미'」, 『조선일보』 1926년 8월 6일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정리한 그들은 윤성덕이 일본을 떠나는 것을 배웅하지도 않고 8월 3일 밤, 부산행 연락선에 승선하였다. 그리고는 8월 4일 새벽 배가 대마도 근해를 지나갈 무렵, 이승에서의 모든 비애와 시련을 뒤로 하고 현해탄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들이 죽자, 김우진의 집에서는 시체를 찾기 위해 현상금 5백 원까지 걸었으나, 시체는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동생 김철진은 조선일보 기자에게 신문에 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일 내로 김우진이 남긴 유고와 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유고와 유서는 1983년이나 되어서야 공개되었다. 김우진의 아들인 김방한 교수가 연극평론가 유민영 교수에게 전달함으로써 세상에 공개되어, 그들의 죽음의 실체를 알리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시체도 발견되지 않고 그들이 연인 관계였다는 증거조차 명확치 않아, 정사가 아니라는 등, 둘이 죽었다는 연극을 하고는 이태리로 가서 살고 있다는 등, 윤심덕이 낳은 아이가 있다는 등 각종 소문이 난무하였다.

한편 사의 찬미가 들어있는 음반은 8월 29일에 조선축음기상회에서 최초로 개봉되었다. 조선일보 기자는 '전례 없는 형세로 세상에 퍼질 것'을 예상하였는데, 예상대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판매량인 10만 장이 팔려나가 최초의 베스트셀러 가수로 윤심덕의 이름을 남겼다. 비극적 정사에 가려져 있던 희곡가이자 비평가로서의 김우진에 대한 평가도 최근에야 활발히 이루어져 유민영 교수는 김우진

에 대해 '한국연극사상 최초로 근대극다운 희곡을 쓴 극작가이자 구미근대극운동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연극이론가'로 평가하였다.

윤심덕이 죽기 직전 남긴 『사의 찬미』로 인해 한국사 최대의 정사 사건으로 세인들의 기억에 남은 이 사건은 근대 조선에서 예술가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시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또한 기생과 같은 화류계 여성이 아닌 신여성이 새로운 연애의 주역으로서 등장하였음을 본격적으로 알린 사건이었다.

‘종달새 노래할 때’에서 ‘항아리와 여인’까지

김환기의 삶과 여인

문 정 희 (한국미술연구소)

〈종달새 노래할 때〉에서 〈항아리와 여인〉까지 – 김환기의 삶과 여인

문 정 희 (한국미술연구소)

들어가며

김환기의 〈항아리와 여인〉[1]은 그의 195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일지 모르겠다. 이 작품은 그가 일본 유학기 추상예술 활동의 연장으로 보기 어려운, 오히려 초현실주의의 주제를 낭만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 그림의 연원으로서 1935년 이과회에 출품한 〈종달새 노래할 때〉는 추상예술의 초기 단계이자, 훗날 그의 東方적인 모티프가 민족적인 상징의 통로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두 작품은 거의 15여년의 시간적 거리 속에서 그의 작품 양식의 형성과 주제 접근의 조형의식의 프로세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추상화가로 대표되는 김환기의 작품에서 1950년대 화풍은 1963년 뉴욕에 정착하여 순수추상을 보여준 시기와 달리 구상적 모티프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작품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적 정서, 혹은 한국적 정체성, 동양적 시정신 등과 같은 말로서 각 연구자들에 의해 구사되어 왔다. 이는 구상과 추상의 구분이라는 점에서 너무 획일적이고 단면적인 서술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구별 상 가장 보편적 인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이미 주지하다시피 일본 유학시절 추상적 실험을 거친 후 보여준 작품 세계라는 점에서 추상의 과도기 혹은 필연적 과정이라고 보이에는 어딘가 작품 양식의 형성과정에서 그리 순차적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금까지 김환기의 1950년대 작품세계를 한국적 모티프로 파악되어 이를 중심으로 연구된 성과들은 한국 근대화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그의 서정적 측면에서 드러나는 도자기라는 형상에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높여준 연구들은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1950년대의 김환기를 돌이켜 본다면, 일본을 유학하고 귀국 후 한국전쟁을 맞아 서울과 부산을 오갔던 세변을 겪었다는 신변의 변화보다도 구체적인 조형적 실험과 완성 속에서 과연 얼마나 새로운 창작의 입지를 보였는지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모티프의 설정과 추상에서 구상으로 바뀌게 된 배경, 혹 그 기본적인 개념 등을 고려하여 김환기의 일본 시기의 화단과 그 활동을 고찰하여 1970년대 순수 추상으로 회귀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던 과정의 한 시기를 추적해 보고자한다.

---

1) 이 작품의 전쟁 상황의 제작배경과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とも子,「金煥基作 'つぼと女たち'と朝鮮戰爭」, 九州藝術學會,『デ　アルテ』23(2007)가 있다.

1935년의 〈종달새 노래할 때〉

김환기가 일본대학 예술학원 미술과에 입학한 1933년부터 自由美術家協會에 출품하며 일본과 지속적인 전시의 연계가 있었던 1940년까지 일본화단의 추상주의 화단의 모습은 사뭇 새로운 시대정신의 표현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이쇼(大正) 시기의 신흥미술의 발흥에서 쇼와(昭和)기의 추상회화의 전개는 1935년 제전의 개조에서 화단의 혼란이 야기되면서 변화된 듯하다. 이듬해 신문전의 부활은 기성화단의 변화 없는 시스템의 안착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무렵 재야화단은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의 발표의 새로운 공간으로 긴좌(銀座)를 중심으로 한 화랑 특히 기노쿠니야(紀伊國屋)와 같은 화랑에서 개인전 혹은 단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환기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해는 二科展과 白蠻會 등에 출품하며 바쁜 한 해를 보낸 것만 보아도, 동시기 일본 화단의 변화와 밀접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일본 동경에서 전위미술단체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일본화단의 변화 양상을 그대로 알 수 있다. 1930년 독립미술협회와 NOVA미술협회가 결성되고, 이후 1934년 독립미술협회 화가들의 신조형미술협회, 제국미술학교 학생들에 의한 JAN(Jeunes Artistes Nouveaux), 1935년 마니마(L'anima), 1936년 표현(L'expression), 동경미술학교의 레 리라(Les Lilas), 1937년 데 자미(Des Arnis) 등이 결성되었다 해산되기도 했다.[2] 이와 아울러 추상회화 단체들로 이합집산의 양상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1934년 하세가와 사부로(長谷川三郎), 무라이 마사나리(村井正誠), 야마구치 가오루(山口薰) 등의 新時代洋畵會, 사이토 죠조(齋藤長三) 등이 참가한 飾繪, 1935년 오노사토 도시노부(小野里利信)와 야마모토 게이스케(山本敬輔) 등이 결성한 黑色洋畵會가 있고, 1936년 김환기와 간노 유이코(菅野由爲子) 등이 결성한 백만회, 아방가르드예술클럽, 신시대양화회의 멤버 들이 결성한 자유미술가협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 후로도 1937년 NBG양화회, 1938년 흑색양화회가 해산되고 絕對象派協會, 九室會가 결성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재야화단의 단체 결성과 전람회는 당시 동경을 중심으로 조선, 대만, 중국에서 유학 온 미술학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의 무대였으며, 또한 동경, 서울, 상해를 연결할 수 있는 망을 형성하기되 했다. 이러한 현상은 김환기를 비롯한 동시기 문학수, 이중섭, 유영국 등도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참가했던 점에서 주목되며, 중국인 유학생이 결성한 중화독립미술협회와 리중셩(李仲生, 1912-1984) 등은 김환기와 같은 일본대학 미술학부에 재학 중에 있었다. 특히 리중셩은 김환기와 같이 아방가르드양화연구소에 함께 입소한 연구생이기도 했다.

1930년대 일본의 동경화단에서 관전에 대항한 재야미술단체 속에서 이과회와 독립미술협회는 일본 내의 젊은 청년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이 되어 미술계의 동향에 반응하며 단체들의 결성이 잇달았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은 신흥미술의 새로운 도약으로 발전하여 일본 모더니즘의 또 다

---

2) 吳孟晋, 「中華獨立美術協會 と1930年代の東京-NOVA美術協會展出品作をめぐって」, 京都國立博物館, 『學叢』(2010.3), p.19.

른 지평을 넓혀주었다. 특히 이 들 화회의 단체적인 면모는 구상과 추상이라는 신시대의 과제로서 일본의 초현실주의 열렬한 흡입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환기가 이과회에 입선한 〈종달새가 노래할 때〉는 추상회화의 초기 단계로서 당시의 일본 화단에서 유행했던 쇼와기 초현실주의 화풍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1933년 김환기가 일본대학에 입학하고, 그 이듬해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3]에 연구생으로 입소하게 되는데, 이 연구소는 유럽에서 일어났던 전위미술을 표방하여 1933년 9월 도고 세이지(東鄕靑兒)를 중심으로 개설한 것이다. 당시 이들은 이과회를 중심으로 초현실주의 화풍의 선구적인 인물들로서 일본의 초기 추상의 선구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의 연구생으로 입소한 김환기 역시 이들 발기인들의 지도나 그 밖의 개인적인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되는데, 미래파의 초현실주의와 큐비즘의 추상회화를 접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종달새가 노래할 때〉의 양식에 있어서 화면의 처리, 제재의 취급 등은 1920년대 후기부터 일본에 소개되고 수용된 초현실주의 경향의 정신적 테마가 지배적인 듯하다. 김환기가 이 작품을 회고한 글을 보면, "구름, 버드나무, 새알들이 보이는 지극히 낭만적인 풍토"와 "종달새 노래하기 시작하는 봄이면 살았나 죽었나 한계를 모를 정도로, ……내 고향이었다"[4]고 기억할 정도로 현실과 떨어진 과거의 憧憬이라는 향수가 모태회귀를 바라는 듯한 주제를 드러낸다. 이는 일본의 1930년대 초현실주의가 달리(Salvador Dali)의 영향으로 간주되는 지평선의 꿈이며 이상향으로서 과거/자연의 낙원이라는 지적처럼 화가의 무의식 세계 혹은 마음 속의 이상향을 향한 주관적 세계이기도 한다. 김환기 역시 이 작품을 통해 화면의 멀리 보이는 바다의 지평선은 전경과 원경 사이를 이어지는 통로로서 오른쪽 하단 위에 계단이 나타나며, 이는 결국 과거 내가 살았던 고향의 모태적 귀환의 통로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김환기 자신이 구름, 버드나무, 새알들이 보이는 지극히 낭만적인 풍토를 말하고 있는 것 역시 일본에서 하세가와 사부로를 중심으로 결성한 新時代洋畵展(1934) 그룹 멤버들은 1936년 이 전람회가 '신낭만파'와 '실험실'이라는 두개의 구성으로 전시되었고, 이 중 훗날 자유미술가협회의 멤버인 야마구치 가오루가 '신낭만파'에서 전시했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게 다가온다[5]. 훗날 하세가와가 언급한대로 "추상주의와 비교해서 초현실주의는 낭만주의(로맨티시즘)이며, 추상주의는 리얼리즘이다. 로맨틱시즘은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지 않지만, 리얼리즘은 늘 방법론의 과학성 위에서 세운다"[6]고 한 것처럼 김환기의 〈종달새 노래할 때〉는 주제에서 로맨티시즘에 입각한 방법으로 제작한 것이다.

---

3) 1933년 개설된 '아방가르드양화연구소'는 이듬해 1934년 다시 개조된 '駿河臺洋畵硏究所'를 개설하지만 또 다시 다음해에 해산하고 만다. 리중성은 김환기보다 일찍이 1년 전 駿河臺洋畵硏究所에 연구생으로 들어갔고, 그의 기억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동일한 건물 안에 아방가르드양화연구소라는 간판을 걸고 별칭 개조된 연구소였음을 알 수 있다.

4) 김향안, 『사람은 가고 예술은 남다』(우석,1989), p.124는 김영나, 「동양적 서정을 탐구한 화가 김환기」,『한국의 미술가-김환기』(삼성문화재단, 1997) pp.31-32에서 재인용.

5) 大谷省吾, 「地坪線の夢」序論, 東京國立近代美術館,『地坪線の夢』圖錄 (東京國立近代美術館, 2003) p.15.

6) 植村鷹千代, 「レアリズムとアブストラクト·アート」,『日本の抽象繪畵 1910-1945』(讀賣新聞社, 美術館連絡協議會, 1992), p.209.

김환기의 이러한 양식은 1930년 쓰루오카 마사오(鶴岡政男)에 의해 주도되어 순수회화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NOVA미술협회[7]전이 조직된 후 1935년 1월 이 협회 제5회전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결성한 中華獨立美術協會[8]로서 처음으로 대외적인 활동의 전개로 여기에 출품한 리동핑(李東平)의 〈해변의 꽃파는 아가씨(海辺の花売娘)〉와 같은 일본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작례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종달새 노래할 때〉와 비교해 보면, 지평선을 원경으로, 바구니를 왼손에 끼고 오른손은 머리에 얹고 앉은 자세의 소녀를 근경에 배치하여 묘사했다는 점에서, 지평선, 소녀, 바구니 등의 제재의 동일함에 시선이 간다. 특히 화면 구성에 있어서도 소녀가 서있고, 앉아 있는 포즈의 차이는 있으나 오른 손을 머리로 왼손을 허리로 내린 구도, 소녀 발아래 그림자 처리 등은 매우 흡사한 묘사를 보인다. 아울러 종달새의 소녀는 과거 고향 조선에 서있다고 할 때, 해변의 소녀는 중국 대륙에 앉아 이곳을 유혹하는 주제로 이끌고 있는 셈이다. 리동핑은 일본의 독립미술전에서 기요미즈 도시(淸水登之), 스즈키 야스노리(鈴木保德), 후쿠자와 이치로(福澤一郎) 등이 만주를 여행하고 작품의 제재로 다루었던 것과 관련된다고 본다.[9] 이는 이들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1935년 몽환의 땅이자 원시성에 대한 동경의 땅 만주로 여행을 떠났다. 이들의 만주 여행은 일본 내의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풍에 새로운 이상향을 드러내는 대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 양식에 있어서 김환기의 이 작품은 페르낭 레제나 말레비치의 큐비즘적인 요소와 이를 가장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도고 세이지의 영향으로 지적되어 왔다.[10] 1910년대 일본에서 특히 도고 세이지의 〈파라솔을 든 여인〉(1916)나 요로즈 데츠고로(萬鐵五郎, 1885-1927)의 〈지탱하고 선 여인〉(1912) 등은 색과 형의 해체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이후 추상을 구상의 형태로 그려진 것은 1920년대 미래파미술협회나 마보에 와서 이루어졌던 추상 형태는 도고 세이지의 미래파와 큐비즘이 융합된 '추상화 작용'[11]의 과정에서 보여준 것이었다. 이는 훗날 1930년대 이과회의 젊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중 김환기도 이와 같은 영향에서 앞서 초현실주의 경향의 제재를 다룸으로써 낭만적 풍토의 향토적 서정을 주제로 삼아 점점 추상화 작용의 실험의 초기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김환기의 초기 양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앞서 언급한 중화독립미술협회의 중국 유학생들은 대다수 일본대학 미술과에 입학하여 재적하며 동시에 미술활동을 펼쳤던 비슷한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을 가르쳤던 화가 기무라 소하치(木村莊八, 1893-1958)가 언급한 '신경향'은 바로 초현실주의를 말하며 이들 중국학생들이 모더니즘 회화에 경도된 것을 아뜰리에 지에 실

---

7) 이 협회는 1930년 11월 太平洋畵會가 운영한 연구소에서 배운 鶴岡政男 등이 舊洪原會 회원 10명이 함께 참여하여 결성한 미술단테이다. 1937년 1월 제7회 회전을 활동으로 막을 내리기까지 鶴岡을 비롯한 松本竣介, 靈光, 難波田龍起, 寺田政明 등이 훗날 일본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이 발표된 장이었다. 吳孟晋, 앞의 글, p.16.

8) 蔡濤,「中華獨立美術協會的經緯」,『廣東美術館年鑑』(2007) p.424.

9) 최재혁,「 1930·40년대 일본회화의 만주국 표상」,『미술사논단 』28호(한국미술연구소, 2009.6), p.121.

10) 김영나, 앞의 글(1997), p.32.

11) 尾崎眞人,「大正新興美術に見られる、<抽象>を越えられなかった<抽象>」, 東京國立近代美術館, 앞의 책(2003), p.24.

었다. 또 같은 학교를 먼저 입학 리중성은 나카무라 겐이치(中村研一)의 영향을 살필 수 있다.[12] 그러나 김환기는 그 어떤 기록에서도 일본대학 시절의 스승과의 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아마도 이들 중국 유학생처럼 이미 상해에서 전위미술운동에 참가하고 야수파의 양식을 통해 초현실주의에 가까이하려 한 모더니즘의 성향과는 달리, 김환기가 입학 전 미술양식의 토대가 분명한 양식을 습득했던 전력이 전무했던 점은 오히려 추상회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로서 초현실주의의 경향을 수용했으리라 본다.

자유미술가협회와 김환기

김환기가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한 〈론도〉(1938), 〈창〉(1940) 등은 구성주의 성향을 강하게 나타낸 색면추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앞서 이과회에 출품한 〈종달새 노래할 때〉와는 다른 화풍이다. 대략적으로 볼 때, 김환기가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참가하면서 작품의 변화가 감지되고,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화가와 시대의 새로운 변화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추상주의 화파로서 일본인에게 확실히 의식된 것은 파리의 추상 운동인 "압스트락시옹・ 크레아시옹(抽象創造)" 영향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운동의 추상 작품이 게재된 이 그룹의 기관지『압스트락시옹・ 크레아시옹・ 아르・ 농 피규라티브』가 일본에 건너와 1935년부터 1936년에 걸쳐『미술』지에 작품을 실어 소개되었다.[13] 그리고 추상 운동의 주도자인 하세가와 사부로가 추상예술에 관해 최초로 쓴 논문「압스트랙・ 아트(アブストラクトアート)」이『미즈루(みづゑ)』378호 1936년 4월 에 발표했을 때, 이는 파리의 동향에 주목되는 현상으로 파악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1935년은 김환기의 이과회 출품 이후 일본 추상 운동의 새로운 경향이 파리를 통해 수용되었고, 이는 적어도 하세가와와 무라이가 〈신시대양화전〉의 추상적인 회화 표현을 이끌고 남바타 다츠오키(難波田龍起, 1905-1997) 등의 〈포름(フォルム)〉 그룹과 〈흑색양화전〉 멤버들이 결성한 〈자유미술가협회전〉(1937) 화가들에게 고무되었을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작품의 양식적이 추상성 외에도 당시 파리의 추상 수용은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훗날 김환기는 1939년「추상주의소론」(『조선일보』6월11일자)에서 상형적(Figuratif)와 비상형(Non-Figuratif)의 개념을 가지고 입체파의 상형적 추구에서 추상의 회화적 순수성을 언설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언설은 일본에 소개된 파리의 압스트각시옹의 농・피규라티브(Non-Figuratif)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추상미술에 대한 견해는 하세가와 사부로의「압스트랙 아트」와 후쿠자와 이치로「추상예술」(『みづゑ』385호 1937년 12월)로 대결되며 이는 자유미술가협회전의 참여화가들을 통해 하세가와의 추상예술 이론을 좀 더 실천하는 쪽에서 새로운 추상의 실험의

---

12) 曾長生,『臺灣美術評論全集-李仲生』(藝術家出版社, 1999), p.22.

13) 이 잡지에 실린 작품 도판은 '압스트랙 화파' 작품으로서,『美術』1935년 7월호부터 8점의 작품 도판이, 또『美術』1936년 10월호에는 이미 5호부터 11점의 작품 도판이 실렸다고 한다. 速水 豊,「抽象の名のもとに」, 앞의 책,『日本の抽象繪畵 1910-1945』, p100-101와 주1 참조. 훗날 김환기는「전위미술의 도전」이라는 글에서 '압스트랙시옹 크레아시옹' 그룹을 '추상-창조'로 이 기관지는『농-피귀라티프』라고 언급한 것만 보아도 1935년 일본에 소개된 프랑스의 추상 운동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환기,「전위미술의 도전」,『현대인 강좌』3호, 1962, 삼성문화재단, 앞의 책(1997), p.233.

장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환기에게 있어 자유미술가협회전의 출품은 일본대학 재학 중 '아방가르드양화연구소'(1933년 9월 개설, 1934년 11월 駿河臺洋畵研究所로 改組, 1935년 6월 해산)에서 교류한 일본의 전위미술의 선구자들의 지도와, 같은 연구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먼저 白蠻會의 결성과 활동의 연장선에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상예술을 실험할 수 있었던 공간으로 알려진 아방가르드양화연구소는 김환기에게 있어서 보다 진보적인 추상예술의 인적 교류의 장이었을 것으로, 훗날 추상예술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김환기가 일본대학 미술학부에 입학한 1933년은 제20회 이과전(9월, 동경부미술관 전시) 九室(훗날 1938년 9월 九室會 발족)에서 전위 성향의 회화 전시를 시작했던 시기였고, 이과회의 전위미술의 중심 멤버인 도고 세이지 외에 고가 하루에(古賀春江), 아베 곤고(阿部金剛), 미네키시 요시카즈(峰岸義一) 등 동참하여 이 연구소를 개설한 해였다. 김환기가 1934년 발을 내딛은 이 연구소에는 이미 중국 광동 출신으로 상해에서 유학 와 같은 대학에 재학했던 리중성과 한국인 길진섭, 김병기 등이 함께 공부했고, 일본인 연구생을 포함하여 30명 정도가 되었던 곳이다. 이들은 여기서 구체적인 양식을 습득했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미술의 관심과 선배 스승의 예술 창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의미를 지녔다고 본다. 특히, 이미 상해에서 결란사와 같은 전위미술운동에 참가했던 리중성의 회고에 의하면, "'정신으로 정신을 전한다' 예술과정의 창작 기본원리를 강조했다고 했고, 또 이 연구소에서 사이토 요시시게(齋藤義重), 야마모토 게이스케(山本敬輔) ,김환기 등은 함께 동경의 카페에 출입하면서 추상예술과 프로이드 사상과 관련된 전위예술의 이론과 기교상의 문제를 열렬히 토론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14]리중성의 이와 같은 기억은 아방가르드 양화연구소에서 이들에게 전위예술의 정신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사고의 형성으로서 교류의 장이었고, 아울러 그 창작의 방법적 모색에 있어서 미래파 혹은 큐비즘으로 대표되는 전위미술의 발기인 선배 혹은 스승의 영향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던 곳이기도 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소의 발기인으로 앞서 언급한 화가들 외에 후지타 쓰쿠하루(藤田嗣治)도 참여하여 연구생들을 지도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전위파 화가는 아니지만, 에콜 드 파리의 성공한 국제적 화가로서 더욱 역할을 한 것 같다. 후지타가 1933년에 귀국하여 1937년 다시 파리로 돌아가기 전까지 주로 이과회와 연구소에서 활동했고, 이때 연구생들에게 '마술적인 리얼리즘' 화가로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15] 이러한 점에서 이과회의 중진이면서 전위미술을 이끌었던 아방가르드양화연구소를 개설한 발기인들의 화풍은 더 이상 순수한 추상의 새로운 양식으로 영향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즉 큐비즘의 도고 세이지, 초현실주의의 고가 하루에와 아베 곤고, 일찍이 〈巴里東京新興美術同盟展〉(1933)을 조직했던 미네키시 요시카즈 등은 전위미술의 선구로서 이들을 따랐던 젊은 화가들은 순추상예술로

14) 曾長生, 앞의 책(1999), pp.24-25.

15) 이미 파리에서 알려진 후지타 쓰쿠하루의 '마술적 리얼리즘'은 키슬링과 앙리 루소에 의해 부르게 된 것으로 그의 국제적인 명성을 한층 높이게 된 것이다. 특히 그의 백유색 바탕(Le Grand Fond Blanc)는 일련의 나부상 시리즈에서 구현된 것이다. 吳孟晋,「中國のモダニズム絵画とローカルから ー１９３０年代東京でのシュルレアリスム作品をめぐって」,『表象』(2008.3.) pp.180-181.

앞서 나갈 수 있었다고 본다. 길지않았던 아방가르드양화연구소의 경험은 김환기에게 있어서 초현실주의 미래파, 큐비즘 등의 선험에서 그의 동기생들과 추구한 추상예술은 1936년과 1937년을 거쳐 이과회, 백만회에 이어 1938년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한 〈론도〉, 〈아리아〉, 〈백구〉 등의 추상 양식에서 본격적인 추상예술을 추구하며, 〈종달새 노래할 때〉와 다른 양식으로 전진하게 된 것이다.

자유미술가협회[16]는 신시대양화전에서 추상적인 회화 표현을 지향한 무라이 마사나리와 하세가와 사부로가 중심이 되어 남바타 다츠오키와 오노사토 도시노부 등이 결성한 미술단체로서 1937년 2월 창립하여 같은 해 7월에 제 1회전을 개최했으며, 이 협회의 고문인 미술평론가 우에무라 다카치요(植村鷹千代, 1911-1998)가 『아뜰리에(アトリエ)』8월호에 「자유미술가협회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발표하여 자유미술가협회의 주장을 내세웠다.[17] 그는 후쿠자와 이치로의 초현실주의로서 추상주의에 반대하고 하세가와 사부로의 추상주의 회화 창조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압스트랙 아트(アブストラクトアート)」[18]에 기고했으며, 이러한 그의 입장은 새로운 예술로서 자유미술가협회의 활동을 옹호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하세가와가 집결한 미술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유미술가협회는 당연 제 1회전에 출품한 〈나비의 궤적(蝶の軌跡)〉이야말로 추상 회화의 도달점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영향되었을 것이다. 또한 제 1회전 때 무라이 마사나리 역시 〈URBAIN〉의 연작을 발표하여 여러 화가들의 주의를 끌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 볼 때, 김환기가 1938년 제 2회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하세가와의 양식 보다는 색채의 리듬감의 구성이 무라이에 닮아 있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미술가협회〉는 김환기의 추상미술에 있어서도 전환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이회의 중심 회원인 무라이 마사나리의 만남을 통해 작품의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순수 추상의 작품의 변화를 보여준다.[19] 이는 유영국의 회고에 있어서도 인정되듯이 김환기가 무라이를 만나고 나서 작품의 변화가 컸다는 것은[20] 바로 추상회화의 구성주의 방식에서 절대주의 형식의 정신적 해석을 중시한 것을 의미할 것이다.

무라이와 김환기와의 관계는 이미 지적된 바대로 자유미술가협회를 통해 공유된 추상미술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과정을 보여주는 추상적 단계의 공통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둘의 관계는 자유미술가협회전을 통해 발표된 작품들 속에서도 그 상관성을 볼 수 있다. 무라이의 〈URBAIN〉(1937) 은 단순화된 색을 가진 형태의 단휘가 회화의 기본 요소로 순수한 조형단위가 되

---

16) 이 협회의 創立会員은 長谷川三郎,浜口陽三,矢橋六郎,村井正誠,山口薫,津田正周,大津田正豊,荒井竜男,瑛九,小城基,藤岡昇로, 会友로는 小野里利信, 難波田龍起,清野恒,彫刻의 植木茂가 있다. 또 顧問制를 두고 今泉篤男,富永惣一,植村鷹千代,柳亮等등이 고문으로 있었다. 제 1회전은 우에노 일본미술협회에서 개최했고, 이후1940년 제 4회부터 '미술창작가협회'로 개칭되었다가 전시 체제의 압박 속에서도 지속되다가 1944년 해산하고 만다.

17) 植村鷹千代,「自由美術家協会とは何か」『みずゑ』8월호, 1937년, 이 글에서 우에무라는 "현실의 회화계에 있어서 구세력의 頑迷한 저항과 몰이해를 위해 그 성장과 결합을 거부하고 있는 신시대 회화의 인적 집대성을 목적으로 만들고 한다."라고 이 협회 결성일 동기를 나타내고 있다.

18) 植村鷹千, 「アブストラクトアート」,『アトリエ』6월호, 1937.

19) 김영나, 앞의 글(1999), pp.32-33.

20) 유영국과 감환기가 무라이 마사라리의 구성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자세한 글은 유영아, 「유영국의 초기 구성주의: 〈랩소디〉(1937)에 나타난 유토피아니즘」,『미술이론과 현장』제9호(한국미술이론학회, 2010), p.114 참조.

고 있기에, 또 이는 무구한 공간의 화면을 만들고 있다. 또한 김환기 역시 제1회전에 출품한 〈항공표지〉와 비교해 볼 때, 무라이의 제2회 협회전 출품작 〈백령묘〉(1938)[21]등은 항공사진을 이용하거나 하늘에서 땅을 볼 수 있는 공간의 프레임을 생각하게 하는 무한적 세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말레비치의 쉬프레마티즘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22] 이러한 무한의 공간을 순수 추상으로 과정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항공사진과 회화의 관계는 당시 추상미술의 이론적 근거를 준다. 이때 일본 전위미술의 입장에 있었던 이론가 다키구치 슈죠(瀧口修造)의 「영향에 관해서」(『美術』11월호)라는 글을 중심으로 다니구치 에리(谷口英理)의 논문은 전위회화의 기계적 시각 미디어라는 점에서 무라이의 작품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그녀의 글에서 기계적 복제기술에 토대를 둔 시각미디어가 비기계적적 수공예적인 미디어인 회화가 가져온 '영향'의 문제가 드러남과 동시에 사진의 영향으로서의 항공사진과 회화의 문제를 재고하게 해준다.[23] 무대상의 기하학적 구성의 성립 속에 들어 있는 항공사진의 시각적 재현으로 봤을 때 김환기의 〈항공표지〉는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형태로도 영향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무라이 혹은 기타와키 노보루(北脇昇)의 〈聚樂(관상학 시리즈)〉(1938)와 같은 작품의 기하학적 화면 구성과도 맥이 닿아있는 듯하다. 또한 김환기의 〈항공표지〉(1936)나 〈창〉(1940)과 같은 작품은 전자는 요시하라 지로(吉原治良)의 〈作品(イ)〉(1935)과 후자는 동일한 주제의 무라다 요시아키(村田佳秋)의 〈窓〉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두 화가들은 구실회에서 활동한 점을 볼 때, 이과전에서 출발한 구실회만큼 재야그룹의 추상예술의 범주에서 동시기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김환기는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하면서 보다 기하학적 구성의 작품을 제작하였고, 초기 이과전에 출품할 때와 큰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는 새로운 시대의 화가로서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東方[24]의 표상, 항아리와 백자

김환기가 1951년 제작한 〈항아리와 여인〉은 앞서 살펴 본 추상예술의 선상에서 볼 때, 초기 초현실주의적인 주제로 돌아가 상형적(Figuratif)으로 제작하여 추상적인 비상형(Non-Figuratif)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작품이다. 그러나 피규라티브의 모티프와 관계해서 그 조형적 요소를 탐색해 보면, 이전 추상실험의 사유적 관찰을 통해 어느 정도 그 공통된 제재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전위미술로서 추상예술에서 다루었던 제재들 속에서 형상의 틀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935년으로 돌아가 김환기의 〈종달새 노래할 때〉를 보면 인물의 포즈와 의복의 처리가 큐비즘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

---

21) 하세가와의 자유미술가협회에 대한 영향으로서 무라이의 〈백령묘〉와 〈支那の町〉의 자세한 분석과 연구는 김현숙, 「김환기의 도자기 그림을 통해 본 동양주의」,『한국근대미술사학』제9집(2001), pp.19-20 참조.

22) 홍선표,『한국 근대미술의 역사-갑오개혁에서 해방 시기까지』(시공사, 2009) p.212

23) 谷口英利理 ,「前衛美術と機械的視覺メディア-古賀春江から瑛九へ」,『近代畵說』15(2006), p.391.

24) 東方은 1936년 김환기가 제3회 백만회 출품작한 〈동방〉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며, 그 의미는 동양과 같은 것이지만, 근대기 일본이 제조한 東洋과 어의적 차별을 두기 위해 본고에서는 동방으로 사용한다.

어 그 전위미술의 맥락에서 1950년대의 피규라티브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본다.

1930년대 김환기 작품에서 '항아리'와 같은 제재가 추상 실험에서 다루었던 점을 주목해 보면 당시 일본에서 유행한 추상주의의 세례가 그 원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일본 추상의 또 다른 선구자 사카다 구즈오(坂田一男, 1889-1956)는 유럽의 전위미술가 레제의 큐비즘적인 조형 요소를 수용했던 화가이다. 그는 1923년 파리의 아카데미 모데른에서 강사 레제에게 사사한 일본 유일의 연구생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25] 일본 화단의 큐비즘 수용의 직접적인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사카다의 〈콤포지션(얼굴과 항아리)〉(1929)와 같은 기하학적 질서의 화면 구성을 통해 '형태의 콘트라스트'의 추구는 순수한 추상의 진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환기에 있어서 이러한 형태적 콘트라스 역시 '항아리'라는 모티프에서 실험되었던 것이고, 1936년 이과회나 백만회에 출품한 〈집〉, 〈장독〉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도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백만회'에 출품한 〈東方〉(1938)과 같은 해에 제작된 〈항아리〉 등은 색면의 추상형태로 서서히 옮겨가는 실험적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사카다 가즈오가 은둔형 화가로 활동에 어울리지 않았다고는 하나 파리에서 귀국한 1933년 이후 일본의 추상예술계에서 그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김화기가 백만회에 출품한 〈동방〉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항아리가 놓여 있는 듯한 형태를 추상적 형태감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는 〈장독〉(1937)과 같은 형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작품이 '동방'이라고 붙여진 점에 주목해 보면 동시기의 주제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동방은 일본에서 생성한 '동양'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김환기 자신이 동방이라는 제목을 달게 된 이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근대미술의 입장에서 '서양/현대'에 대한 '동양/고전'이라는 대립 속에서 '동양/정신'이라는 입장은 1930년대 추상주의 화가와 평론가들에게 널리 주장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우에무라 다카치요는 「자유미술가협회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현실의 리얼리티를 긍정하고, 현실사회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표현을 구하는 인류의 낭만(로만)이 있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고인의 역사를 존중하고, 古典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전의 문제, 민족전통의 문제 사상의 문제 등과 같은 문제는 깊은 사색 속에서 현실의 혈통에서 나와야하기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26] 이 점에서 김환기 보여준 〈동방〉, 〈장독〉, 〈집〉 등은 고전 문제이기 보다는 민족 전통의 문제에서 정신적인 사색을 보여 준 것이 아닌가싶고, 결국 1950년대에서 보여 준 '항아리'가 '백자'와 같은 민족 전통의 고전을 드러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자유미술가협회가 결성되던 시기, 핵심 주도자였던 하세가와 사부로 역시, 동양 고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전위미술과 동양의 고전」이라는 글을 『미즈루(みづゑ)』) 1937년 2월에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관계에서 김환기의 하세가와 영향은 이미 김현숙 논문 「김환기의 도자기 그림을 통해 본 동양

25) 守田均, 「建築師の設計手腕-〈キュウビム的人物像〉」, 『日本の近代美術7-前衛美術の實驗』(大月書店, 1993), p.102.

26) 植村鷹千代, 앞의 글, 206

주의」[27]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 후 하세가와는 1940년 이 협회에서 창간한 『自由美術』에서 그는 또 다시 「고전은 우리들의 것이다」[28]라는 글로 더욱 "고전'은 일찍이 '전위미술'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짧은 글을 통해 京都의 정원과 다실의 다완이나 차도구를 보고 무로마치 시대의 센 노리큐(利休)와 같은 고인들의 생활과 예술을 감탄했으며, 또 그는 서구에서 2,30년간 도달한 '추상예술'이 일본은 이미 400년 전부터 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몬드리안, 아르프, 혹을 르 코르브지에, 모흘리 나기에게 자신이 본 경도의 정원을 보여주고 싶고, 또 이들의 추상예술은 가짜라고 했다. 이 점에서 있어서 김환기가 훗날 「파리에 보내는 편지-중업형에게」(『신천지』1953.5.6.)[29]에서 "코르브지에의 건축이나 정원에다 우리 이조 자기를 놓고 보면 얼마나 어울리겠소. …… 우리의 고전에 속하는 공예가 아직도 현대미술의 전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며 '우리 고전인 이조 자기가 전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구라파를 아무리 따라가 보오, 결국은 모방밖에 안 될 것 아니겠소"라고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하세가와가 서구의 추상예술은 가짜라고 하며 "추상예술의 조국은 일본이다", "조형하는 정신'의 조국은 일본"이라고 하는 민족 본위의 발상과도 연관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김환기가 선택한 조선시대 백자는 서구 추상예술과 다른 동양 고전이며 민족적 정신인 것일 것이다. 또한 자유미술가협회전을 통해 하세가와가 주장했던 '고전'은 '전위'라는 입장은 추상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젊은 화가들에게 자극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30]

이 당시 동양의 고전의 정신은 하세가와 보다 일찍이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물론 특히 에콜 드 파리에서 국제성을 인정받았던 후지타 쓰쿠하루(藤田嗣治, 1886-1968)의 성공의 비결이기도 했다. 특히 후지타의 경우 1930년대 소화기에 들어와 일본에서 수많은 화가들이 추구한 동양적 유화가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후지타의 우키요에에서 빌려온 세밀한 선묘와 마티에를 표현으로 파리에서 인기를 얻었던 작품은 일본화가가 근대회화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유럽의 동시대 미술에 있어서 일본 동양의 전통적 회화 표현의 유효성을 확신시키는 일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된다.[31] 특히 그가 나타낸 '유백색의 도자기 빛'의 마티에르 표현은 서양에서 도자기가 갖는 오리엔탈의 동방적 효과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환기는 1933년부터 1936년 사이 '아방가르드양화연구소'에서 지도했던 후지타와 접촉할 수 있었고,[32] 또 그의 1920년대 '유백색 도자기의 마

---

27) 김현숙, 앞의 글(2001), pp.1-39 참조.

28) 長谷川三郎, 「古典は我々のものである」, 『自由美術』1940/ www.jb.vis.ne.jp 참조.

29) 삼성문화재단, 앞의 책(1997), p.241.

30) 동양주의적 전위미술로서 하세가와 사부로와 김환기의 영향에 대해서는 김현숙의 앞의 글(2001)에서 이미 밝힌바 있고, 본 논문을 이를 토대로 김환기의 동양 고전으로서 백자와 같은 도자기를 이해했다.

31) 林田龍太(, 「香月泰男の'東洋的油繪'-〈石と壺〉をめぐって」, 九州藝術學會,『デアルテ』22(2006), p.29.

32) 후지타 쓰구하루의 일본 체류는 二科會에 영입된 1934년부터 1941년이 일본화단의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1929년 일본에 일시 귀국했다가 1931년 후반부터1933년까지 2년간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를 여행한 후 동경에 돌아와 淀橋區 戸塚에 아뜰리에를 개설하여 활동했고, 이 때 중국 유학생 리중성과 면식한 후 아방가르드양화연구소에서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吳孟晋, 앞의 글(2008), p.181. 또 이 시기에 리중성과 함께 김환기 역시 후지타의 아뜰리에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며 1936년 후지타 화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은 그의 지도 내지 교류를 뒷받침한다. 사진은 삼성미술재단, 앞의 책(1997), 연보, p.176 참조.

티에르' 작품이 '일본적'인 분위기로 사용되어 성공했던 점은[33] 서양에서 일본적 재현을 생각게하는 화가였던 점에 매력적이었으리라 본다. 식민지 현실에서 관전의 양식으로 지방색이 보편화 되던 시기 전위미술에서 조형적 정신으로서 민족의 고전은 후지타와 같은 국제적 양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은 당연 김환기와 같은 젊은 화가들에게 고무되었던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인 화가는 물론 중국과 한국 유학생이 일본에서 코스모폴리탄으로서 갖는 민족적 고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환기의 1950년대 작품의 제재에서 출현한 백자와 청자 등의 도자기는 확실히 1930년대 일본화단의 영향에 따라 그 정신적 '古典'으로 가져왔다고 보이며, 이는 또 김용준과 이태준 등과 함께 文章지를 통해 연구한 한국 고전의 전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도 이미 지적되어 온 바이다.[34] 그러나 그의 조형적 탐구로서 항아리가 지니는 언어는 초현실주의, 그 보다 더 훨씬 일본의 근대미술에 나타난 고전 문명의 발생과도 같은 맥락과도 닿아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항아리와 여인들〉의 보여준 원시적인 자연의 공간에서 백자를 들고 있는 모습은 서양에서 이미 동방(Oriental)적인 주제로서 근대 문학과 미술에서 자주 다루었던 것으로, 특히 프랑스에서 도자기는 공예뿐만이 아닌 현대미술의 조형성 그 자체로도 인식되었다. 그 중 1910년대 『方寸』과 같은 잡지에서 나타난 겉 표지화 안에 컷 그림은 이 잡지의 창간인 중 한 사람인 모리타 쓰네토모(森田恒友, 1881-1933)의 표지 컷 그림인 장식 판화[35]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 신화의 고전을 차용한 이미지에서 1910년대 다이쇼 대중문화의 보편화된 서구의 고전을 볼 수 있다. 이후 일본의 모더니즘에서 수용된 초현실주의 양식적 주제에서 고대의 憧憬으로서 근대화가 진행된 사회의 폐쇄감, 소외감을 증대하는 속에서 구현하는 근대는 남바타 다티오키와 같은 화가가 구현한 것이었고, 또 이러한 고대의 동경으로서 야마구치 가오루(山口薰)의 항아리(壺) 시리즈는 고전을 구하면서 대상의 단순화 평면화된 조형의 처리를 근대로 나타내고, 항아리라는 제재는 자신이 투영한 상징성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36] 이러한 해석은 김환기가 1930년대에 의 작품에서 〈동방〉, 〈장독〉, 〈섬이야기〉와 같은 일련의 항아리 시리즈 작품군은 그 후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한 작품의 달라진 주제와 양식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남바타와 야마구치는 모두 자유미술가협회에 참여했던 작가들로서 근대의 시점에서 바라본 고대성이라는 성격을 명확히하고 있어, 훗날 김환기는 1950년대 들어와 이러한 고대성이 한국 국토의 원시적 자연과 항아리를 결합시킨 〈항아리와 여인〉의 기본적인 개념을 형성한 면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에서 고전적 신화로서 여인이 든 항아리는 백자를 형상화함으로서 한국의 신화로서 동경을 볼 수 가 있고, 일찍이 〈종달새 노래할 때〉에서 보여준 바다의 지평선과 머리에 바구니를 이은 포즈

---

33) 하야시 요코(林洋子), 「후지타 츠구하루: 노마드적 파리지앵에서 디아스포라로」, 『한국근대미술사학』제18집(2007), pp.145-147 참조.

34) 김현숙, 앞의 글(2001), pp.29-30 ;박계리,「일제강점기 '전위미술론'의 전통관 연구-'문장(文章' 그룹을 중심으로」,『미술이론과 현장』제4호(2006), pp.70-71.

35) 『方村』2卷1號의 컷 그림은 千葉市美術館, 『日本の版畵Ⅰ 1900-1910- 版のかたち百相』展示圖錄(1997), p.102.

36) 東京國立近代美術館, 앞의 책(2003), p.63.

는 다시 〈항아리와 여인〉에서 환원되어 무의식의 세계인 이상향의 느낌마저 감돈다. 또한 이시기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인들과 항아리〉에서는 '달항아리' 백자와 청자를 든 한복의 치마의 여인을 묘사함으로써, 꽃수레와 새장 등의 모티프와 함께 과거와 현실을 오가며, 동경할 수 있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 또한 이 화면에서 사슴과 나는 새(아마도 학의 단순한 형상)의 등장은 장생을 의미하는 고대 신화의 모티프로서 생명을 환기시키고 있다고까지 볼 수 있다. 아울러 화면에서 날아가는 새는 정지된 과거의 시간을 상징하는 백자와 대조되게 과거로부터의 현실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맺으며

한국에서 대표적인 추상회화 화가 김환기의 작품은 1970년대 뉴욕시기를 맞이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에서 얘기될 수 있지만, 해방 후 한국전쟁기였던 1950년대 초반부터 보여준 그의 작품들은 추상과는 먼 형상적인 '항아리'의 표현에서 그의 추상의 뿌리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는 1930년대 일본을 유학하며 전위미술 속에서 추상예술을 경험하고 활동했던 경력을 보았을 때, 어쩌면 퇴보적인 행로가 아닐까도 의심이 된다. 그러나 그의 전위미술의 체험은 일본의 초현실주의와 큐비즘, 구성주의에서 보여준 모더니즘에서 출발했고, 더욱이 재야전으로서 권위를 가진 이과회에 〈종달새 노래할 때〉를 출품하면서 그의 모더니즘의 면모는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그의 주제가 '동양' 혹은 '동방'의 고대 정신의 발현으로서 '항아리'에서 찾았고, 훗날 1950년대의 작품에서 다시 '백자 항아리'로 돌아와 고전적 세계의 탐미적인 정신을 보이고 있다. 물론 1940년 자유미술가협회전의 출품을 마지막으로 대동아 전쟁의 불안한 시국과 맞물려 한국에서 더 이상의 추상 회화는 볼 수 없었지만, 그 후 한국전쟁기에 그의 작품은 백자와 같은 한국 고전의 구체적 형상을 초현실주의적인 시점에서 아득히 먼 시간의 이상향 속에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티프는 그가 1930년대 일본 전위미술 화단에서 추상예술의 영향과 관련되며, 그 정신적 동방의 고전으로서의 사색의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그의 추상예술 작품이 지속되지 못하고 1940년을 전후로 양식의 변화를 보여준 이유는 아마도 이 때 일본 추상예술 화단이라 할 수 있는 자유미술가협회가 4회를 맞이하면서, 이 협회 내에서 이미 수수한 추상주의를 표방하는 작가들의 세력이 약해졌던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47년 신사실파가 창립되어 김환기를 비롯한 유영국, 이규상 등이 창립동인으로 작품을 발표한 것을 보면, 이 중 김환기는 이미 일본 자유미술가협회에 출품했던 추상과 전혀 다른 구상적인 작품 등을 보여줌으로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신사실파'라는 의미는 추상예술을 내면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자유미술가협회 고문이었던 우에무라 다카치요의 「리얼리즘과 압스트랙 아트(レアリズムとアブストラクト·アート)」(『아뜰리에(アトリエ)』 1938년 2월)이라는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는 "압스트랙 아트가 표현하는 '새로운 리얼리즘'은 기계공업 시대 즉 20세기의 美를 그 근거로 한다. 이러한 美의 시스템은 세잔느에서 피카소에 이르

는 19세기 자연과학 발전기의 美"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했고, 결국 이 의미는 "압스트랙 아트는 유파가 아닌 20세기 회화의 리얼리즘이다"라고 압축할 수 있다. 결국 김환기에게 있어서 1930년대의 전위미술의 체험은 그 후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사실'로 개척하는 출발점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중섭 · 야마모토 마사코

국경이 갈라 놓은 內鮮의 結婚

최　　열 (미술평론가)

이중섭 · 야마모토 마사코 – 국경이 갈라 놓은 內鮮의 結婚

최 열 (미술평론가)

애인 야마모토 마사코

이중섭(李仲燮 1916–1956)은 둘만 남은 실기실에서 후배 여학생 야마모토 마사코(山本方子 1920–)에게 말을 걸었고 그 때부터 다방 같은 데에서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1] 연애를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1938년(문화학원 2학년)의 일인지, 아니면 한 해를 지켜보고 1939년(문화학원 3학년)에 일어난 일인지 불분명하다. 그게 언제건, 야마모토 마사코의 증언에서 보듯, 그저 그렇게 간단히 만난 것은 아니었다. 동기인 홍하구의 증언은 이중섭이 잠시나마 상사병(相思病)에 걸렸다고 했다. 고백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여학생만 나타나면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고 정신이 몽롱해진 것이다. 홍하구가 꾀를 냈다. 자신의 생일이라며 그 여학생을 초대했다. 동경의 간다(神田) 2정목에 있는 레스토랑(restaurant) '조콘다(Joconda)'에 나타난 여학생과 이중섭 그리고 뒤늦게 이정규가 합석하여 생일잔치를 벌였고, 저녁이 되자 홍하구와 이정규는 자리를 비켜주었다.[2]

하지만 이런 가짜 생일잔치만으로 두 사람의 인연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야마모토 마사코의 가슴에도 이중섭은 이미 깊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중섭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난 1986년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는 그 옛날을 다음처럼 추억했다.

"어느 날 학교 가운데 뜰에서 쉬는 시간에 남학생들이 배구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죠. 그 때는 그가 조선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중략– 아마 저뿐이 아니라 다른 여학생들도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눈치였습니다."[3]

이 자리에서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는 가짜 생일잔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다만 실기실에서 처음 말을 걸어 온 이중섭만을 기억했을 뿐이다. 이들의 연애시절, 대화는 남자가 말을 하고 여자는 주로 듣는 편이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여자는 그 남자의 품성이 아주 높았고, 천한 느낌을 주는 데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남자 홀로 사는 하숙방은 언제나 깨끗했고 그 한 가운데 난초(蘭草)를 키워두는 깔끔함을 지니고 있었다고도 했다.

---

1) 유준상, 〈이젠 모두 지나가버린 얘기니까 괜찮습니다.–이남덕 여사 인터뷰〉, 《〈계간미술〉》38호, 1986년 여름호.

2) 이활, 〈홍하구 화백이 본 동경 시절〉, 《〈이중섭의 사랑과 예술〉》, 백미사, 1981, 118–128쪽.

3) 유준상, 〈이젠 모두 지나가버린 얘기니까 괜찮습니다.–이남덕 여사 인터뷰〉, 《〈계간미술〉》38호, 1986년 여름호, 44쪽.

주소 없는 편지(1940-1943) -동경에서 동경으로

1940년 12월 25일이었다. 이 날은 야마모토 마사코가 문화학원 재학생으로는 마지막 성탄절이었다. 해가 바뀌면 3월에 졸업을 할 것이고 그 때부터는 학교 교정에서 그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래서 이중섭은 재미있는 생각을 해냈다. 동경에서 동경으로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받는 이 주소만 쓰고 보내는 이 주소는 쓰지 않기로 했다. 개학을 며칠 앞둔 3월 27일자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신인 주소: '세전곡구(世田谷區 세타가야구) 삼숙정(三宿町 미슈쿠초) 171 산본방자(山本方子)'
발신인 주소: '중섭'

아무리 같은 동경 하늘 아래에서 보냈다고 해도 덩그러니 자신의 이름만, 그것도 수신자 이름 바로 옆에 바짝 붙여 쓴 것은, 당연히 야마모토 마사코가 받아 볼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되돌아 올 수 없는, 그래서 수신자가 꼭 받아야 할 이 엽서는 말 그대로 '주소 없는 편지'였다. 하지만 발신인 주소가 없다고 해도 엽서에 찍힌 우체국 소인은 남는 것이다. 〈이중섭이 山本方子에게〉의 소인은 분쿄구(文京區)에 있는 기츠쇼지(吉祥寺) 우체국 것이 또렷하게 찍혀있으니까 당시 거주하고 있던 자신의 아파트에서 보낸 것이다.

그렇게 1943년까지 보냈다. 야마모토 마사코는 자신을 향한 사랑의 온갖 그림이야기를 받는 대로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이 주소 없는 편지의 특징은 글 없는 그림이다.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상징과 기호로 가득 찬 이 형상들은 23년 동안 감춰져 있다가 1979년 4월 이중섭전이 열리던 미도파화랑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되었다. 당시 88점이 출품되었지만[4] 함께 출간한 도록 〈〈대향 이중섭〉〉[5] 에는 72점만을 수록했다.

사랑의 서막

엽서그림으로 그 시기가 가장 이른 〈소가 오리에게〉는 사랑의 대 서사시를 시작하는 일종의 서장과도 같은 작품이다. 1940년 12월 25일 성탄절 당일 이중섭은 엽서의 한쪽 텅빈 백지에 글자 대신 그림을 그려 넣은 뒤 야마모토 마사코에게 보냈다. 성탄 선물이었다. 바로 그 엽서그림 〈소가 오리에게〉는 아름다운 한 폭의 환상이다. 이중섭의 이상향이라고나 할까. 소와 오리가 입을 맞추듯 구애를 하는데 소의 몸에 남성이, 오리의 몸엔 여인이 겹쳐 있고 소뿔에는 어린이가 매달렸다. 산과 강, 물고기와

4) 당시 언론보도에는 "약 90점의 엽서그림"(〈이중섭 미공개작 2백점〉, 〈〈조선일보〉〉, 1979.4.15.)이라고 밝혔고 1986년 호암갤러리에서 열린 이중섭전 때 이 엽서그림을 다시 출품하면서 "총 88매"(유홍준, 〈엽서그림〉, 〈〈이중섭전〉〉, 중앙일보사, 1986. 126쪽.)라고 확인했다.

5) 이중섭, 〈〈대향 이중섭〉〉, 한국문학사, 1979.

나비, 연꽃이 잔뜩 어우러진 이 세계는 이중섭이 만들어낸 낙원으로 이중섭과 야마모토 마사코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정원이다. 이 작품의 도상은 1940년 제4회 미술창작가협회 경성전 출품작 〈망월〉1과 1941년 제5회 미술창작가협회전 출품작 〈망월〉2의 요소들과 겹친다. 특히 〈망월〉2과는 남과 여, 소와 오리, 산과 강, 물고기와 연꽃과 같은 소재가 모두 같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マサ(마사)〉는 무엇보다 채색이 곱다. 푸른빛이 곱디고운 바다가 배경을 이루는데 평면의 거울처럼 평온하기 그지없다. 그 앞의 나무와 여성은 요정들의 신비한 세계다. 나무와 여성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가지와 팔이 분간 없이 하나로 이어져 있고 또 한쪽은 악수하듯 잡고서 풍성한 꽃을 받치고 있다. 서명 옆에는 엽서 그림 제목을 써 두었다. マサ(마사)라고 썼는데 이는 山本方子(산본방자)란 이름 가운데 方(방)을 일본어 문자 가타가나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그 꽃나무의 요정은 곧 야마모토 마사코의 모습이다.

바로 그 엽서를 그려 발송한 날인 4월 2일 수요일은 개학 다음날이었다. 봄의 꽃들로 뒤덮인 학교를 샅샅이 다녔지만 졸업해 버린 야마모코 마사코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그림자와 향기만 가득할 뿐.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매주 한 점씩 그렇게 날려 보냈다.

(*1943년 8월 일본을 떠나 귀국하여 원산에 정착하다.)

1945년 4월 직녀의 방문

야마모토 마사코는 이중섭이 귀향한지 1년 8개월만인 1945년 4월 사랑을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났다. 일본의 대 부호인 아버지가 사랑의 여로에 나선 딸을 위해 여러 가지 편의를 만들어 주었다. 가족의 따스한 환송 속에 조선해협을 건넜던 것이다.

"소화(昭和)20년. 그러니까 1945년 4월이었습니다. 룩색(rucksack*배낭)을 등에 메고 자그마한 손가방 두 개를 양손에 쥔 저는 나흘이나 걸려서 일본 큐슈(九州)의 하카다(博多)에 도착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였던 때라 교통편이 전무하다시피 했죠. 아버지가 교통공사에 부탁해서 차편을 겨우 얻었습니다. 당시의 일본은 도처에 매일처럼 아메리카군(America軍) 비행기의 폭격이 있었으니까요. 정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그야말로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여행이었죠." [6)]

목숨을 건 여행이었다. 미군 공군이 이미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942년 4월 동경공습 이후, 1944년 6월 B29폭격기가 후쿠오카(福岡)를 공습하였는데 부관연락선의 일본 항구인 시모노세키(下關) 항을 마주보고 있는 해안이었던 것이다. 8월에는 나가사키(長崎)를 공습했는

6) 유준상, 〈이젠 모두 지나가버린 얘기니까 괜찮습니다.-이남덕 여사 인터뷰〉, 〈〈계간미술〉〉38호, 1986년 여름호, 43쪽.

데 이곳도 조선과 항로가 연결된 사세보(佐世保) 항이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1944년 11월부터는 동경을 비롯한 일본 내륙공습을 시작했고 운명의 동경공습은 1945년 3월 10일에 이루어졌다. 연이어 나고야, 오사카, 고베 공습이 이어졌으며 4월 13일에도 2차, 3차 동경공습이 이어졌다.[7] 또한 병력과 장비 수송을 막기 위해 일본 항구와 해안에 기뢰(機雷)를 부설함으로써 해상수송이 거의 마비 당했다. 실제로 기뢰와 충돌해 4월에만 18척의 일본상선이 가라앉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본은 4월 29일자로 부관연락선에 일반승객 승선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행히도 야마모토 마사코는 그 직전 승선했으니까 조선 땅에 발 디딜 수 있었다. 마사코가 조선으로 건너 간지 한 달여 뒤인 6월 부관연락선 운항은 완전 중단되고 말았다.

"시모노세키(下關)에 도착하니까 이번엔 한국으로 가는 배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정기여락선이었던 곤고마루(金剛丸)가 아메리카 잠수함의 어뢰를 맞고 침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카다로 나와서 임시연락선을 타게 된 거죠. 보잘 것 없는 자그마한 배였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이 배가 일본과 한국을 잇는 마지막 배였다고 해요. 무섭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8]

사선을 넘는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늘엔 공습, 바다엔 기뢰의 공포가 휩쓸고 있던 시절, 두려움조차 없이,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선을 향하다니. 게다가 이 시절엔 만주, 조선에 퍼져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던 터였는데 거꾸로 역진하는 일본인이라니.

"다시 3일인가 나흘이 걸려 경성에 도착한 저는 조선호텔로 갔어요. 빈 방이 없어서 호텔 앞의 무슨 여관엔가에 짐을 풀고 조선호텔의 전화로 원산의 주인(이중섭)에게 장거리 전화를 넣었습니다. 마사꼬가 한국으로 왔다고---."[9]

조선호텔에 도착했지만 막연했다. 놀랍게도 소공동 거리에서 문화학원 동문 이정규(李禎奎 1916 이후-?)를 만났고, 그의 주선으로 원산에 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10]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야마모토 마사코의 음성은 천사의 목소리 바로 그것이었다. 원산에서 경성으로 한걸음에 달려갔다. 두려움도 없이 태연하게 이중섭을 기다리는 이 무서운 야마모토 마사코를 데리고 경성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4월 4일자로 조선 전역의 주요 도시에 소개령(疏開令)이 내려져 있었는데 미국, 소련과 같은 연합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모여 있지 말고 흩어지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선 급한 대로 연락이 닿은 최

---

7) 동경공습으로 동경시내 중심부는 초토화에 가까웠지만 미국은 폭격기에게 일본 왕이 있는 궁성폭격을 금지시켰다. .

8) 유준상, 〈이젠 모두 지나가버린 얘기니까 괜찮습니다.-이남덕 여사 인터뷰〉, 〈〈계간미술〉〉38호, 1986년 여름호. 43쪽.

9) 유준상, 〈이젠 모두 지나가버린 얘기니까 괜찮습니다.-이남덕 여사 인터뷰〉, 〈〈계간미술〉〉38호, 1986년 여름호. 43쪽.

10) 이활, 〈이중섭 연보〉, 〈〈이중섭의 사랑과 예술〉〉, 백미사, 1981. 274쪽.

재덕과 오장환에게 야마모토 마사코와의 사정을 이야기해주면서 어쩌면 조만간 결혼할거라고, 그 땐 꼭 원산으로 오라고 다짐한 뒤 원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5월의 신부

부관연락선 승객 승선금지를 4월 29일 일요일에 취했고 그 직전 임시연락선을 탔다고 했으니까 야마모토 마사코가 승선한 날은 대개 26일 목요일쯤이었을 것이다. 승선 이후 부산항을 거쳐 경성역에 도착하기까지 나흘가량 걸렸다고 했으므로 30일 월요일에는 경성 조선호텔 앞 어느 여관에 여장을 풀었다. 그리고 다음 날 5월 1일 야마모토 마사코의 여관에 도착한 이중섭은 경성의 몇몇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하루 가량을 더 묵었다.

"그래서 그이가 서울로 저를 데리러 왔지요. 그를 따라 원산으로 갔고" [11]

5월 2일 원산에 도착한 남녀는 부모형제와 상견례를 마친 뒤 혼수를 장만하고서 얼마 뒤에 식을 올렸다. 5월 20일 전후였을 그 결혼식에는 평양의 양명문이 "원산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기별이 왔다." 고 회고했듯이 그렇게 초청이 이뤄졌다.

"전쟁 중이라 모든 것이 부자유했다. 왕래도 순조롭지가 못했지만 나는 중섭의 결혼식에 참례하기 위해 원산으로 갔다. 서울서도 화가, 시인들이 5, 6명 왔다." [12]

경성에 머물던 화가 최재덕, 조각가 조규봉, 시인 오장환과 평양에 머물던 화가 길진섭, 시인 양명문이 와 주었다.[13] 이들이 올 수 있었던 까닭은 원산에서 〈〈북선매일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시인 구상의 발 빠른 연락이 있었던 때문이었다. 워낙 급하게 서두른 데다가 시국이 수상한 시절에 올리는 식이다 보니 연락이 잘 닿지 않았지만, 이만하면 그래도 제법 온 것이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평양의 문학수와 홍준명, 안기풍, 이쾌대가 오지 못한 것이었다.

모두들 이 조그만 일본인 여성을 신기한 눈길로 지켜보면서, 아름다운 신부의 휘황한 모습에 감탄하고, 목숨을 건 사랑의 여정을 마다하지 않은 신부의 용기에 감동해가면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된 두 남녀를 축복해 주었다.

---

11) 유준상, 〈이젠 모두 지나가버린 얘기니까 괜찮습니다.-이남덕 여사 인터뷰〉, 〈〈계간미술〉〉38호, 1986년 여름호. 43쪽.

12) 양명문, 〈〈무엇이든 사랑할만 하며〉〉, 샘터, 1988. 159쪽.

13) 고은, 〈〈이중섭 그 생애와 예술〉〉, 민음사, 1973. 81쪽.

"순 한국식 결혼식이었다. 나는 축혼시를 지어 낭독했다. –중략– 하객인 우리 일행은 약 일주일 동안 중섭의 집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 [14]

양명문의 〈축혼시〉 낭송을 끝으로 혼례식이 끝나고 이들 화가, 시인들이 날마다 술타령을 하고 보니 헌병이 조사를 나오긴 했지만 별다른 탈 없이 길고 긴 일주일의 피로연을 진행했다.

"중섭은 시종 순수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해 주었고, 그 무한히 부드러운 바리톤(baritone)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곡목은 늘 두 가지였다. 하나는 춘원(*이광수) 작사인 〈사자수(泗泚水)*낙화암〉였고, 다른 한 곡은 〈소나무야〉였다. 노래하는 포즈(pose)도 좀 수줍은 편이어서 앉아서 부르는 것이었는데, 오른편 볼에 오른 손길을 가볍게 펴 붙이고 부르는 것이었다. 어디서 그렇게 부드럽고 고운 노래가 나오는지 아마 중섭은 성악을 했어도 좋았을지 모른다." [15]

외지에서 온 손님들은 원산의 시인 구상, 김민갑(金民甲)과 더불어 원산의 화가 한상돈(韓相敦 1908–2003), 김충선(金忠善 1925–1994), 김인호(金仁浩), 장응식(張應植)과 인사들을 나누며 서로 구별 없는 만남으로 어울리고 있었다.

그런데 기왕의 기록 가운데 일본 여성과 조선 남성의 결혼이란 '내선일체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런 정치명제와 상반되었다'며 '결혼을 상상하는 일조차 추악하게 여겼다'는 내용이 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 증언은 "일본인이 한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한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한다는 것만큼 용서할 수 없는 패륜(悖倫)[16]이었다."는 사실을 전제한 것이다.

이런 비장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야마모토 마사코가 원산으로 조선인과 결혼을 위해 떠날 적에 그 아버지가 "교통공사에 부탁해서 차편을 겨우 얻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 결혼에 동참했다는 내용이다. 추악한 패륜 행위를 저지르려는, 그것도 공습과 어뢰로 말미암아 생사를 넘나드는 머나먼 길을 떠나는 딸을 막기는커녕 교통편을 마련해 주었다는 건, 무언가 다른 이야기다.

"저희 집안은 일본에선 드물게 보는 가톨릭(Catholic) 가정이었죠. 그래서인지 부친은 자유개방적인 일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경의 문화학원이라는 학교부터가 개인의 자율을 존중하는 개화풍의 학교였고, 제가 여기 입학한 것도 이런 집안분위기여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고리

---

14) 양명문, 〈〈무엇이든 사랑할만 하며〉〉, 샘터, 1988. 159쪽.

15) 양명문, 〈〈무엇이든 사랑할만 하며〉〉, 샘터, 1988. 159–160쪽.

16) 고은, 〈〈이중섭 그 생애와 예술〉〉, 민음사, 1973. 58쪽.

양(*이중섭)'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17]

일본 재벌 미쯔이(三井) 계열사의 취체역(取締役) 사장이었던 야마모토 마사코의 아버지로서는 조선인과의 결혼을 추악하다거나 패륜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막내딸 결혼식에 동석하지 못하는 부모의 안쓰러움만이 컸다. 큰 딸의 남편이 학병으로 출정했다가 전사하는 바람에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아 도리 없는 불참이었기 때문이다.

오월 화창한 봄날, 광석동의 넓은 집 마당에서 신랑은 사모관대, 신부는 족두리 차림으로 그 누군가가 멋지게 휘갈겨 쓴 서예 병풍을 배경삼아 나란히 섰다. 키가 큰 남편과 자그마한 몸집, 고운 눈매를 간직한 신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5월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족두리를 쓰는 조선식 혼례였습니다." [18]

(*산본방자에게 이남덕(李南德)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개명)
(*1946년 봄 첫째 아들 태어났으나 11월 디프테리아로 사망)
(*1947년 2월 9일, 둘째아들 이태현(李泰賢) 태어남)
(*1948년 8월 16일 셋째아들 이태성(李泰成) 태어남)
(*1950년 12월 6일 국방군과 함께 일가족 해군후송선 동방호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
(*1951년 1월 제주도 서귀포읍으로 이주, 12월 부산으로 귀환. 부산 범일동 판잣집 거주)

가족과의 이별

야마모토 마사코의 부친에게 네 딸이 있었는데 야마모토 마사코는 셋째였다. 시집 간 셋째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줄만큼 넉넉한 부친의 호의가 담긴 〈재산상속 통지서〉가 전해졌다. 이번 재산상속 통지서는 지난 번 1952년 2월의 사망통지서와 달리 딸인 야마모토 마사코에게 직접 전해졌다.

"몇 달 뒤 아버님의 유언(遺言)에 따라 저희들 네 딸에게 얼마간의 상속(相續)이 있으니, 당사자가 직접 법적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통지가 다시 왔어요." [19]

결국 이중섭도 사망 소식을 부인에게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고 모든 사실을 털어 놓을 수 밖에 없었

17) 유준상, 〈이젠 모두 지나가버린 얘기니까 괜찮습니다.-이남덕 여사 인터뷰〉, 《계간미술》38호, 1986년 여름호. 44쪽.
18) 유준상, 〈이젠 모두 지나가버린 얘기니까 괜찮습니다.-이남덕 여사 인터뷰〉, 《계간미술》38호, 1986년 여름호. 43쪽.
19) 야마모토 마사코, 유준상 대담, 〈이젠 모두 지나가버린 얘기니까 괜찮습니다.-이남덕 여사 인터뷰〉, 《계간미술》38호, 1986년 여름호. 51쪽.

던 것이다. 야마모토 마사코는 부친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뒤늦게나마 알았고 또 상속재산문제가 발생했으므로 귀국을 결심했다.[20]

"무모하게 피난지에 남아서 고생하는 것 보다는 일단 돌아가서 생활 질서를 재정비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저는 주인과 상의한 뒤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부산의 일본인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무모했던 시절이었다. 1950년 12월 원산을 떠나 제주, 부산까지 2년 6개월의 고생은 무모한 것이었다. 이 무모함을 청산하고 일본행을 결심 했을 때 일본인 신분인 야마모토 마사코에겐 '송환'이었으므로 제약이 없었지만, 대한민국 국민 이중섭은 '출국'이었으니까 예전의 도항(渡航)이 아니라 국가 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여권발급이 필요했다. 〈전말서〉를 제출하고 또 수소문 해보았지만 서울대학교 교수 장발, 이화여대 교수 심형구가 초청장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이중섭으로서는 여권발급을 통한 출국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야마모토 마사코는 1952년 7월 어느 날 두 아들과 함께 일본인 수용소에 입소했다. 승선을 앞두고 양명문은 이중섭 부부를 초대해 이별의 자리를 마련했다.

"나는 부산 국제시장 안에 있던 냉면집에서 중섭의 가족을 위한 송별 오찬으로 냉면을 대접했다."[21]

33살의 야마모토 마사코와 6살 이태현(李泰賢), 4살 이태성(李泰成)은 제3차 송환선이 출발할 때를 기다려 승선했다.

"7월 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었고 부두에 주인과 양명문 선생 그리고 영진 도련님이 전송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가엾은 주인을, 의지할 데 없는 그 사람을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전쟁터에 외톨이로 남겨둔다는 게---"[22]

부두에 전송 나온 이중섭은 송환선을 바라보면서 저 원산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 떠올리며, 야마모토 마사코에겐 동경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 생각하라며, 6.25전쟁 발발 직후 피난 갔던 저 함경남도 안변지역 민요 〈연모요(戀母謠)〉를 부르고 또 불렀다.

---

20) 야마모토 마사코, 유준상 대담, 〈이젠 모두 지나가버린 얘기니까 괜찮습니다.-이남덕 여사 인터뷰〉, 〈〈계간미술〉〉38호, 1986년 여름호, 51쪽.

21) 양명문, 〈〈무엇이든 사랑할만 하며〉〉, 샘터, 1988, 164쪽.

22) 야마모토 마사코, 유준상 대담, 〈이젠 모두 지나가버린 얘기니까 괜찮습니다.-이남덕 여사 인터뷰〉, 〈〈계간미술〉〉38호, 1986년 여름호, 51쪽.

다복다복 다복녀야
물에 등등 방울네야
네 어데로 울며 가니
내 어머니 몸진 골로
젖 먹으러 울며 가네

(*1953년 7월말 출국 6일간 동경에 머물다가 8월초 귀국)

(*1955년 7월 초순 대구 성가병원(聖家病院) 입원 이후 동경으로 보내는 편지 중단, 12월 중순 서울 성베드로신경정신과병원에서 마지막 편지 〈나의 소중한 남덕군!〉 발송)

(*1957년 9월 동경 PEN대회 구상이 뼈 일부를 부인에게 전달)

나혜석과 최린 파리의 '자유인'

이 용 창 (민족문제연구소)

나혜석과 최린, 파리의 '자유인'[1)]

이 용 창 (민족문제연구소)

1. 머리말

나혜석(羅蕙錫, 1896~1948)과 최린(崔麟, 1878~1958)은 1927년 후반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1928년 초까지 3개월 가까이 관계를 이어갔다. 당시 파리 유학생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매우 깊은 관계로 알려져 있었고, 나혜석은 1934년의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에서 최린과의 관계를 상세하게 밝혔다. 그런데 정작 '스캔들'의 당사자였던 최린이 어떻게 소송에 대응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나혜석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남편 김우영(金雨英, 1886~1958)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혜석의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되기 4년 전인 1930년에 나혜석이 이혼했던 직접적인 이유가 최린의 '정조유린' 및 '책임회피'라는 내용이 공개적으로 밝혀졌는데도 사회적으로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나혜석이 밝힌 최린과의 관계 중 일부가 과장된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스캔들'의 하나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여겼던 것일까?

미혼의 나혜석은 10살 연상이자 상처해 아이가 있는 김우영의 구애를 받고 고민하다가 자신의 정신적 · 육체적, 그리고 사회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했다. 1920년 4월 결혼 당시의 김우영은 경성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엘리트였다. 최린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두 번 결혼한 것으로 추정된다. 13세 때 밀양박씨와 결혼해 두 아들이 있었으며, 1927년 파리에서 나혜석을 만날 당시의 부인은 천도교인 김우경(金又卿)이었다. 최린은 나혜석보다 18세 연상이었으며, 천도교단의 중심인물이자 사회적으로도 잘 알려진 저명인이었다.

2. 만남 이전의 나혜석과 최린

나 혜 석		최 린	
날짜	행적	날짜	행적
1896.04.28. (04.18–학적부)	수원군 수원면 신풍리에서 나주나씨 기정과 수성최씨 시의의 5남매 중 넷째로 출생. 초명 아기[阿只]–明順–혜석. 호 晶月	1878.01.25	함남 함흥부 중하리에서 덕언과 김씨의 외아들로 출생. 호 古友. 아명 김바우[金岩]. 도호 如菴. 10대 중반까지 서당에서 한학 공부

1) 이 글은 필자가 『나혜석 연구』 제2집(2013.6, 나혜석학회)에 「나혜석과 최린, 파리의 '자유인'」으로 발표한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1906~1910	동생 지석과 함께 수원 삼일여고 입학, 1회 졸업	1890(13세)	함흥부 덕산면 밀양박씨와 결혼, 2남
1910.09~1913.03	지석과 함께 진명여고보 입학, 졸업	1902.전후	'활빈당', '一心會' 참여
1913.04	도쿄사립여자미술학교 서양학과 選科 보통과 입학, 기숙사 생활	1902.03~07	'일심회' 사건 관련 일본 오사카로 망명, 귀국
1914.여름	부친의 결혼강요 거부, 작은오빠 경석의 친구 최승구와 열애	1904.10	우수한 성적으로 '황실특파유학생' 선발(50명), 일본 유학
1915.01	부친의 결혼강요로 귀국, 여주공립보통학교 교사(1년간)	1904.11.02	조용은(조소앙) · 최남선 등 44명과 도쿄부립제일중학교 입학. '동맹휴교' 주도와 퇴학
1916.03	도쿄사립여자미술학교 서양화과 고등사범과 1학년 복학–이승구 사망, 이광수와 교제	1906.09~1909.09	메이지대학 법률과 입학, 졸업, 귀국
1916.여름	김우영(교토제국대학 법학부 졸업)을 만남		대한유학생회 부회장 · 회장 · 번역원, 광무학회 창립위원, 태극학회 평의원, 대한학회 회장 · 평의원, 대한흥학회 부회장 · 평의장
1917.10	도쿄여자유학생친목회 총무 선임, 기관지 『女子界』 편집부원	1906.10~1907.03	'국화인형전시장 사건'과 '와세다대학 모의국회 사건' 주도
1917.12	도쿄 한인교회에서 세계	1910.10.23	손병희 방문, 천도교 입교(10.25)
1918.03	도쿄사립여자미술학교 졸업	1910.12.21	천도교단의 보성학교 인수에 앞장. 보성중학교 교장대리
1918.04~08	귀국, 모교인 진명여고보 교원	1911.03~1913.04	보성전문 강사(법률학), 중등학교 강사(논리학)
1919.03	3 · 1운동의 전국 확산계획 모의, 자금모금과 조직 동원을 위해 개성 · 평양 방문	1919.03~1921.12	'민족대표 33인'. 3년형 언도, 가출옥
1919.03.08	이화학당 만세사건(3.5) 관련자로 검거, 5개월간 옥고, 증거불충분으로 방면(8.4). 1년간 정신여고보 미술교사로 근무	1919~	천도교단의 분규–혁신파(신파 · 민족주의우파) 對 비혁신(구파 · 민족주의좌파)
1920.03	청탑회 조직, 『新女子』 창간	1922.01~03	천도교중앙총부 서무과 · 교육과 주임
1920.04.10	김우영과 결혼(1930.11.20.이혼), 『폐허』 동인 참여 등 문필활동, 개인전 개최 등 활발한 활동	1922.09~1926	천도교중앙종리원 종리사, 포덕과 주임, 중앙종리원(신파) 종법사
1921.09~1927.05	만주 안둥현주재 부영사로 부임하는 김우영과 함께 이사. 여자야학 설립, 고려미술회 발기동인, 강연회, 집필, 출품 및 입상. '黃玉사건'[의열단사건(1923.3)]에 연루, 귀국	1926.10~1927.06	일본 도쿄제국대학에서 8개월여 치료
1927.06~1929.03	세계일주(서울→만주→모스크바→베를린→파리, 유럽→미국→하와이→일본→부산	1927.06~1928.04	구미시찰(일본→하와이→미국→유럽→소련→몽골→중국→압록강 · 신의주→서울

3. 나혜석의 '세계여행'과 파리

나혜석은 1927년 6월 남편 김우영과 함께 세계일주 여행을 떠나 1929년 3월 부산으로 돌아왔다. 1년 9개월여에 걸친 여행일정은 (1) 부산에서 만주, 하얼빈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모스크바로 출발하는 기간, (2) 모스크바에서 유럽에 도착해 머무는 기간, (3)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귀국하는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1927년 7월 파리에 도착해 이곳을 거점으로 유럽 각국을 돌아보고 미국으로 건너간 1928년 9월까지이다.

(1) 부산진역 출발(6.19), 대구 → 수원 → 서울 도착(6.21) → 서울 출발(6.22) → 곽산역에서 동생 지석 만남 → 안동현(5일 체류)을 거쳐 펑톈(奉天)에서 작은오빠 경석 내외 만남 → 장춘 → 하얼빈(6일 체류) → 만주리 도착(7.6) → 모스크바에서 3일

(2) 모스크바 → 폴란드 바르샤바 → 베를린 통과(7.18) → 파리 도착(7.19) →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체류(7.27~8.12): 총독 사이토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8.2), 영친왕이 초대한 만찬에 참석(8.3), 군축회의 방청(8.4) → 스위스 · 네덜란드를 거쳐 파리 도착(8.14) → 벨기에 브뤼셀로 가서 여행(8.24) → (파리에서 혼자 지내다가) 독일 베를린으로 가서 3개월 전 먼저 가 있던 김우영을 만남(12.20) → 파리로 돌아감(1928.1.4) → 파리에 체류하면서 이탈리아 여행(3.23) →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 김우영을 만남(7.1) → 파리로 돌아감(8.15) → 스페인으로 가서 5일간 여행(8.25) → 파리에 도착해 귀국 준비 중 미국으로 출발(9.17)

(3) 뉴욕항 도착(9.23) → 뉴욕을 둘러보고 출발(1.12) → 3개월 동안 나이아가라 · 시카고 · 그랜드캐니언 · 로스앤젤레스 등지 여행 → 샌프란시스코 도착(1929.2) → (하와이) → 일본 요코하마(橫濱) 도착(3.3) → 도쿄에서 7일을 보내고 출발(3.10) → 부산 동래 도착(3.12)

나혜석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접고 김우영과 함께 '세계여행'을 결심했다. 여러 곳에서 밝힌 여행의 목적은 ①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②남녀 간 어떻게 살아야 평화스럽게 살까, ③여자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④그림의 요점은 무엇인가 등 4가지였다.

유럽 도착 후 체류 일정의 중심은 프랑스 파리였다. 나혜석은 파리를 거점으로 스위스 · 네덜란드 · 벨기에 · 독일 · 이탈리아 · 영국 · 스페인 등지를 오가며 지내다가 1928년 9월 미국으로 출발했다. 그러니까 나혜석은 1927년 7월 중순부터 1928년 9월 중순까지 1년여 이상을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을 여행한 것이다.

나혜석은 귀국 후 여러 곳에 세계여행 관련 기행문을 발표했다. 특히 파리를 중심으로 둘러 본 유럽 각 국을 소개했는데 동양(여자)과 다른 서양(여자)의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생활상, 깨어있는 여성('신여성')들의 역할과 지위에 주목하였다. 나혜석은 여전히 봉건적 질서에 얽매인 한국의 여성들도 유럽의 (신)여성들처럼 '성적 자유'와 '경제적 자립', 예술적인 재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파리에서 최린과의 만남이나 이후의 관계도 전통적인 부정의 관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귀국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기혼녀라는 현실에 직면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혼(1930.11) 직후에는 친구와 가족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점차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적인 성공과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물론 이후에는 사회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1934.9)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최린과 맺었던 관계를 소중한 중년기의 사랑이었으며, 자기처럼 최린도 그랬을 것이라고 묘사했다.

나혜석이 최린과의 깊은 관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혼 후였다. 특히 실명으로 최린과의 관계를 밝힌 것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였고, 같은 시기에 쓴 『이혼고백장』에 영문이니셜 'C'로 등장한다. 또 1년이 더 지난 시기에 발표한 『파리의 그 여자』에는 영문이니셜 'C'와 'J'로 최린을 등장시켜 낭만적이고 아쉬운 사랑이었음을 짧게 언급하기도 했다. 이마저도 이것이 다였다. '스캔들'의 상대였던 최린이나, 남편이었던 김우영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4. 최린의 '구미시찰'과 친일 노선

최린은 3 · 1운동 관계로 3년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 경성일보 사장이자 총독부의 자문 역할을 하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의 주선으로 1921년 12월 가출옥하였다.

– 최린을 이용한 민족운동의 분열책 시도 : 일제의 종교를 통한 민족분열정책

– 천도교단의 분열과 구파(민족주의좌파 계열)와 신파(민족주의우파, 자치운동계열)의 대립

최린은 1922년 1월부터 3월까지 천도교단의 서무과 · 교육과 주임을, 9월부터 1924년까지 종리사로 포덕과 주임(1923.5~)을, 1925년부터 종법사를 역임하면서 교단 내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떠올랐다. 천도교단에서 세력기반을 쌓은 최린은 일본을 거쳐 10월 17일(음력 9월) 구미시찰을 떠나 1928년 4월 1일 서울로 돌아왔다.

○ 구미시찰에 앞서 일본에 가게 된 경위와 일정 : ① 『여암문집』에 의하면 여권 발급을 위해 총독 사이토를 만나기도 하고, 도쿄로 건너가 외무성에 부탁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다가 귀족원 의원 사가타니 요시로(坂谷芳郎) 등의 도움으로 간신히 여권을 얻어 9월 9일 서울 출발, 부산→시모노세키(下關)→도쿄 도착, 수개월을 지내다가 요코하마(橫濱) 출발~

② (이래 일정표) 위장병 치료를 위해 10월 17일 일본으로 가 8개월여 동안 도쿄제국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요코하마 출발~

○ 세계 유람은 오랜 바람 : ①조선을 떠나서 조선을 보고, ②약소민족의 정치적 동향, ③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대조, ④재외 동포의 동태, ⑤일본의 국제적 지위 등을 살피기 위한 것

최린의 구미시찰을 꺼려하던 사이토나 일본 외무성도 "최린과 같은 배일(排日) 불평가를 외국에 보

내어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견문시키는 것이 도리어 의미가 있다"는 사가타니 등의 교섭에 동의해 성사될 수 있었다. 결국 최린의 구미시찰은 자신이 키워 온 꿈에 더해 자치운동에 대한 "재외 민족주의자의 후원과 양해를 얻기 위한"것이었고, 특히 그 배후에는 아베 등 총독부 측의 계획된 준비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서울 · 부산 출발(1926.10.17) → 일본에서 미국으로 출발(1927.6.11) → 하와이 호놀룰루(6.21) → 미국 체류(6.30~) → 영국(9월 초~) → 아일랜드(9.20~9월 말 또는 10월 초) → **프랑스**: ①차: 10.10일경 파리 도착~12.8[☞벨기에 브뤼셀로 감], ②차: 12.14~1928.1.10[☞스위스 제네바로 감] → 벨기에(12.8~): 12.09~12.11. 오후 2시 맨션 프래망드에서 열린 반제국주의국제연맹회의(약소민족대회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석해 김법린의 통역으로 연설 → 네덜란드(12.12~12.14)[☞프랑스(②)로 감] → 스위스(1928.1.10.~1.13) → 이탈리아(1.13~1.18) → 유고슬라비아(1.18~1.19) → 오스트리아(1.20~1.21) → 체코슬로바키아(1.21~1.22) → 독일: ①차: 1.22~1.29[☞덴마크로 감], ②차: 2.3~3.6[☞폴란드로 감] → 덴마크(1.29~2.1) → 핀란드(2.1) → 스웨덴(2.1~)[☞독일(②)로 감] → 폴란드(3.7) → 소련(3.8~3.20) → 몽골(3.27) → 중국(3.28~3.30): 하얼빈, 長春 → 귀국(3.31~4.1): 압록강(3.31), 신의주, 개성, 서울(4.1)

1928년 4월 3일 성대한 환영식을 치른 후 한동안 외부와의 교섭을 자제하면서 한편으로는 "장래 조선민족의 진로는 자치의 한 방향을 두는 외에 선택할 길이 없다고 깊이 결의하여 은밀히 재료를 모집하고 동지를 규합"하였다. 이해 12월 30일 중앙집권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규제인 천약(天約)을 통과시키고 도령(道領. 부도령 정광조)에 취임하였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천도교에서 자신의 독재적 입지를 강화하고 이를 이용해 자치운동에 진력하였다.

5. 파리의 만남, 두 갈래의 운명

나혜석이 최린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큰오빠 홍석(弘錫, 1888~1936)을 통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2] 나홍석은 1907년 9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909년 7월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를 졸업하고 귀국했다. 일본 유학 중 대한유학생회 번역원, 대한학회 회원, 대한흥학회 서기원 등을 지냈다. 같은 시기 최린도 대한유학생회에서 회장 · 번역원을, 대한흥학회에서 부회장을 지냈으며, 같은 달 메이지대학을 졸업하고 9월에 귀국했다.

두 사람이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는지, 귀국 후의 관계는 어땠는지 등은 알 수 없지만 『왜정시대 인물사료』의 「나홍석」 항목에 교유하는 인물로 최린 등 6명이라고 하였다.

---

2) 나혜석은 최린의 명성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처음 대면한 것은 파리가 처음이었다고 밝혔다(羅蕙錫, 「離婚告白狀-靑邱氏에게-」, 『三千里』 제6권 제8호(1934.8), 91쪽).

나혜석의 정신적 지주였던 작은오빠 나경석도 대한학회와 대한흥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형 홍석과 함께 대한학회 회원이었으며, 최린은 두 학회에서 각각 회장, 평의장을 지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친분이 있었을 것이다. 나경석은 1910년 4월에 대한흥학회 서기원 및 교육부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우영은 일본 유학중이던 1918년 겨울에 잠시 귀국해 김성수 · 송진우 · 정노식 · 최남선 · 이갑성 등을 만나 여러 종교를 아우르는 "커다란 운동이라도 일으킬 것을 계획"하고 최린을 방문해 자신의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평소 친형제같이 지낸' 사이로, 파리에 있을 때 김우영이 최린에게 나혜석을 보호해 주도록 부탁할 만큼 가까웠으며, 독일에서는 함께 여행도 했다.

나혜석과 두 오빠, 김우영은 각각 최린과 친분을 맺고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나혜석 · 김우영과 최린의 관계는 1927년 중반을 전후로 프랑스 파리로 이어졌다.

나혜석은 최린보다 3개월여 앞서 파리에 도착했다. 두 사람이 파리에 머문 시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기간(파리)		나혜석의 행적	체류일자
①	1927.07.19~07.27	파리 도착 및 체류, 제네바로 갔다가 스위스 · 네덜란드 여행	1주일여
②	1927.08.14~12.20	파리를 중심으로 벨기에 여행, 독일로 가서 김우영과 지냄	4개월여
③	1928.01.04~07.01	파리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여행, 영국으로 가서 김우영과 지냄	6개월여
④	1928.08.15~09.17	파리를 중심으로 스페인 여행, 미국으로 출발	1개월여
		총 340여 일(11개월 7일)	

기간(파리)		최린의 행적	체류일자
①	1927.10.10~12.08	파리 도착 및 체류, 벨기에 · 네덜란드 여행 후 다시 파리로 감	2개월여
②	1927.12.14~ 1928.01.10	파리 관광, 연말을 보내고 스위스로 감	25일
		총 85일(2개월 25일)	

비고: 최린은 1928년 2월 3일~3월 6일까지 독일을 여행했다(독일 ②차). 이중 2월 11일 오전 퀼른시에서 공진항과 함께 나혜석을 만났다. 이들의 교제가 매우 깊었음을 짐작케 한다.

나혜석과 최린이 '파리'라는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기간은 1927년 10월 10일~12월 8일의 60여 일, 12월 14일~12월 20일의 7일, 1928년 1월 4일~1월 10일의 7일, 총 75일, 2개월 15일 정도였다.

나혜석 · 김우영 부부는 제네바 군축회의를 방청하고 네덜란드를 여행한 후 파리로 돌아가 1개월여를 함께 지내다가 김우영은 3개월 먼저 독일로 갔다. 나혜석은 파리에 체류하면서 시내에 있는 야수

파 화가 로제 비시에르(Roger Bissier, 1888~1964)가 지도하는 아카데미 랑송(Academie Ranson)에 다니면서 미술수업을 받았다. 그러다가 12월 말 독일로 갈 때까지 3개월을 파리에서 25분 거리의 근교에 있는 '살레'의 집에서 지냈다.[3)]

나혜석과 최린이 파리에서 처음 만난 날짜는 언제일까?

○ 나혜석이 처음 살레의 집을 방문할 때 최린과 통역 3명이었다고 했으므로, 그 시기는 최린이 파리에 도착한 10월 10일 이후가 된다.

○ 최린 자신의 회고에는 두 차례 살레의 집을 방문했다. ① 10월 27일, ② 11월 11일(세계대전 휴전조약 조인의 날 기념일)에 초대를 받아 여러 친구들과 조선사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파리시절의 회고를 남긴 화가 이종우(李鍾禹, 1899~1979, 호 雪蕉)는 파리에 온 나혜석과 6개월가량 함께 지냈는데, 최린이 **파리에 도착한 후** 어느 때인가 자신의 방에서 재불(在佛)학생 10여 명과 함께 환영회를 열었으며,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고 회고하였다.[4)]

세 가지를 정리하면 나혜석과 최린은 10월 10일 이후 이종우의 집에서 처음 만나 10월 27일에 함께 살레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워져 최린은 프랑스 등지에서 통역을 담당하던 공진항(孔鎭恒)도 제쳐놓고 나혜석을 만났는데, 당시 유학생들 사이에서 '나혜석은 최린의 작은댁'으로 불릴 정도였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 만났든지 간에 두 사람은 파리에서 이종우의 집 또는 살레의 집을 매개로 만났으며, 나혜석이 12월 말 독일로 가서 김우영을 만날 때까지 2개월, 이후의 15일 동안 파리에서 최린과 '밀월'을 보낸 것이다.

도쿄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한국을 대표하는 남녀 서양화가인 나혜석과 이종우, 친한(親韓) 프랑스인이자 인권운동가인 샬레와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지도자 최린, 이들은 함께 만나 의기를 투합할 만큼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고, 나혜석과 최린이 가까워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나혜석이 최린과의 관계를 처음 언급한 것은 귀국 직후인 1929년 7월 3일 「별건곤」의 기자와 가졌던 인터뷰였다. 나혜석은 구체적인 관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파리에서 만난 한국사람 중 특히 최린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전부터 개인적으로나 남편 김우영을 통해서도 최린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회적인 명망이 상당한

---

3) 이곳에 머물면서 경험한 프랑스가정의 생활경험은 귀국 후 「구미(歐米) 시찰기: 불란서 가정은 얼마나 다를가(가~바)」, 『동아일보』(1930.3.28~4.2)에 6회 연재되었다. 펠리시앙 로베르 샬레(Felicien Robert CHALLAYE, 1875~?)는 1921년 6월 창립된 '한국친우회' 사무총장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한민족을 옹호하고,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 발전에 협력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다. 프랑스인권옹호회 회장이기도 한 살레는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인으로 한국사정에 제일 밝았으며, 최린을 친구처럼 대하면서 프랑스 상하원의 대의사(代議士), 대정치가, 대학자 등을 소개해 주었고, 이들을 통해 최린이 벨기에 약소민족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4) 이종우, 「양화초기」, 『中央日報』, 1971.8.28(http://joongang.joinsmsn.com/). 이종우는 1927년 7월 19일 나혜석 · 김우영이 처음 파리에 도착했을 때 안재학(安在鶴)과 함께 부부를 마중했다. 이종우는 대략 1928년 11월 이전에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혜석이 파리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인물이라는 것, 특히 유럽에서 최린의 행적이나 평판이 매우 컸다는 등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최린을 투영시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다가 나혜석이 최린과 파리에서 함께 했던 '밀애'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김우영과의 관계도 악화되면서 실명이 아닌 영문이니셜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최린의 실명은 1934년 9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소하면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거론되었다. 이 소송의 소장에 최린은 '정조를 유린한 파렴치한'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것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완규(蘇完奎)의 의도적인 표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월 19일자로 경성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묘사된 최린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김우영은 친형제처럼 지내던 최린에게 나혜석의 보호를 부탁하고 독일로 갔으며, 최린은 여행을 다니면서 나혜석을 유혹했지만 나혜석은 믿는 선생이자 지도자로 여겼다.
② 1927년 11월 20일 최린의 요청으로 '에로틱'한 오페라를 관람했고, 오페라가 끝난 후 나혜석의 숙소인 '셀렉트호텔'로 따라가 강압으로 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수십 차례 정조를 유린했다.
③ 귀국해 나혜석이 이혼위기에 처하자 이광수를 매개로 보호를 약속했지만, 이혼 후에는 경제적 · 정신적으로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다.
④ 1934년 4월에 프랑스 유학을 가기 위해 여비 1000원을 청구했으나 거절하였다.
⑤ 최린은 상대방의 믿음을 빌미로 고의로 정조를 유린하고도 책임을 회피해 나혜석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이와 함께 위자료 1만 2000원을 청구했는데, 당시 금값을 감안해 현재의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6000~7000만 원 가량이 된다.

소장에 제기된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이겠지만, 어느 부분은 일방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먼저 소장의 핵심 중 하나는 저명한 인물이자 남편과 친분이 있던 최린이 강제로 정조를 유린했으며, 이혼 당시나 그 이후에도 도와주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이었겠지만, 최린과 나혜석이 같은 '사랑'의 감정을 간직하고 있었을까? 서로 다른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 '책임회피'라는 것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소장에서 밝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더라도 나혜석과의 관계가 실재했던 것이므로 최린은 나혜석과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다 더 궁금한 것은 이 사건을 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

소송관련 기사는 같은 날짜의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소송관련 기사만, 그것도 보도 이전이 아니라 이미 보도된 후 총독부 측의 차압기사에 포함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여기까지였고, 나혜석과 최린의 '스캔들'은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린은 1934년 4월 칙임관 대우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었고, 이 시점에 최린 개인뿐만 아니라 신파로 대표되는 천도교단은 친일노선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즉 조선총독부는 종교 · 정치 · 사회적으로 명망 있던 최린의 '불륜 스캔들'을 빌미로 삼아 거취를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빌미로 최린 등의 친일 노선이 불거지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언론을 통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이 어찌되었던지, 누구의 잘못과 책임이었던지,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알려질 만큼 알려져 있었고, 나혜석이 이혼한 지도 4년여가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더 이상 세인의 관심꺼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위 소장에는 없지만 이후 나혜석이 글에서 밝힌 최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다. 서로 다른 감정을 느꼈을지라도 나혜석은 최린을 영문이니셜 'C'와 'J'로 등장시켜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사랑도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나혜석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1년 후인 1935년 11월호 『삼천리』에 발표한 희곡 「파리의 그 여자」에서 최린을 'C' 또는 'J'로 묘사하면서 '자유로운 중년기 사랑의 좋은 추억'으로 묘사했기 때문이다. 또 "그녀 B"로 등장하는 나혜석은 최린의 말을 빌려 "B를 1년만 더 파리나 런던에 두고 공부시키려고 A(남편 김우영을 말함-필자 주)에게 권"해서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는 자신의 바람도 밝혔다.

최린의 강압적인 '정조유린'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지속되었고, 귀국 후 '책임회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했지만, 정작 이후 발표한 글에서 최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서로 교감하는 매우 깊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일방적이 아니라 교감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나혜석의 '사랑'의 감정은 위자료 청구소송 이후 발표한 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1935년 1월호 『삼천리』에 자신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파리로 가서 죽겠다는 심경을 밝힌 것이다.

가자 파리로 살러 가지 말고 죽으러 가자. 나를 죽인 곳은 파리다. 나를 정말 여성으로 만들어 준 곳도 파리다. 나는 파리 가 죽으련다. …… 내가 있는 것은 해독물이 될지언정 이로운 물(物)이 되기 어렵다. 나는 수중에 ××원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이것이 분풀이의 결실이라 하더라도 내게도 그다지 상쾌한 일이 되지 못하거니와 C의 마음은 오직 했으랴. 「나는 나는 이것을 가지고 파리로 가련다. 살러 가지 않고 죽으러」

위자료 청구소송의 과정이나 결말이 흐지부지 된 것으로 볼 때 액수는 알 수 없지만 금전적인 합의가 이뤄져 나혜석은 파리로 갈 정도의 돈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나혜석은 소송과 이후의 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편치 않았을 최린의 심경까지 헤아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파리로 가지 못한 채 최린과의 관계는 '자유로운 중년

기 사랑의 좋은 추억'으로 만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혜석은 21세 때인 1916년 김우영을 처음 만나 구애를 받으면서도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결혼을 미뤘다.[5] '사랑' 그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자유'를 누리면서 부부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김우영과 결혼하면서 ①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 ②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③시어머니와 전실(前室) 딸과는 별거할 것, 3가지를 약속받았지만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김우영의 직업상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불안정한 생활, 그러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당함', 겉보기와는 달리 여유롭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 등은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커지는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신경쇠약이 깊어졌다. 그렇기에 파리에서 최린에게 '사랑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잠시만의 외도를 통해서라도('정조는 취미')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자유연애'와 '시험결혼' 등이 논의되면서 이것이 일부 청춘남녀 사이에 '묵인'되기는 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기혼 여성으로서 최린과의 관계에 대한 '변명'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나혜석 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나혜석은 세계여행에서 귀국(1929.3)한 후 부산에서 아이 셋과 시댁식구를 모시는 힘겨운 생활을 하면서 최린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그러나 이 편지가 두 사람이 결합하려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헤어날 수 없는 오해와 갈등이 빚어졌다. 김우영은 나혜석의 부정함을 비난하면서 이혼하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고, 나혜석은 남자의 정조는 지키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남편과 이를 방관하면서 심지어 결말을 궁금해 하는 주변을 혐오하고, 이러한 불합리함이 존재하는 사회제도와 인습을 비난했다. 나혜석은 당시의 심경을 "자기의 행복은 자기밖에 모르는 동시에 자기의 불행도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라고 한탄하였다.[6]

별거 형식의 이혼장에 도장을 찍은 나혜석은 1930년 11월 말에 작은오빠 경석과 함께 펑톈으로 가서 지냈다. 그러다가 김우영의 재혼 소식을 듣고 서울로 가서 이혼의 결심을 굳히고 부산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본 후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경제적 궁핍과 외로움에 괴로워하면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작품 활동을 위해 금강산으로 갔다가 아베와 박희도(朴熙道)를 만난 인연으로 북청→혜산진→압록강 상류를 함께 여행했다. 두 사람과 헤어진 후 펑톈으로 가서 미술전람회를 열고 다롄(大連)을 거쳐 서울로 갔다가 대구에서 다시 아베를 만나 잠시 동행했으며, 이들과 헤어져 동래를 거쳐 부산에서 도쿄로 건너갔다.

---

5) 羅蕙錫, 「離婚告白狀-靑邱氏에게-」, 『三千里』 제6권 제8호(1934.8), 88~89쪽 ; 羅蕙錫, 「離婚告白書(續)-靑邱氏에게(1934.8)-」, 『三千里』 제6권 제9호(1934.9), 84~94쪽. 두 개의 '이혼고백장'은 모두 위자료 청구소송 1개월 전인 1934년 8월에 쓴 것이다.

6) 나혜석의 심경은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

1931년 9월 열린 제12회 제국미술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해 도쿄역에 도착한 나혜석은 자신을 마중 나온 최린을 보고 놀랐으며, 최린 또한 "의외에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최린은 1931년 4~5월경 신병치료 명목으로 도쿄로 건너가 머물고 있었다.[7] 나혜석의 표현이 사실이라면 최린도 누군가의 부탁으로 도쿄역에 나왔다가 나혜석을 만나 놀란 것이 분명하다.

나혜석과 최린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인물 중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로는 아베가 유력하다. 이 시기 최린이 일본에 머무는 목적 중의 하나는 자치청원운동을 위한 것이었고, 그 배후는 총독 사이토와 참모 아베였기 때문이다. 나혜석도 이혼 후의 방황 속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게 정신적·물질적으로 도와 준 은인으로 아베를 꼽을 정도였다.

이혼 후 나혜석은 여행과 작품 활동에 몰두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제국미술전람회에 출품한 「정원(庭園)」이 입선하면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나혜석은 출품과 입선, 무엇보다 작품 활동을 직업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러한 성공을 맛보면서 나혜석은 "자기 내심에 자기도 모르는 정말 자기가 있는 것"을 발견함으로써,[8] 파리에서 지낸 시간과 공간의 '자유'는 나머지 고통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9]

6. 맺음말

나혜석이 경험한 1920년대의 유럽은 여성참정권운동의 해방구였다. 특히 여성성이 인정받는 프랑스 지식인 중산층 가정생활의 경험은 '여성' 자체가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남성과 다른 '성차'를 지닌 여성에 대한 고유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품게 하였다. 모성에 호소하는 출산장려운동과 정치적 권리획득을 위한 여성참정권운동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성적 자유와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며 소비문화의 주체로 떠오른 신여성이 등장한 것이다. 당시 프랑스(파리) 관련 여행기가 많이 소개된 것도 이러한 영향이었을 것이다.

나혜석은 파리에서 최린을 만나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큰 잘못을 했다거나 죄악으로 여기지 않았다. 두 번 뿐이지만 파리에서 만난 최린과의 관계를 실명으로 밝혔고, 「이혼고백장」이나 희곡 등에 영문이니셜 'C' 또는 'J'로 등장시키는 등 '스캔들'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나혜석이 묘사한 '사랑'의 감정이 최린과 교감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위자료 청구소송(1934.9) 당시와 이후의 글에 표현되는 최린에 대한 감정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소장에는 '정조유린'과 '책임회피'를 강조했지만, 이후 「신생활에 들면서」(1935.1), 「파리의 그 여자」(1935.11) 등에서는 최린과 교감했던 '사랑'의 감정을 묘사했다.

---

7) 최린은 자치청원운동을 위해 일본에 건너갔지만 명목상으로는 신병치료를 내세웠다. 12월 1일 귀국했다.

8) 羅蕙錫, 「나를 잇지 안는 幸福(帝展入選後 感想, 1931.10.15. 於東京)」, 『三千里』 제3권 제11호(1931.11), 40~41쪽.

9) 「아아 自由의 巴里가 그리워, 歐米 漫遊하고 온 後의 나」, 『三千里』 제4권 제1호(1932.1), 43~46쪽.

한편 최린은 어떤 글에도 나혜석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책임'을 강요받지도 않았다. 고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후에도 '여자 나혜석' 개인의 부끄러운 행위로 여겨졌던 것 같다. 최린의 지위로 볼 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스스로의 입장을 밝힌 적도 없었다.

'기혼녀 나혜석' 만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관계를 '비난' 받았고, 이로 인한 '책임'도 떠안았다. 그러면서도 굳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3 · 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른 후에도 적극적인 '독립 · 민족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조를 지키며 글을 통해 나라 잃은 지식인의 고뇌와 분노, 저항을 표현하였다. 반면에 최린은 3 · 1운동 관계로 투옥되었다가 가석방된 후 천도교단을 장악하는 한편 자치운동의 분위기를 탐색하다가, '구미시찰'에서 돌아온 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나섰다. 친일의 정도는 다르지만 남편이었던 김우영이나 큰오빠 나홍석도 최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혜석은 '인간'으로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이를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남성과의 '사랑'을 인정하는 사회가 오기를 바랐을 것이다.

李箱과 여성들, 그 욕망과 공포의 기록

장 용 경 (국사편찬위원회)

李箱과 여성들, 그 욕망과 공포의 기록

장 용 경 (국사편찬위원회)

1. 왜 '이상과 여성들'인가?
2. 연보
3. 인물평
4. 이상의 여인들
1) 금홍이
2) 권순옥
3) 변동림
5. 이상에게 있어 여성의 의미와 '정조'라는 공포

1. 왜 '이상과 여성들'인가?

- 이상이라는 인물과 이상의 연애・결혼 그 자체가 근대사에서 문제적임
- 이상 소설의 대부분은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파생되었고 그 관계를 문제 삼음
- 이상의 여성과의 관계 – 절름발이–가 남녀관계의 변화에 대한 징후이자, 그 변화에 대한 남성들 반응의 일종(19세기식, 20세기 도덕)

2. 연보

1) 1910–1928년

- 1910년 9월 23일 출생
  - 경성부 북부 순화방 반정동 4통 6호(現 종로구 사직동 165번지[사직공원 건너편])
  - 본명 김해경
  - 父 김영창, 母 박세창

    "우리 아버지는 손톱이 일곱밖에 없습니다. 궁내부 활판소에 다니실 적에 손가락 셋을 두 번에 잘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생일도 이름도 모르십니다. … 젖 떨어져서 나갔다가 이십삼년만에 돌아와 보았더니 여전히 가난하게들 사십니다. 어머니는 내 대님과 허리띠를 접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내 모자와 양복저고리를 걸기 위한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상, 「슬픈 이야기」, 『이상 전집』2, 1937. 6, 287쪽)

- 1913년
  - 백부 김연필의 양자로 입적(경복궁과 사직공원 사이 거주)
  - 김연필
    - 1909년 5월 관립공업전습소 금공과 졸업
    - 조선총독부 상공과 하급관리를 지냄

- 1932년 5월 7일 뇌출혈로 사망

■ 1917년

– 신명학교 입학, 이 시기 구본웅(1906–1953)과 친교 맺음

■ 1921년

– 신명학교 졸업후 東光學校(조선불교중앙교무원 운영) 입학

– 보성고보에 편입

–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1926년

– 보성고보 졸업

–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입학

2) 1929–1932년 : 조선총독부 건축 기수 시절

■ 1929년

– 경성고등공업학교 수석 졸업

–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技手 발령

– 조선총독부 관방 회계과 영선계 전근(11월)

– '조선건축회' 정회원 가입

– 『조선과 건축』 표지 도안 1등 및 3등 당선

■ 1930년

– 장편소설 『12월 12일』 연재 / 『조선』 국문판

■ 1931년

– 일본어 시 「이상한 가역반응」 등 20여편을 『조선과 건축』에 연재

– 폐결핵 진단

■ 1932년

– 백부 김연필, 5월 7일 뇌일혈로 사망

– 일본어 시 '건축무한육면각체' 발표, 소설 '지도의 암실' 발표

3) 1933–1937년 : 연애, 결혼, 작품

■ 1933년

– 조선총독부 기수직 사직

– 황해도 배천 온천에서 요양 중 금홍이를 만남

– 종로1가 다방 '제비' 개업 / 금홍이를 제비의 마담으로 앉히고 동거 시작(6월~)

– 구인회(이태준, 정지용, 김기림, 박태원) 등과 교유 / 「꽃나무 등」 한글시 발표

■ 1934년

– 「烏瞰圖」 발표(조선중앙일보), 독자들의 항의와 비난으로 연재 중단

– 구인회 동인 참가(김유정, 김환태)

■ 1935년

– 다방 '제비' 폐업 후 금홍이와 결별

– 인사동에 카페 '鶴', 다방 '69' 등을 개업하였으나 곧 폐업

– 성천, 인천 등지를 유랑

– 구본웅의 부친이 운영하던 인쇄소 '창문사'에서 교정 일을 봄

■ 1936년

– 「지주회시」, 「날개」 발표

– 변동림과 결혼하여 황금정에서 신혼살림(6월)

– 동경으로 건너가 삼사문학 동인들과 교유(10월 하순)

■ 1937년

– 단편소설 「童骸」, 「終生記」 발표

– 사상혐의[거동수상자]로 니시간다(西神田) 경찰서에 피검, 한 달 정도 조사 후 폐결핵이 악화되어 동경제대부속병원으로 옮겨짐

– 4월 17일 사망, 미아리공동묘지에 유해 안장

3. 인물평

1) 박태원(1909–1986년)

"사실 이상은 상당히 발전했던 외입장이로 그러한 방면에 있어서도 놀라운 지식을 가져 그것은 그의 유고 중에도 한두편 산견되나 기생이라든 창부라든 그러한 인물을 취급하여 작품을 쓴다면 가히 외국문단에 있어서도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박태원, 「이상의 편모」, 『조광』, 1937. 6, 306쪽)

2) 정인택(1909–1953년)

"누구보다도 상식가요, 순정한 이상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 성격파산자 다다이스트. 이상과 가장 친하다는 친구까지가 오직 그의 職喞이 이런 것인 줄만 알고 재조가 아깝다고 한탄하였다. 이상은 언제나 자기 주위에 철조망을 둘러놓고 자기의 애인조차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하게 한다. 이상은 항상 그 안에서 자기 손으로 지은 고독이 외롭다고 하소연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겼다. 孤高, 이 말을 이상은 사랑했다. 그런 고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지탄해도 그는 태연했다. 그리고 그에게 물구나무를 서서 보인다. '앱노말'한 그의 근본 사념과는 정반대의 물구나무를."

"술만 먹으면 항상 너털웃음을 치는 이상이라, 또 그것이 결코 自嘲같지도 않은지라, 모두들 돌아서선 그 생활을 비난하고 그의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여 쩔쩔매는 것이나, 혼자 남아 있을 때의 이상이 얼마나 고독해하고 슬퍼하고 하는지를 잘 아는 나는 …… 긴 세월 동안에 빚어내인 이상의 얄궂은 (이렇게 밖에 형용할 수 없는) 성격이 여자와 같은 그의 마음씨와 어우러져 그의 명수를 줄이고 만 것이다. (정인택, 「요절한 그들의 면영 – 불쌍한 이상」, 『정인택 작품집』, 367–369쪽)

3) 변동림(1916–2004년)

"후리한 키에 곱슬머리가 나부끼고 수염은 언제나 파랗게 깎았다. 우뚝 솟은 코와 세 꺼풀진 크고 검은 눈이 이글거리듯 타오르고 유난히 광채를 발산했다. 수줍은 듯 홍조 짓는 미소가 없으면 좀 무서운 얼굴이었을 거다. 그러나 언제나 수줍은 듯 사람을 그리는 듯 쓸쓸한 웃음을 짓는 모습과 컬컬한 음성이 나의 기억에 남아 있다."

"짖궂을 정도로 농담을 즐기지만, 결코 가볍거나 함부로 자기 인생을 써버리지 않은 사람"

"가족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는 일종의 유교적인 태도가 기본이었던 남자" (변동림, 「나는 건강한 청년 이상과 결혼했다」)

4. 이상의 여인들

1) 금홍이(蓮心, 1933.3–1935년 봄?)

① 이상의 여인 1, 금홍이

- 기생 / 카페 여급
- 금홍이 인물평

* 그 여자는 보들레르 정부 잔느 뒤발과 방불한 성적 매력을 풍겼어요. 비록 키는 크지 않고 깜직했지만 우리들 대부분이 한 번 껴안아 보고 싶었던 충동을 가졌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계산 속이 빨랐지요. (윤태영)

* 그러나 짧은 치마를 입었고 하이힐을 신었다. 걸음거리가 아직 익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때다. 투피스만 입어도 첨단을 걷는 여인이다. 그때의 말로 모던 걸이다. 금홍여인은 그런 대로 어울리었다. / 촌기생, 나쁘게 말하면 작부. (문종혁)

* 위선 적당하게 어여뻤고, 또 젊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코 오락에 물들지 않은 듯 싶은 것에 나는 어처구니없이 놀라면서도 / 아무렇게나 놀아먹든 그러한 종류의 계집 / 금홍은 요부로서 우리들의 윤리도덕을 위하여 크게 옳지 않은 것. (박태원)

*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나 그 당시나 보기로는 스물 네다섯. 차돌같이 뭉친 자그마한 몸집에 바늘 하나 들

어갈 빈틈이 없는 새침하고 깜직한 미인이다. (김소운)

→ "왼갖 사람들 사이에 비웃음 가득한 소문으로 떠돌든 것"

■ 금홍이와 살던 곳 : 관철동 33번지 18가구

* 그것은 내가 일즉이 꿈에도 생각하여 볼 수 없었든, 서울에서도 가장 기묘한 구획(박태원)

* 분명히 사창의 집단 가옥(손정목)

■ 금홍이를 혹은 금홍이와 이상의 관계를 다룬 작품들

– 「지주회시」(1935.11 / 1936.6)

– 「날개」(1936.9)

– 「봉별기」(1936.12)

② 문제상황 : 결혼 이후 금홍이의 매춘과 가출

* 금홍이가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우리내외는 참 사랑했다. …… 우리 내외는 이렇게 세상에도 없이 현란하고 아기자기하였다. 부질없는 세월이–. 일 년이 지나고 팔월, 여름으로는 늦고 가을로는 이른 그 북새통에–. 금홍이에게는 예전 생활에 대한 향수가 왔다.

* 하루 나는 제목 없이 금홍이에게 몹시 얻어맞았다. 나는 아파서 울고 나가서 사흘을 들어오지 못했다. …… 나흘 만에 와보니까 금홍이는 때 묻은 버선을 윗목에다 벗어놓고 나가버렸다.

* 장부답지 못하게 뒤끊던 마음이 그만하고 차츰차츰 가라안기 시작하려는 이 철에 뭐냐 附箋 붙은 편지 모양으로 때와 손자죽이 잔뜩 묻은 채 돌아오다니.

– 출처 : 이상, 「봉별기」, 『이상 전집』 2(권영민 엮음)

③ 이상이 파악하는 방식 : 믿음의 파기(속임)와 아내에게 버려짐

* 그리고 우, C 등등에게서 받은 십원 지폐를 여러 장 꺼내놓고 어리광 섞어 내게 자랑도 하는 것이었다.

* 금홍이가 내 아내가 되었으니 우리 내외는 참 사랑했다. 서로 지나간 일은 묻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래야 내 과거가 무엇 있을 까닭이 없고 말하자면 내가 금홍이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이나 다름없다.

* 금홍이의 협착한 생활이 금홍이의 향수를 향하여 발전하고 비약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지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 그런데 이번에는 내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 않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이것은 금홍이로서 금홍이답지 않은 일일밖에 없다. 숨길 것이 있나? 숨기지 않아도 좋지. 자랑을 해도 좋지. …… 그러나 세상에 흔히 있는 아내다운 예의를 지키는 체해본 것은 금홍이로서 말하자면 천려의 일실 아닐 수 없다. 이런 실없는 정조를 간판 삼자니…

* 한번도 안해가 나를 사랑 않는 줄 생각해 본 일조차 없다. 나는 어느 틈에 고상한 국화 모양으로 금시에 수세미가 되고 말았다. 안해는 나를 버렸다. 안해를 찾을 길이 없다.

* 어떤 점을 붙잡아 한 여인을 믿어야 옳을 것인가? 나는 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졌다.

– 출처 : 이상, 「공포의 기록」, 『이상 전집』 4(권영민 엮음) / 이상, 「아스피린 아달린」, 『날개』

2) 권순옥

① 이상의 여인 2, 권순옥

■ 카페 여급 / "고리키 전집을 한권도 빼놓지 않고 독파했다는…" (– 이상, 「환시기」 중)

■ 권순옥과 이상의 관계를 다룬 작품 : 「幻視記」(1936.2.13 / 1938.6)

■ 권순옥과 정인택

■ 권순옥과 박태원

② 문제상황(시차/관찰하는 거리의 소멸)과 이상이 파악하는 방식

* 순영 씨(이 순영이라는 이름자 밑에다 氏자를 붙이지 않으면 안되는 지금 내 가엾은 처지가 말하자면 이 소설을 쓰는 동기지). (337쪽)

* 그때 나는 참 이상한 것을 느꼈다. 월광 속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순영의 얼굴이 웬일인지 왼쪽으로 좀 삐뚤어져 보이는 것이다. 나는 큰 범죄나 한 사람처럼 냉큼 바른 편으로 비켜섰다. 나의 그런 불손한 시각을 정정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위치의 불리로 말미암아서도 나는 순영의 입술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실로 사년 전 첫여름 어느 별빛 좋은 밤) 경관이 무엇하러 왔는지 왔다. 나는 삼천포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순영은 회령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다. 내 그 인색한 원근법이 일사천리지세로 남북 이천오백리라는 거리를 급조하여 나와 순영 사이에다 펴 놓는다. 순영의 얼굴에서 순간 원광이 사라졌다. (338–339쪽)

* 아까 바른 쪽으로 비켜서란 소리는 괜한 소리고 비켜서기 전에 자네 시각을 정정–. 그 때문에 다른 물건이 죄다 바른 쪽으로 비뚤어져 보이드래도 사랑하는 아내 얼굴이 똑바로만 보인다면 시각의 직능은 그만 아닌가–. 그러면 자연 그 블라디보스토크 동경 사이 남북 만 리 거리두 베제처럼 바싹 맞다가서구 말 테니. (344–345쪽)

– 출처 : 이상, 『이상 전집』 2(권영민 엮음)

3) 변동림(1916–2004년)

① 이상의 여인 3, 변동림

■ 구본웅의 계모의 이복동생

■ 이화여전 영문과
■ 이상과 결혼(1936.6 – 1936.10)
■ 김환기와 결혼 후 김향안으로 改성명

② 이상과 변동림의 결혼 생활

* 상은 며칠에 한 번씩 시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장을 봐왔다. 나는 개울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지었지만 반찬은 주로 상이 했다. 상은 소의 내장으로 만드는 요리를 즐겼기 때문에, 나는 간이나 천엽 또 곰탕 같은 것을 못 먹었던 기억이 난다.
*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상의 표정이 초조해보였다. 언제나 태연하던 사람이 "왜?", "동림이가 안 나올까봐서", "나는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인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상은 간밤내 잠을 안 잤다면서 충혈된 눈을 비비기도 하고, 오랫동안 얼굴의 홍조가 가시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처럼 경쾌한 걸음으로 상을 따랐다. 우리들은 또 벌판을 지나고 방풍림을 지나서 개울이 있고 언덕이 있는 드문드문 인가가 보이는 동리에 이르렀다. 동 떨어져서 개울가에 서 있는 조그만 집, 방 하나와 대청마루와 부엌, 건넌방은 비었고 주인이 와서 살 거라고 했다. 조그만 마당은 필요 없었다. 대문을 열면 바로 개울이 있고 작은 언덕산이 그대로 우리 마당이었다. 상은 기본 생활도구와 침구를 마련해 놓고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해논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상하고 결혼했다. 낮과 밤이 없는 밀월을 즐겼다. 나는 우리들의 밀월을 월광으로 기억할 뿐이다.

③ 변동림과 이상의 관계를 다룬 작품들

■ 「童骸」(1936.6-7. / 1937.2.)
■ 「終生記」(1936.11.20. / 1937.5.)
■ 「失花」(1936.12.13. / 1939.3.)
■ 「斷髮」(1939.3.)

④ 문제 상황 : 여성의 과거 정조와 현재의 비밀에 대한 질투

* 그것은 무슨 한 계집에 대한 질투와는 비교할 것이 못 될 것이오. (– 김기림에게 보낸 편지)
* 23일밤 열시부터 나는 가지가지 재주를 다 피워가면서 연이를 고문했다. 24일 동이 훤하게 터올 때쯤에야 연이는 겨우 입을 열었다. 아! 장구한 시간!

"첫번 – 말해라"
"인천 어느 여관"
"그건 안다. 둘째 번 –말해라"
"……"
"말해라"

"N빌딩의 S사무실"
"세째번 －말해라"
"……"
"말해라"
"동소문 밖 음벽정"(失花, 전집2, 349쪽)

* 물론 선이는 내 선이가 아니다. 아닐 뿐만 아니라 ××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를 사랑하고 그 다음 … 그 다음에 지금 나를 사랑한다, 는 체 하야보고 있는 모양 같다. 그런데 나는 선이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이상, 「행복」, 『이상 전집』4, 258쪽)

* 당신처럼 사랑한 일은 없습니다라든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든가 하는 그 여자의 말은 첫사랑 이외의 어떤 남자에게 있어서도 '인사'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상, 「행복」, 『이상 전집』4, 99쪽)

* 연이는 음벽정에 가던 날도 R영문과에 재학 중이다. 전날 밤에는 나와 만나서 사랑과 장래를 맹서하고 그 이튿날 낮에는 기싱과 호손을 배우고 밤에는 S와 같이 음벽정에 가서 옷을 벗었고 그 이튿날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같은 동소문 밖으로 놀러가서 베제했다. S도 K교수도 나도 엊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S도 K교수도 바보요, 연이만이 홀로 눈가리고 야옹 하는 데는 희대의 천재다. ……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 연이가 조 이층 바른편에서부터 둘째 S씨의 사무실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나왔는지 알아맞히면 용하지. (352쪽)

* 그러나 불쌍한 이상 선생님에게는 이 복잡한 교통을 향하여 빈정거릴 아무런 비밀의 재료도 없으니 내가 재산 없는 것보다 더 가난하고 싱겁다. (이상, 「실화」, 『이상 전집』2, 352쪽)

⑤ 이상이 파악하는 방식 : 비밀의 탐지('行刑')와 아내 버리기

■ 과거 아내의 간음, 현재의 간음을 탐지하여 자신이 버려지기 전에 미리 아내를 버리려는 자세

* 童骸
* 나는 내 안해를 버렸다.
* 남편만 없었던 들, 남편이 용서만 한다면 하면서 지켜진 안해의 정조는 이미 간음이다. 정조는 금제가 아니요 양심이다. 이 경우의 양심이란 도덕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가리키지 않고 '절대의 애정' 그것이다. 만일 내가 안해가 있고 그 안해가 실로 요만 정도의 간음을 범한 때, 내가 무슨 어려운 방법으로 곧 그것을 알 때, 나는 간음한 '안해'라는 뚜렷한 죄명 아래 안해를 내쫓으리라. 내가 이 세기에 용납되지 않는 최후의 한 꺼풀 막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간음한 안해는 내쫓으라'는 철칙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내 곰팡내 나는 도덕성이다.

*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 없는 것처럼 가난할 뿐만 아니라 더 불쌍하다. 情癡 세계의 비밀– 내가 남에게

간음한 비밀, 남을 내게 간음시킨 비밀, 즉 不義의 양면 –이것을 나는 만금과 오히려 바꾸리라. 주머니에 푼돈이 없을망정 나는 천하를 놀려 먹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큰 부자일 수 있다.
– 출처 : 이상, 「19세기식」, 『이상 전집』4, 259쪽(권영민 엮음)

⑥ 변동림의 회고

"나는 이상 이전에 결혼한 일이 없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드나들던 오빠 같은, 보호자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이상은 과대망상해서 일착이나 이착이니 하는 치졸한 이야기를 엮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얘기를 쓴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줄은 생각지도 않았다. 그 줄거리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 엊그제 처음으로 만난 평론가가 「동해」의 줄거리를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지금껏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다."

5. 이상에게 있어 여성의 의미와 '정조'라는 공포

1) 여성, '절대의 애정' 찾기 / 육체적 · 정신적 치유

■ 김현 : '진정한 만남을 바라는 것'

■ 이상

"지어가지고 온 약은 집어치우고 나는 전혀 금홍이를 사랑하는 데만 골몰했다. 못난 소린듯 하나 사랑의 힘으로 咯血이 다 멈췄으니까–" (이상, 「봉별기」, 『이상 전집』2, 380쪽)

■ 정인택

"진실로 여자를 사랑할 줄 아는 남자이면 믿어도 좋다. 그런 남자는 결코 악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아니 이상이야말로 여자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고로 「지주회시」, 「날개」, 「동해」 기타 이상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상과 그의 안해들을 나타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인간 이상을 정당하게 이해할 수 없다. 공개된 석상에선 결코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이상의 '엑센트리크'한 성질이기 때문이다. 작품에 나타난 이상 자신은 모두가 인간 이상의 껍질이 아니면 그림자에 불과하다.

■ 김기림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흔히 눈총을 맞게 된 것은 기사의 자리를 내찬 뒤에 그가 관계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찻집이 아니면 '카페'와 같은 좀 난잡한 방면이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카페'를 가장 나무라는 사람이 실은 가장 그런 데를 드나들기 좋아하는 사람이며, 도덕과 윤리의 얼굴에 흙칠을 하는 패인 것이 세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면서 '꼴좀 보자구나'고 기껏 놀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정상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한 생활을 해 가기에는, 그에게는 현실이란 것 자체가 도대체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또 이른바 '품행방정'에 속하지 못한 그의 사생활을 나무라는 편도 없지 않다. 인간과 세계가 비극이 아니라 차라리 희극으로 밖에는 눈에 비치지 않는 그가 …… 흥미나 염치나

비위가 어떻게 있었을까보냐? …… 그러면서도 실상은 메마른 형식이 아니라 '절대의 애정'을 찾아 마지 않는 한 퓨리탄이었던 것이다." (김기림, 「이상의 모습과 예술」, 1949)

2) '정조'라는 문제의 공포 / 속임(야웅의 천재)과 앎의 의지

■ 버림과 버려짐 : 여성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는 별도로, 이 여성의 과거의 '정조 문제', 현재의 배반 가능성에 대한 인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과거의 정조와 현재의 징후를 알아내고자 하는 의지

"내, 눈이 충혈한채 무엇인가를 찾는다. 나는 가끔 내게 물어본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復讐? 천천히 천천히 하여라. 네 殞命하는 날이야 끝날 일이니까'. 아니야! 나는 지금 나만을 사랑할 童貞을 찾고 있지. 한 남자 혹 두 남자를 사랑한 일이 있는 여자를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왜? 그럼 나더러 먹다 남은 形骸에 만족하란 말이람?" (이상, 「행복」, 『이상 전집』4, 257쪽)

"계집의 얼굴은 다마네기다. 암만 벗기어 보려무나. 마지막에 아주 없어질지언정 정체는 안내어 놓는니." (이상, 「실화」, 『이상 전집』2, 360쪽)

"안한다는 것(의지로 불장난을)은 내가 빚어내이는 기후 여하에 빙자해서 언제든지 아무 겸손이라든지 주저없이 불장난을 할 수 있다는 조건부계약을 차도복판에 안전지대 설치하듯이 강요하고 있는 징조에 틀림없다." (이상, 「동해」, 『이상 전집』2, 304쪽)

"한번 간음에 맛을 들인 계집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간음하리라. 왜? 不義라는 것은 재물보다도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상, 「19세기식」, 『이상 전집』4, 260쪽)

3) 20세기 '신선한 도덕'의 가능성

■ 절름발이

"20세기를 생활하는데 19세기의 도덕성밖에는 없으니 나는 영원한 절름발이로다." (이상, 「실화」, 『이상 전집』2, 359쪽)

"암만해도 나는 19세기와 20세기 틈바구니에 끼워 졸도하려 드는 무뢰한인 모양이오. 완전히 20세기가 되기에는 내 혈관에는 너무나 많은 19세기의 엄숙한 도덕성의 피가 흐르고 있소 그려." (이상, 「김기림에게 보낸 편지」, 『이상 전집』4, 329쪽)

■ 봉착

"「너는 네 말맞다나 두 사람의 남자 혹은 사실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남자에게 내주었던 육체를 걸머지고 그렇게도 호기있게 … 내 성문을 틈입할 수 있는 것이 철면피가 아니란 말이냐?」

「당신은 무수한 매춘부에게 당신의 그 당신 말맞다나 고귀한 육체를 염가로 구경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지요.」

「하하! 너는 이런 사회 조직을 깜박 잊어버렸구나. 여기를 너는 서장(티벳)으로 아느냐… 미안하오나

남자에게는 육체라는 관념이 없다.」

「미안하오나 당신이야말로 이런 사회조직을 어째 급속도로 역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조라는 것은 일대일의 확립에 있습니다. 약탈결혼이 지금도 있는 줄 아십니까?」

「육체에 대한 남자의 권한에서의 질투는 모순 걸레조각 같은 교양나부랭이가 아니다. 본능이다. 너는 이 본능을 무시하거나 그 치기만만한 교양의 장갑으로 정리하거나 하는 재조가 통용될 줄 아느냐」

「그런 저도 평등하고 온순하게 당신이 정의하시는 '본능'에 의해서 당신의 과거를 질투하겠습니다. 자–우리 수자로 따져볼까요?

評–여기서부터는 내 교재에는 없다" (이상, 「동해」, 『이상 전집』2, 304–305쪽)

■ 완전한 파악(앎)과 사랑의 연계

"어떤 점을 붓잡아 한 여인을 믿어야 옳을 것인가? 나는 대체 종잡을 수 없어졌다. 하나같이 내 눈에 비치는 여인이라는 것이 그저 끝없이 경조부박한 음난한 요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은 무슨 한 여인에게 배반당하였다는 고만 이유로 해서 그렇다는 것 아니라 사물의 어떤 '포인트'로 이 믿음이라는 역학의 지점을 삼아야겠느냐는 것이 전혀 캄캄하여졌다는 것이다. (이상, 「공포의 기록」, 『이상 전집』4, 267쪽)

■ 포월?

"몽고르피에 형제가 발명한 경기구가 결과로 보아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의 발달을 훼방놀 것이다. 그와 같이 또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 발명의 힌트의 출발점인 날개가 도리혀 현재의 형태를 갖춘 비행기의 발달을 훼방놀았다고도 할 수 있다. ……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의 단 하나의 절망 아니 희망을 아마 텐스를 고쳐서 지꺼려 버린 기색이었다." (이상, 「동해」, 『이상 전집』2, 306쪽)

시로 승화한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청마 유치환과 정운 이영도

김 용 범 (한양대학교)

시로 승화한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 청마 유치환과 정운 이영도

김 용 범 (한양대학교))

1. 사랑 영원한 시(詩)의 테마

.....사랑하는 것은 /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 뵈는 /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봇지를 받고 /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들께로
슬프고도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 더 의지 삼고 피어 홍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너와 나의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유치환 –〈행복〉–

청마 유치환. 한국시문학사에서 청마 유치환이 이루어낸 문학적 업적은 탁월하다 . 그는 1931년 〈문예월간〉 12월호에 〈정적 靜寂〉을 발표해 문단에 나왔으며, 이후 35년 동안 14권에 이르는 시집과 수상록을 펴냈다. 그는 서정주(徐廷柱), 오장환(吳章煥) 함형수(咸亨洙), 김달진(金達鎭), 김상원(金相瑗) 김동리(金東里), 윤곤강(尹昆崗), 신석초(申石艸)와 함께 소위 '생명파' 라는 교과서 적으로 분류되는 시인으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 강연의 주제는 청마의 문학을 연구하려는 인문학자들을 위한 학술적모임이거나 토론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청마의 사랑' 이라는 테마이므로 그 관점으로 청마 유치환을 바라보기로 하자.

사랑이란 청마뿐 아니라 동서고금 모든 예술가들이 숙명처럼 끌어안고 있는 불멸의 테마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 삶에서 인간으로서의 사랑이냐 아니면 단지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승화된 사랑이냐는 또 다른 문제일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기로 하자.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유형을 처음으로 짚어본 이는 플라톤(Platon, 기원전 427~347) 이다. 플라톤의 '향연'의 이야기는 아폴로도오로스와 그의 친구와 대화하면서 시작된다. 사랑에 관해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 등 여러 사람이 아테나의 비극작가 아가톤의 집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관한 것. 아가톤의 집에 초대를 받아 향연을 벌리던 에뤼크시마코스는 사랑의 신 에로스에 대한 '찬가'를 지어보자고 제의를 하며본격적 토론은 시작 된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저서 〈심포지엄(향연)〉에서 사랑에 대해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는데 인간이 지금의 모습을 갖기 전에는 얼굴이 2개, 팔이 4개, 다리가 4개인 거인이었고. 얼굴 2개가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여자와 여자로 구성된 세 종류의 인간이 있었다고, 이 인간은 자신의 힘만 믿고 제우스신에게 대들다가 엄청난 벌을 받게 된다 . 제우스신은 인간을 반으로 쪼갠 뒤 반(半)인간들을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 뿌렸다 그리하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반쪽인간이 된 것, 나의 나머지 반쪽이 없이 태어나는 것이므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자기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른 반쪽을 찾기 위해 헤맨다는 것 그리고 그같은 사랑의 유형을 4개로 나누어 보았는데,

① **에로스(Eros) : 남녀간의 사랑, 육체적이고 정열적인 사랑.**
② **필리아(philia) : 동료적인, 우정적인 사랑.**
③ **플라토닉 러브(platonic love) : 육체적이 아닌, 정신적인 순수한 사랑.**
④ **아가페(Agape) :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캐나다 심리학자 J. A. Lee(1973)심리학자(前 토론토대학교 교수) 존 앨런 리(John Alan Lee)는[1] 는 플라톤의 사랑을 좀더 구체화하여 광범위한 면접과 여러 문학 자료에 근거하여 사랑에 대한 6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열정적 사랑(eros), 유희적 사랑(ludus), 친구같은 사랑(storge), 소유적 사랑(mania), 실용적 사랑(pragma), 헌신적 사랑(agape)으로 나눴다.[2]

---

1) Psychology of Love/ Robert J.Sternberg & Karin Weis , 심리학–사랑을 말하다/ 로버트 스턴버그.카린 웨이스 편저/ 김소희 옮김/ 21세기북스 21세기북스 20105.18

2) 낭만적 사랑 : 낭만적 사랑(EROS : romantic love)은 뜨거운 열정과 욕망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강렬한 사랑이다. 흔히 첫 만남에서 상대방에 대한 강렬한 애정을 느끼고 사랑의 불꽃이 타오른다. 이러한 사랑은 이성이 지닌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촉발된다. 지속적으로 연인을 생각하고 연인과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을 느끼며 강렬한 감정과 집착을 나타낸다.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사랑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하려는 충동과 더불어 강렬한 성적인 요소가 개입된다.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낭만적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2. 우애적 사랑(친구로서의 사랑) : 우애적 사랑(STORGE : companionate love)은 친한 친구에게서 느끼는 친밀감과 우정이 주된 요소가 되는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서서히 발달하며 오래도록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편안함을 느끼고 말이 잘 통하며 관심과 취향이 비슷하여 서로를 잘 이해하는 친구처럼 느끼게 된다. 이처럼 오랜 시간 친구로 사귀다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뜨거운 열정과 낭만은 없으나 편안하고 정다우며 신뢰로운 관계를 나타낸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온건하게 타협을 통해 해결하며, 연인관계가 서로 강한 상처를 주며 종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누구나 한번쯤은 재미삼아 테스트 해보았을 사회학자 Lasswell과 Hatkoff가 1980년에 제작한 〈사랑 척도〉가 개발되었다. 그렇다면 내의 성향은 어떤가 ? 그리고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랑을 꿈꾸고 있는가.[3] 스스로에게 자문하기 바라며

(이 이론을 근거하여 사회학자 Lasswell과 Hatkoff가 1980년에 제작한 〈사랑 척도〉측정의 방식이 개발 되어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을수 있는데 설문과 그 분류 방식은 글의 맨 끝에 달아둔다.[4]

2. 청마 유치환, 그는 누구인가 ?

논의의 핵심인 청마 유치환과 정운 이영도의 진솔한사랑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면 잠시 국어교사 같은 관점으로 돌아가 그의 삶의 궤적을 정리해보자.

---

3) 유희적 사랑 : 유희적 사랑(LUDUS : playful love)은 마치 놀이를 하듯이 재미와 쾌락을 중요시하며 즐기는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나 관계의 지속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유희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여러 명의 연인을 동시에 사귀며 고정된 이상적인 연인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들은 한 사람과의 관계에 자신의 평생을 바치려 하지 않으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쾌락과 즐거움이 줄어들면 다른 대상을 찾게 된다.
Lee는 이상의 3가지를 일차적 사랑으로 보았다. 마치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 내는 3원색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3가지 사랑 중 2가지가 혼합된 것이 이차적 사랑으로서 실용적 사랑, 헌신적 사랑, 소유적 사랑이 이에 속한다.

4) 실용적 사랑(논리적 사랑) : 실용적 사랑(PRAGMA : pragmatic love)은 이성에 근거한 현실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랑으로서 논리적 사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때에도 사랑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는 서로의 조건을 고려한다. 상대방의 성격, 가정배경, 교육수준, 종교, 취미 등을 고려하여 자신과 적합한 사람을 선택한다.
5. 이타적 사랑 : 이타적 사랑(AGAPE : altruistic love)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타인을 위하고 보살피는 사랑이다. 사랑의 대상이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나 그로부터 돌아오는 보상적인 대가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어지는 헌신적인 사랑이다. 이런 종류의 사랑에서는 자기희생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진정한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자기 자신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성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Lee에 따르면, 이타적 사랑은 낭만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이 혼합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심리적 고통을 주더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기쁨을 느끼게 된다.
6. 소유적 사랑 : 소유적 사랑(MANIA : possessive love)은 상대방에 대한 강렬한 소유욕과 집착을 중요한 요소로 하는 강렬한 사랑을 말한다. 사랑은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유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강한 흥분과 깊은 절망의 극단을 오간다. 마치 사랑의 노예가 된 것처럼,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정력을 소모한다. 상대방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의심으로 항상 마음을 졸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배신의 기미가 보이면 뜨겁던 사랑이 일순간에 증오로 변한다. Lee는 소유적 사랑을 낭만적 사랑과 유희적 사랑이 혼합된 것으로 보았다.

3) 이 이론을 근거하여 사회학자 Lasswell과 Hatkoff가 1980년에 제작한 〈사랑 척도〉측정의 방식이개발되어 인터넷에서 손쉽게 설문과 그분류 방식이 소개되어 있다

유치환은 융희 2년(1908) 7월 14일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507의 5 거제도 산방산(山芳山) 아랫마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유준수(柳焌秀)의 둘째 아들이자 한국 극작대가 동랑(東郎) 유치진(柳致眞)의 아우로 태어났다. 유치환이 세 살 되던 해인 1910년 부친이 아일당(亞一堂) 한약국을 함에 따라 통영(당시:용남군 서면)으로 이사, 11세까지 한문을 공부하다 1922년 통영공립보통학교 4년제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의 도요야마 중학교에 유학, 토성회에서 시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운이 기울며 1926년 귀국, 동래고등보통학교 5학년에 편입하였고 이듬해 졸업하여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폐쇄적인 분위기에 못이겨 1년 후 중퇴하였다. 그 후 유치환은 대자연을 찾아 시를 썼는데 1931년 {문예월간}에 시 [정적]을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올랐으며, 1937년 성장하던 제2의 고향 통영 협성상업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시 쓰기에 몰두하여 1939년 시집 {청마시초}를 발행하였고 이어 [생명의 시], [울릉도], [청령일기], [보병과 더불어], [예루살렘의 닭] 등의 {청마시집} 그리고 [신도가], [행복은 이렇게 오더이다]의 합본 {제9시집}, 이어 {유치환 시선}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미류나무와 남풍],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등을 발행하였다. 그는 1930년 후반에 만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1942년 제일협화구락부 문화부에서 발간된『만주시인집(滿洲詩人集)』(1942. 길림)에 유치환의 시 「편지」,「歸故」,「哈爾濱道裡公園」등 3편을 실었다.

1945년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통영문화협회를 조직 창설하였고, 통영여자중학교의 교사로 전임한 다음 이듬해인 1946년 한국청년문학가협회의 회장에 진출함으로써 유치환의 문학활동은 경남에서 전국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1947년 한국청년문학가협회 제1회 시인상을 수상한 이후 서울시의 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어 경상북도의 문화상, 아시아재단 자유문학상, 한국예술원상, 부산시 문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북진함에 따라 유치환은 문총구국대를 조직, 종군하였고 휴전된 후 1954년 거창군의 안의중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었으니 교육자이자 생명파, 인생파의 거목 시인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1955년 경상북도 경주고등학교 교장으로 영전하였으며 1957년 한국시인협회를 창설, 초대 회장에 피선되어 한국의 현대문학사에 새로운 차원의 이념을 열어 주었고 1959년에는 수필집 {동방의 느티}를 발행하였고 이어 [나는 고독하지 않다]와 [나의 창에 마지막 겨울달맞이] 등을 발행하였다.

1961년 경주여자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전임되었다가 1962년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장으로 전임하여 후진교육과 시인의 길로 동분서주하다 1967년 2월 13일 오후 부산시 좌천동에서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국어교사적 관점에서 정리해본 청마 유치환의 해적이이다.

3. 정운 이영도와 운명적 만남

호사가들에게 청마 유치환하면 도시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시조시인인 정운이영도이

다. 이 두 시인은 마치 하나의 합일체처럼 거론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이다. 이 두 사람의 접점을 이영도 시인이 누구인가를 교과서적으로 살펴보자. 이영도 호는 정운(丁芸). 경상북도 청도 출생. 시조시인 이호우(李鎬雨)의 누이동생이다. 1945년 대구의 문예동인지 『죽순(竹筍)』에 시 「제야(除夜)」를 발표하면서부터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뒤 통영여자고등학교 · 부산남성여자고등학교 등의 교사를 거쳐 부산여자대학에 출강하기도 하였다. 1964년부산직할시(지금의 부산광역시) 어린이회관 관장을 맡은 바 있으며, 『현대시학(現代詩學)』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문학을 통한 사회봉사의 공로로 1966년 눌월문화상(訥月文化賞)을 수상하였다.주요 작품으로 「바람」(1956) · 「시조3수」(1956) · 「지리산시초(智異山詩抄)」(1957) · 「한라산」(1958) · 「설악산시초(雪嶽山詩抄)」(1959) · 「4월의 하늘 아래서」(1960) · 「경주시초(慶州詩抄)」(1961) · 「목련화」(1965) · 「수혈(輸血)」(1965) · 「아지랭이」(1966) · 「나목(裸木)」(1967) · 「백록담」(1968) · 「미소」(1969) · 「들에서」(1969) · 「추청(秋晴)을 갈(磨)다」(1969) · 「제야(除夜)에」(1970) · 「구천동소묘(九千洞素描)」(1970) 등이 있다. 시조집으로 『청저집(靑苧集)』(1954) · 『석류』(1968)가 있고 수필집으로 『춘근집(春芹集)』(1958) · 『비둘기 내리는 뜨락』(1966) · 『머나먼 사념(思念)의 길목』(1971) 등이 있다.

청마와 정운. 두사람의 만남은 언제였을까? 이영도는 재색을 고루 갖춘 규수로 출가하여 딸 하나를 낳고 홀로 되어 해방되던 해 가을 통영여중 가사 교사로 부임했다. 해방이 되자 고향에 돌아와 통영여중 국어교사가 된 청마. 일제하의 방황과 고독으로 지쳐 돌아온 남보다 피가 뜨거운 서른 여덟 살의 청마는 스물 아홉의 청상 정운을 만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불길이 치솟았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을 남몰래 수면 아래로 감추어져 있던 각각의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이 하나의 합일체처럼 부상한 이유는 바로 1967년 2월 13일 오후 부산시 좌천동에서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것이 계기가 된다. 청마는 1967년 2월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년 동안 편지를 계속 보냈고 이영도는 그 편지를 꼬박꼬박 보관해 두었다. 그러나 6 · 25전쟁 이전 것은 전쟁때 불타 버리고 청마가 사망했을 때 남은 편지는 5,000여 통이었다. 1967년 2월 13 1967년 2월 13일 하오 9시 30분 부산시 좌천동 앞길에서 교통사고... 당시 〈주간한국〉이 이들의 '아프고도 애틋한 관계'를 {사랑했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라는 제목으로 실은 것이 계기가 되어 청마의 편지 5,000여 통 중 200통을 추려 단행본으로 엮었다. 이 청마의 사랑 편지가 책으로 나오자 그날로 서점들의 주문이 밀어 닥쳤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무명 중앙 출판출사는 대번에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마 사후 발간된 그의 수필집 『사랑했으므로 행복했었네라』(중앙출판공사, 1967)에 의해서 공인된다. 이 책의 발간 배경을 책을기획하고 만들어낸 이근배 시인과 김규태 시인의 회고로 들어보자.

(청마 사후) 평소 청마 유치환과 친분이 두터웠던 큰 시인들이 잘 나가는 출판사를 앞세워 정운 이영도를 설득했는데도 한 마디로 잘랐던 정운은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 모르는 사람들은 서한집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가 나오자 잘못한 일로 생각하기 십상이었다.

정운은 시조시인으로 문단의 중심에 높게 자리 잡았거니와 사리분별이나 현실감각에 있어서도 잘났다는 사내 열 몫쯤은 하는 재덕(才德)이 있었다. 정운이 서한집 출판 제의를 모두 자르고 부산으로 내려간 뒤 우려했던 일들이 터져나왔다.

여성지들이 다투어 청마의 사랑을 취재하면서 정운에게 보낸 편지는 한 장도 못 싣고 엉뚱하게도 대구 등 이곳저곳의 여인들이 받았다는 청마의 편지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청마를 만난후 10년간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청하라는 여인이 나선 상황에서 정운이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청마가 정운에게 보낸 편지들은 모두 그대로 시였다. 아니 직접 시를 써서 편지를 대신하기도 했다. 정운을 만난 지 두달쯤 되는 1946년 12월 1일 청마는 '정향(丁香)에게 주는 시'를 처음 쓴다.

정향은 정운 이전에 쓰던 이영도의 아호다.

내가 언제 그대를 사랑한다던?
그러나 얼굴을 부벼들고만 싶은 알뜰함이
아아 병인 양 오슬오슬드는지고.–유치환

두번째 시는 47년 7월 9일에 보인다.

덧없는 목숨이여
소망일랑 아예 갖지 않으매
요지경같이 요지경같이 높게 낮게 불타는 나의
노래여, 뉘우침이여". –유치환

다음은 편지를 보자.

"나의 구원인 정향! 절망인 정향! 나의 영혼의 전부가 당신에게만 있는 나의 정향! 오늘 이 날이 나의 낙명(落命)의 날이 된달지라도 아깝지 않을 정향 – 52년 6월 2일 당신의 마(馬)".

편지로 사랑을 낚던 시절, 누구라도 이 서한집에서 몇 줄만 훔쳐 써먹었으면 돌부처라도 옷고름을 풀리라. 서한집의 출간으로 여성지들도 잠잠해졌고 청마의 뒷이야기도 뚝 그쳤으니 비난을 무릅쓰고 결행한 정운의 사랑 지키기는 적중한 셈이었다. 마땅히 서한집의 인세는 청마의 유족에게 돌아가야할 것이나 정운은 시전문지'현대시학'에 '작품상'기금으로 기탁 운영해오다 끝을 맺지 못하고 76년 3월 6일 예순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뜬다.

바로 그날 오전 정운은 11시쯤 내가 근무하는 북창동 5층까지 오셨었다. "근배야 잘 있거레이". 12시 노산 이은상과 점심약속이 있다면서 층계를 밟고 내려가시더니 오후 2시쯤 망원동 자택에서 부음이 날아든다. 나는 정신없이 달려갔고 내 몫으로 온 조사를 울면서 쓰고 영결식장에서 울면서 읽었다.

더 크게 만들겠다던 문학상 기금은 정운의 타계로 붇지 않고 구상. 김준석. 임인규 등 문학상 운영 위원들의 합의로 '정운시조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유서에까지 내 이름을 적어두었던 정운! 없는 글재주 예뻐하시던 그 사랑 뉘에게 다시 받을까!

이근배〈시인. 한국시인협회장〉

청마 유치환은 세계에서 가장 긴 연서를 쓰고 간 시인이다. 아마 기네스북도 이런 고급스러운 기록을 발견했더라면 호재로 삼았을 것이다. 그가 40대 전후의 나이에서 운명한 60세까지 5000여 통의 간절한 연서를 한 여인에게 간단없이 띄웠으니 말할 나위없다. 그것은 하나의 일과였다. 시조를 정갈하게 써 온 정운 이영도는 누가 보더라도 청초한 아름다움과

남다른 기품을 지닌 여인상이었다. 평생 한복을 입었다. 계절에 맞춰 하늘하늘한 옥색 모시적삼이나 하얀 모시옷을, 진보라나 검정 한복을 즐겨 입었다. 머리 매무새는 조선조의 여인처럼 동백기름을 발라 뒤로 땋아서 말아 올렸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만일 재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남으로부터 손가락질은 젖혀두고라도 더 불행해졌거나 가여움을 받았을 것이다. 자신과 재혼을 주선했던 상대들이 모두 저명한 인사들이었는데 자신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이란다. 그 가운데는 영문학자이며 시인 수필가인 이양하 교수가 있었다. 이를 두고 일찍이 타계한 예로 삼았다. 딸 하나 있는 청상으로서 불행한 재혼보다 청마와의 염결한 사랑의 지속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얘기다. 청마가 병마 아닌 교통사고로 운명했을 때 이왕 비극은 맞았지만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다. 이영도는 우선 다른 젊은 여인들이 청마의 연서를 책으로 묶어 내는 것이 두려웠다. 이런 여인들 문제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서둘러야 했다. 이 지상에서 청마를 진정으로 사랑한 당사자는 자신이라는 징표를 남겨두기 위해서다. 청마가 운명하자마자 연서뭉치를 상품화하는 행위를 부도덕으로 밀어붙일 것이 염려되지 않는 바는 아니었다. 운명한 지 불과 한달 사이다. 이영도는 이 때 평소 청마와 자기 사이의 다리를 묵묵히 놓아 주던 최계락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계락은 당시 국제신보의 문화부장이었다. 이영도가 최 부장을 은밀히 만나 의논한 끝에 청마의 연서를 최계락의 안목으로 가려 뽑는 조건으로 책으로 묶기로 했다.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란 표제가 붙여졌다. 청마 시의 한 구절에서 따 왔다. 연서집은 2만5000부가량 팔려 나갔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다. 수익금은 뒷날 '현대시학사'에 넘겨져 정운 문학상의 기금으로 적립되었다. 필자가 어느 날 이영도와 함께 최계락 편저자로 돼있는 책을 보고 "최 형이 하필 이 책을 만드는 악역을 맡았소" 했더니 최계락이 웃으면서 "누가 하고 싶어 했나. 그냥 두면 막무가내로 연서가 공개될텐데 청마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나?" 그제서야 최 형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당시 청마의 여인관계를 일종의 스캔들로 다루고자 취재를 완료한 ㅎ 주간지의 기자를 만나 만류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었다. 최계락은 그 기자를 만나 특유의 친화력과 설득으로 무마시켰던 일이 연상되었다. 청마를 좋아했던 후배의 예로서 청마 사후의 궂은 뒷치다꺼리를 더러는 오해를 받아가면서 혼자서 감당했다. 시와 인간, 두 가지 면에서 널리 존경을 받던 청마의 이미지가 자칫 손상당할 뻔했던 사건이었다. 이런 속사정을 잘 모르고 있던 문단 후배들이 연서를 상품화한 이영도를 몹시 매도하여 부산 신문들이 담합을 해서라도 집필 활동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 때 그런 결의까지 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 무렵 필자를 만난 이영도는 "김규태씨, 나를 앞으로 글을 못쓰게 한다면서요?" 목소리가 매우 격앙되어 있었다. 사실 어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필자는 아무 대꾸를 할 수 없었다. 당시 장전동에 살고 있던 이른바 자택의 당호인 애일당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은근히 존경했던 이영도에 대한 배신감에 젖었다는 후문이 날아들었다. 여생을 부산에서 살고자 했던 이영도가 청마의 묘소가 있는 부산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두 사람의 20년에 걸친 열애 실상을 누가 소상히 알겠는가. 다만 청마가 작고한 한달쯤 뒤에 대구의 이윤수 시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영도는 "20년의 열애를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열애를 행위하지 못하고 오직 희구로써 목마른 세월을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애정을 신앙에까지 승화시켜 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의 저의 심경을 어찌 알아주겠습니까?"라고 읍소에 가까운 고백을 했다. 그는 필자에게 "그 날 차라리 전화대로 하였던들 그 때 운명하지는 않았을 것을…" 이라고 후회하고 있었다. 이영도는 청마가 운명한 그날, 청마가 꼭 상의할 일이 있어 자기 집 방문을 청했는데 거절했다고 했다. '그렇게만 하지 않았던들…' 하고 사는 동안 회한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술이 만취하여 건 전화였다니 청마가 숨을 거둔 그날 필시 필자의 일행과 함께 마신 술이었기에 안타까움은 더했다. 정운 이영도는 청마 사후 9년 만인 1976년 뇌일혈로 생을 마감했다.

글 : 김규태(시인)[5)]

---

5) 시인 김규태의 인간기행 〈2〉 2006.2.19〈국제신문〉

4. 시로 승화된 사랑 이야기

청마 유치환과 정운이영도의 사랑을 매개한 '편지'라는 소통매체이다. 편지는 보내는 이와받는이의 1대1 교류이며 교감이다. 무릇 시인이라면 자신의 작품을 문학잡지나 신문 시집출판같은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 독자와 교감하는데 이는 1대 다중이라는 소통채널을 가지는데 편지라는 매체는 개인과 개인의 소통이며 , 공개되거나 공유하는 도구가 아니다. 따라 그 존재는 오직 받는 이의 것이며, 일반인들이 두 사람간의 지독히 개인적이며 사적인 영역을 공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마와 정운과의 연서는 청마 사후 사랑했으므로 행복했었네라』발간이 아니었다면 세인들은 영원히 알 수 없었던 일이며 동시에 그들 사이의 편지가 편지를 넘어 시로서 승화되지 않았다면 승화된 교감의 에쎈스를 감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수필집 정확하게 서간문'사랑했으므로 행복했었네라'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와 그 편지를 바탕을 창작된 시편들 몇 개를 추려 소개해 보기로 하자.

1.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임은 뭍같이 까딱 않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말이냐

2. 내가 언제 그대를 사랑한다던?

그러나 얼굴을 부벼들고만 싶은 알뜰함이
아아 병인양 오슬오슬 드는지고 덧없는 목숨이여
소망일랑 아예 갖지 않으매
요지경 같이 요지경 같이
높게 낮게 불타는 나의 –노래여, 뉘우침이여
나의 구원인 정향! 절망인 정향!
나의 영혼의 전부가 당신에게만 있는 나의 정향!
오늘 이 날이 나의 낙명(落命)의 날이 된달지라도 아깝지 않을 정향.....

3. 밤바람

너의 편지에 창밖의 저 바람소리마저
함께 봉하여 보낸다던 그 바람소리
잠결에도 외로와 깨어 이 한밤을 듣는다.

알수 없는 먼 먼데서 한사고
적막한 부르짖음하고 달려와
또 어디론지 만리(萬里)나 날 이끌고 가는
저 고독한 저 소리
너 또한 잠 못이루 대로 아득히 생각
이 한밤을 꼬박이 뜨고 밝히는가?
그리우미을 모르는 이에겐
저 하늘의 푸름인들 무슨 뜻이리
진정 밤 외로운 바람은
너와 나만을 위하여 있는것
아아 또 적막한 부르짖음 하고 저렇게
내게로 달려 오는 정녕 네 소리 !

4. 사랑하는 정향!

바람은 그칠 생각 없이 나의 밖에서 울고만 있습니다.
나의 방 창문들을 와서 흔들곤 합니다.
어쩌면 어두운 저 나무가, 바람이, 나의 마음 같기도 하고
유리창을 와서 흔드는 이가 정향, 당신인가도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이리다.
주께 애통히 간구하는 당신의 마음이 저렇게 정작 내게까지 와서는 들리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귀한 정향, 안타까운 정향!
당신이 어찌하여 이 세상에 있습니까?
나와 같은 세상에 있게 됩니까?
울지 않는 하느님의 마련이십니까?
정향! 고독하게도 입을 여민 정향!
종시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마음으로 우시면서 귀로 들으시지 않으려고 눈감고 계십니까?
내가 미련합니까?
미련하다 우십니까?
지척 같으면서도 만리 길입니까?
끝내 만리 길의 세상입니까?

정향!
차라리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 죄 값으로 사망의 길로 불러 주셨으면 합니다.
아예 당신과는 생각마저도 잡을 길 없는

사랑하는 정향!
바람은 그칠 생각 없이 나의 밖에서 울고만 있습니다.
나의 방 창문들을 와서 흔들곤 합니다.
어쩌면 어두운 저 나무가, 바람이, 나의 마음 같기도 하고
유리창을 와서 흔드는 이가 정향, 당신인가도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이리다.
주께 애통히 간구하는 당신의 마음이 저렇게 정작 내게까지 와서는 들리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귀한 정향, 안타까운 정향!
당신이 어찌하여 이 세상에 있습니까?
나와 같은 세상에 있게 됩니까?
울지 않는 하느님의 마련이십니까?
정향! 고독하게도 입을 여민 정향!
종시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마음으로 우시면서 귀로 들으시지 않으려고 눈 감고 계십니까?
내가 미련합니까?
미련하다 우십니까?
지척 같으면서도 만리길입니까?
끝내 만리길의 세상입니까?

정향!
차라리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 죄값으로 사망에의 길로 불러 주셨으면 합니다.
아예 당신과는 생각마저도 잡을 길 없는 세상으로

5. 그리움 – 정운(丁芸) 이영도

생각을 멀리하면 / 잊을 수도 있다는데
고된 살음에 / 잊었는가 하다가도
가다가 / 월컥 한 가슴 / 밀고 드는 그리움.

6. 세월(歲月)

끝내 올리 없는 올이를 기다려 / 여기 외따로이 열려 있는 하늘이 있어.
하냥 외로운 세월이기에 / 나무그늘 아롱대는 뜨락에 / 내려 앉는 참새 조찰히 그림자 빛나고.
자고 일고 – / 이렇게 아쉬이 삶을 이어 감은 / 목숨의 보람 여기 있지 아니함이거니.
먼 산에 우기(雨氣) 짙으량이면 / 자옥 기어 드는 안개 되창을 넘어
나의 글줄 행결 고독에 근심 배이고 –
끝내 올리 없는 올이를 기다려 / 외따로이 열고 사는 세월이 있어.

7. 바람에게

바람아 나는 알겠다. / 네 말을 나는 알겠다.
한사코 풀잎을 흔들고 / 또 나의 얼굴을 스쳐 가 / 하늘 끝에 우는 / 네 말을 나는 알겠다.
눈 감고 이렇게 등성이에 누우면 / 나의 영혼의 깊은데까지 닿는 너.
이 호호(浩浩)한 천지를 배경하고 / 나의 모나.리자! / 어디에 어찌 안아 볼 길 없는 너.
바람아 나는 알겠다. / 한오리 풀잎마다 부여잡고 흐느끼는 / 네 말을 나는 정녕 알겠다.

8. 탑(塔) 3

너는 저만치 가고 / 나는 여기 섰는데....
손 한번 흔들지 못한 채 / 돌아선 하늘과 땅
애모(愛慕)는 / 사리(舍利)로 맺쳐 / 푸른 도로 굳어라.

5. 청마에게 사랑이란 ?

그렇다면 이영도와청마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청마 유치환의 부인은 권재순여사이다 권재순여사는 통영 출신으로 지금의 중앙대학교 보육학과의 전신인 조양보육과를 나와 신여성으로서 유아교육계에 몸을 담고 진명유치원보모로 열심히 교사의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권재순 여사는 청년 유치환보다 훨씬 인텔리급에 속한 신여성으로서 통영의 유수한 젊은이들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아온 아가씨였다고 한다. 청년 유치환은 이런 아가씨를 사모하여 통영의 젊은이들이 모를 사람이 없을만큼 권재순여사를 향한 대단한 구애작전을 했다고 한다. 권재순여사의 사랑을 얻기 위해 수많은 편지를 보내왔고, 권재순은 내 여자라고 대자보에 실을 정도로 권재순여사를 향한 사랑이 짙었다고 한다. 청년유치환은노력으로 1928년 통영에서 결혼 한다 결혼을 한 후 그녀는 문화유치원을 경영하며 묵묵히 청마의 뒷바라지 한다 그리고 만주행에 함께 간다

바로 그가 본부인이다. 그럼 청마는 부인 권재순여사를 사랑하지 않았던가 ? 다음의 시를 살펴보자

病妻

아픈가 물으면 가늘게 미소하고
아프면 가만히 눈감는 아내 ---
한떨기 들꽃이 피었다 시들고 지고
한 사람이 살고 병들고 또한 죽어 가다
이 앞에서는 전 宇宙를 다 하야도 더욱 무력한가
내 드디어 그대 앓음을 나누지 못하나니
가만이 눈감고 아내여
이 덧없이 무상한
골육에 엉기인 有情의 거미줄을 觀念하며
遙遙한 太虛가운데
오직 고독한 홀몸을 응시하고
보지 못할 천상의 아득한 星芒을 지키며
蕭條(소조)히 地底를 구우는 무색 음풍을 듣는가
하여 애련의 야윈 손을 내밀어
인연의 어린 새 새끼들을 애석하는가

아아 그대는 일찌기
나의 청춘을 정열한 한 떨기 아담한 꽃

나의 가난한 인생에
다만 한 포기 쉬일 愛憎의 푸른 나무러니

아아 가을이런가
추풍은 蕭條(소조)히 그대 위를 스쳐 부는가

그대 만약 죽으면---
이 생각만으로 가슴은 슬픔에 즘생 같다
그러나 이는 오직 철없는 애정의 짜증이러니
진실로 엄숙한 사실 앞에는
그대는 바람같이 사라지고
내 또한 바람처럼 외로이 남으리니
아아 이 지극히 가까웁고도 머언 자여

이영도를 향한 유치환의 플라토닉한 사랑도 아름답고, 이영도의 유치환에 대한 그리움도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모든 아픔을 견디며 남편을 사랑한 권재순여사의 지고지순한 참사랑이 있었기에 유치환은 이시대의 사랑시인으로 남아 〈행복〉도 〈그리움〉도 우리의 가슴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6)]

그렇다면 청마의사랑은 어떤 유형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리고 이 판단은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문학적 판단이라야한다.

청마문학회 회장이며 시인인 문덕수 홍익대 명예교수(1928~ 경남 함안출신)는 [청마 유치환 평전-시문학사刊]을 내었는데 "청마는 생명의 소중함을 지상의 가치로 생각했고 그의 문학관은 매우 인생론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靑馬 유치환(1908~1967)이 시조시인 이영도(李永道, 정운 丁芸, 1916~1976)와 20년간 주고 받은 5000여통 편지는 詩를 매개로 한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한다. 나역시 이에 동의 한다.

---

6) 내 그대 앓음을 함께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나의 청춘을 정열한 한 떨기 아담한 꽃으로 담아두고, 나의 가난한 인생에 애증의 푸른 나무로 살아온 당신을 잊지 않겠다고 노래하고 있다. 조강지처와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아무리 오랜 동안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미운 짓 많이 하여도, 세월 넘기며 가정을 찾지 않아도 조강지처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모든 것 다 묻어두고 열두 폭 치맛자락으로 덮어두고 보듬고 나가는 그런 사랑이 조강지처의 사랑인 것이다. 이런 사랑의 보이지 않는 끈을 유치환도, 권재순 여사도 함께 잡고 살아온 것이다. 권재순여사의 인품과 덕망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아픈 부분을 보면 아버지 유치환선생님이 작고하신 후 이영도시인이 유치환이 보낸 편지를 모아 '사랑했으므로 행복하였네라'의 시집을 내게 되었을 때라고 말했다. 이 때 가족 모두는 이영도시인의 글이 아니라 아버지의 글인데 이영도시인이 유치환선생님의 가족 동의도 없이 시집을 출판하고 한권 모두를 자신의 소유로 하여 가족들 간에 소송을 해야겠다는 의논이 돌았다고 한다. 그때도 권여사가 유치환선생님을 위하여 소송문제를 절대 허용하지 않아서 모든 유족들이 참고 그 책의 출간을 묵인해 주었다고 한다. 유치환선생님의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은 모두 청마선생님이 탄생시킨 아름다운 한 편의 시였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청마선생님이 남긴 '그리움'과 '행복'속에서 모든 이들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독자만의 감동에 휘몰아치는 사랑을 느끼면 되는 것이다. 2010년 제3회 청마문학제 기념세미나 원순련 거제문학 제31집.2011. 거제문인협회. P.253-262

Lasswell & Lobsenz, 〈사랑유형 척도 검사〉, 1980

아래 질문에 O, X 로 답 한 후 백분율을 구해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나온 것이 자신의 사랑유형이다

1. 나는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한참 지난 다음에야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다.
3. 우리들 사이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나는 소화가 잘되지 않는다.
4. 현실적인 관점에서 나는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먼저 나의 장래목표부터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5. 먼저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동안 있은 다음에 비로소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6. 애인에게 나의 태도를 다소 불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언제나 좋다.
7. 우리가 처음 키스하거나 볼을 비볐을 때 나는 성기에 뚜렷한 반응(발기, 축축함)이 오는 것을 느꼈다.
8. 전에 연애상대였던 사람들 거의 모두와 나는 지금도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9. 애인을 결정하기 전에 인생설계부터 잘해두는 것이 좋다.
10. 나는 연애에 실패한 후 너무나 우울해져 자살까지도 생각해 본적이 있다.
11. 나는 사랑에 빠지면 하도 흥분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다.
12. 애인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설사 그가 바보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힘껏 도와주려고 한다.
13. 애인을 고통받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고통받겠다.
14. 연애하는 재미란 두 사람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서 얻어내는 재주를 시험해 보는 데 있다.
15. 사랑하는 애인이라면, 나에 관하여 다소 모르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 하지는 않을 것이다.
16.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17. 우리는 만나자마자 서로가 좋아서 키스를 했다.
18. 애인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나는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19. 나의 애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20. 대개 제일먼저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이다.
21. 최상의 사랑은 오랜 기간의 우정으로부터 싹튼다.
22. 나는 사랑에 빠지면 다른 일에는 도무지 집중하기 힘들다.

23. 그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나는 사랑의 가능성을 감지했다.

24. 나는 어느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면 그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무진 애를 쓴다.

25. 나의 애인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26. 나는 애인 두 사람이 서로 알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재주부린 적이 적어도 한번은 있었다.

27. 나는 매우 쉽고 빠르게 사랑했던 관계를 잊어버릴 수 있다.

28. 애인을 결정하는데 한 가지 가장 고려할 점은 그가 우리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29. 사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둘이 함께 살며 함께 가정을 꾸미고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다.

30. 애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가 원하는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다.

31.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점은 그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 여부이다.

32. 키스나 포옹이나 성관계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서로 충분히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33. 나는 매력적인 사람들과 바람 피는 것을 좋아한다.

34. 나와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애인이 알게 된다면 매우 속상해 할 것이다.

35. 나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의 애인이 될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정해 놓고 있었다.

36. 만일 나의 애인이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갖고 있다면, 나는 그 아기를 내 자식처럼 키우고 사랑하며 보살펴 줄 것이다.

37.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38.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39. 나는 질투 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40. 내가 애인에게 방해물이 된다면, 차라리 나는 포기하겠다.

41. 나는 애인의 것과 똑같은 옷, 모자, 자전거, 자동차 등을 갖고 싶다.

42. 나는 연애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는 데이트도 하고 싶지 않다.

43. 우리들의 사랑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될 때도 그를 다시 보면 옛날 감정이 되살아나는 때가 적어도 한번쯤은 있었다.

44.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의 애인이 마음대로 써도 좋다.

45. 애인이 잠시라도 나에게 무관심해지면, 나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때로는 정말 바보 같은 것도 할 때가 있다.

46. 깊이 사귀고 싶지는 않아도, 어떤 상대가 나의 데이트 신청에 응하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47. 상대를 택할 때 고려해야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가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48. 애인과 만나거나 전화한지 한참 되었는데도 아무소식이 없다면, 그에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49. 나는 누구와 깊게 사귀기 전에 우리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경우 그쪽의 유전적 배경이 우리와 잘 맞는 지부터 먼저 생각해본다.
50. 가장 좋은 연애관계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이다.

아래는 가 유형별 적용되는 위 문제들의 번호이다 O라고 답한 문제의 수를 세서 백분율을 구한다.

ex) 가장 좋은 친구 유형의 문제(2,5,8,21,29,32,37,50) 중에서 O라고 답한 항목이 5,8,21,32,37 로 5개라면 백분율은 5(O라고 답한 문제수)/8(가장 좋은 친구 유형의 총 문제수) X 100 하면 62.5%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친구(2, 5, 8, 21, 29, 32, 37, 50)

이타적 사랑(12, 13, 19, 24, 30, 36, 40, 44, 48)

논리적 사랑(4, 9, 16, 28, 31, 38, 42, 47, 49)

소유적 사랑(3, 10, 11, 18, 22, 25, 39, 43, 45)

낭만적 사랑(1, 7, 17, 20, 23, 35, 41)

유희적 사랑(6, 14, 15, 26, 27, 33, 34, 46)

제18기 박물관대학 하반기 과정

한국근대사의 연인들

발 행 일 2016. 9. 23.

발 행 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조우성

발 행 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032.440.6750

http://museum.incheon.go.kr

북디자인 성용디자인

표지디자인 조유미